



GITANJALI

신(神)께 바치는 송가(頌歌) 기탄잘리

평역 : 푸른글

<http://blog.paran.com/bharata>

1.

Thou hast made me endless, such is thy pleasure.

This frail vessel thou emptiest again and again,
and fillest it ever with fresh life.

당신께서 저를 영원케 하셨으니, 그것이 당신의 기쁨입니다.

이 연약한 그릇을 당신께서는 비우고 또 비우게 하시어

항상 신선한 생명으로 그것을 가득 채워줍니다.

This little flute of a reed thou hast carried over hills and dales,
and hast breathed through it melodies eternally new.

당신께서는 이 작은 갈대 피리를 언덕과 골짜기들 너머로 실어 오셔서,
그것을 통해 숨쉬시며 그 갈대 피리의 음률들을 영원히 새롭게 하십니다.

At the immortal touch of thy hands
my little heart loses its limits in joy and gives birth to utterance ineffable.

영원이신 당신의 손길들이 닿을 때면
저의 가냘픈 가슴은 기쁨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 자신의 한계를 잃고,
형언할 수 없는 것을 말로 나타내보려고 합니다.

Thy infinite gifts come to me only on these very small hands of mine.
Ages pass, and still thou pourest, and still there is room to fill.

당신의 무한한 선물들은 아주 작은 바로 나의 이 손을 통해 제게로 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당신은 가득 채워주시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손에는 채워야할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2.

When thou commandest me to sing
it seems that my heart would break with pride;
and I look to thy face, and tears come to my eyes.

당신께서 제게 노래를 부르시라 명하시면
저의 가슴은 자부심으로 터질 듯 하고,
제가 당신의 얼굴을 향할 때면 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릅니다.

All that is harsh and dissonant in my life melts into one sweet harmony
--and my adoration spreads wings like a glad bird on its flight across the sea.

제 삶 속의 온갖 거칠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들은
향긋한 하나의 조화 속으로 녹아들어,
저의 흠모는 바다를 가로질러 날아가는 기쁨에 찬 새처럼 날개를 펼칩니다.

I know thou takest pleasure in my singing.
I know that only as a singer I come before thy presence.
저는 당신께서 제 노래 속에서 기쁨을 얻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노래하는 자일 때만 제가 당신 앞에 설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I touch by the edge of the far-spreading wing of my song
thy feet which I could never aspire to reach.

나는 활짝 펼친 내 노래의 날개 끝으로만
감히 동경할 수 없는 당신의 발을 만질 수 있을 뿐입니다.

Drunk with the joy of singing I forget myself
and call thee friend who art my lord.

노래하는 기쁨에 취해 저는 제 자신을 잃고
저의 주님이신 당신을 감히 친구라 부릅니다.

3.

I know not how thou singest, my master!
I ever listen in silent amazement.

주님, 저는 당신께서 어떻게 노래하시는지 모릅니다.
저는 늘 조용한 놀라움 속에서 귀를 기울일 뿐입니다.

The light of thy music illumines the world.
The life breath of thy music runs from sky to sky.
The holy stream of thy music
breaks through all stony obstacles and rushes on.

당신의 음악은 빛줄기가 되어 온 세상을 빛나게 합니다.
당신의 음악은 생명의 숨결 되어 하늘에서 하늘로 날아다닙니다.
당신의 성스러운 음악의 물줄기는
온갖 돌처럼 단단한 장애물을 부수고 나아갑니다.

My heart longs to join in thy song,
but vainly struggles for a voice.

I would speak, but speech breaks not into song,
and I cry out baffled.

Ah, thou hast made my heart captive in the endless meshes of thy music,
my master!

제 가슴은 당신의 노래 속에서 하나가 되고자 하지만
다만 헛되이 목안에서 맴돌 뿐입니다.
저는 말로 표현하려하지만,

그 말들이 노래가 되지 나오지 않아 좌절하여 외칩니다.

오 주님, 당신께서는 제 가슴을

끝없는 당신 음악의 울가미들로 사로잡으셨습니다.

4.

Life of my life, I shall ever try to keep my body pure,

knowing that thy living touch is upon all my limbs.

제 생명 속의 참 생명이시여,

저는 언제나 제 육체를 순결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명의 손길이 제 온 몸을 어루만짐을 아는 까닭입니다.

I shall ever try to keep all untruths out from my thoughts,

knowing that thou art that truth

which has kindled the light of reason in my mind.

저는 언제나 제 생각들로부터 비롯되는

온갖 거짓된 것들을 물리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제 마음 속에 있는 이성의 불꽃이

당신으로부터 비롯된 진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I shall ever try to drive all evils away from my heart

and keep my love in flower,

knowing that thou hast thy seat in the inmost shrine of my heart.

저는 언제나 제 가슴속에 있는 모든 악들을 몰아내려고 노력하며,

저의 사랑이 꽃을 피운 상태로 있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성스러운 사원에

당신께서 자리하고 계심을 아는 까닭입니다.

And it shall be my endeavour to reveal thee in my actions,

knowing it is thy power gives me strength to act.

그리고 저는 저의 모든 행동들 속에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은 저를 행동하게 하는 힘이

당신께서 제게 주신 권능이라는 것을 아는 까닭입니다.

5.

I ask for a moment's indulgence to sit by thy side.

The works that I have in hand I will finish afterwards.

당신 곁에 앉아 제가 잠시나마 은혜를 구하게 하소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은 나중에 마치겠나이다.

Away from the sight of thy face

my heart knows no rest nor respite,

and my work becomes an endless toil in a shoreless sea of toil.

당신의 얼굴로부터 떨어져 당신을 보지 못하면

제 가슴에는 그 어떠한 휴식도 잠깐의 편안함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의 일들은 도달할 곳 없는 고통의 바다를 헤매는

끝없이 고된 노동이 됩니다.

Today the summer has come at my window

with its sighs and murmurs;

and the bees are plying their minstrelsy

at the court of the flowering grove.

오늘은 여름이 제 창가에 와서 숨쉬며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이 피어난 숲 속 정원에서는

벌들이 날아다니며 그들만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Now it is time to sit quite, face to face with thee,

and to sing dedication of live in this silent and overflowing leisure.

지금은 당신과 얼굴을 마주하고 조용히 앉아

이 고요함과 넘치는 여유로움으로 생명의 찬가를 부를 시간입니다.

6.

Pluck this little flower and take it, delay not!

I fear lest it droop and drop into the dust.

이 작은 꽃을 뽑아 때를 놓치지 말고 데려가 주소서.

저는 이 꽃이 시들어 땅에 떨어져 먼지로 돌아갈까 두렵습니다.

I may not find a place in thy garland,

but honour it with a touch of pain from thy hand and pluck it.

I fear lest the day end before I am aware, and the time of offering go by.

제가 비록 당신의 화관 속에 있을 자리를 찾지 못한다 하더라도,

당신의 손길이 닿아 뽑히는 아픔의 영광마저 저버리지는 마소서.

제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날이 저물어버려,
당신께 저를 바칠 시간이 지나가 버릴까 두렵습니다.

Though its colour be not deep and its smell be faint,
use this flower in thy service and pluck it while there is time.
비록 이 꽃의 색깔은 짙지 못하고 이 꽃의 향기가 약하다 하더라도
때맞추어 뽑아 이 꽃이 당신을 섬기는데 소용이 되게 하소서.

7.

My song has put off her adornments.
She has no pride of dress and decoration.
Ornaments would mar our union;
they would come between thee and me;
their jingling would drown thy whispers.
저의 노래는 여인의 장식들을 멀리 하였습니다.
저의 노래는 그 어떤 옷과 장신구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꾸밈은 당신과 나 사이에 끼여들어
그 짙랑거리는 소리로 님의 속삭임들을 가로막고
우리의 하나됨을 손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My poet's vanity dies in shame before thy sight.
O master poet, I have sat down at thy feet.
Only let me make my life simple and straight,
like a flute of reed for thee to fill with music.
시인으로서의 저의 자부심은
당신의 눈앞에 서면 부끄러워하며 사라져 버립니다.
오 시인들의 주님이시여, 저는 당신의 발 아래에 앉았나이다.
하오니 당신께서 선율을 채우시는 당신의 갈대 피리처럼
제 삶이 참되고 바르게 하소서.

8.

The child who is decked with prince's robes
and who has jewelled chains round his neck
loses all pleasure in his play;
his dress hampers him at every step.
좋은 옷을 입고 보석 목걸이를 한 채 노는 어린아이는,

걸을 때마다 그의 옷이 더러워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인해
놀이에서 전혀 즐거움을 얻지 못합니다.

In fear that it may be frayed, or stained with dust
he keeps himself from the world, and is afraid even to move.

옷이 닳아서 헤어지지 않을까 먼지로 더럽혀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사는 어린아이는 늘 세상에 섞이는 것을 망설이고
심지어 움직이는 것조차 두려워할 것입니다.

Mother, it is no gain, thy bondage of finery,
if it keep one shut off from the healthful dust of the earth,
if it rob one of the right of entrance
to the great fair of common human life.

성스러운 어머니시여,
만일 옷과 아름다운 장식이 건강한 대지로부터 자신을 차단하게 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의 평범한 삶 속으로 드나드는 권리를
그 사람에게서 빼앗는 것이라면
당신께 올리는 화려한 장식이란 속박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9.

O Fool, try to carry thyself upon thy own shoulders!
O beggar, to come beg at thy own door!
Leave all thy burdens on his hands who can bear all,
and never look behind in regret.

오 어리석은 자여,
그대는 그대 자신을 자신의 어깨 위에 메고 가려 하나요!
오 빈곤한 자여,
그대는 자신의 집 문 앞에 서서 구걸하려고 하나요!
그대는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그 분의 손에
그대의 모든 짐을 맡기고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결코 아쉬움이 남겨 뒤돌아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Thy desire at once puts out the light from the lamp
it touches with its breath.
It is unholy--take not thy gifts through its unclean hands.

Accept only what is offered by sacred love.

그대가 욕망으로 가득 찬 숨결로 등잔을 가까이 하면
등잔의 불은 이내 그대의 욕망으로 인해 꺼져 버리고 말 것이니,
욕망으로 더러워진 그 손으로 그대 자신의 선물을 받지 마십시오.
그것은 성스럽지 못한 것이니
오직 성스러운 사랑에 의해 그대에게 주어진 것만 받으십시오.

10.

**Here is thy footstool and there rest thy feet
where live the poorest, and lowliest, and lost.**

당신께서는 가장 가난한 사람과 가장 비천하게 살고있는 사람
그리고 길 잃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발판을 두시고
그곳에 당신은 머물러 계십니다.

**When I try to bow to thee,
my obeisance cannot reach down to the depth
where thy feet rest among the poorest, and lowliest, and lost.**

그러므로 제가 무릎을 꿇고 당신께 예배를 드리려 해도
저의 예배는 가장 가난한 사람과 가장 비천하게 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길을 잃은 자들 사이에 자신의 발을 머물게 하신
당신의 그 깊은 뜻에는 닿을 수 없습니다.

**Pride can never approach to where thou walkest
in the clothes of the humble among the poorest, and lowliest, and lost.**

당신께서는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천하고 길을 잃은 자들 속에서
남루한 옷을 입고 걷고 계시기에
오만함은 결코 당신이 걷고 계신 그곳에 이르지 못합니다.

**My heart can never find its way to where thou keepest company
with the companionless among the poorest, the lowliest, and the
lost.**

또한 당신께서는 벗도 없이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천하고 길 잃은 사람들 속에서
그 무리들을 가장 가까이 하고 계시기에
제 마음은 결코 당신의 그런 마음 길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11.

Leave this chanting and singing and telling of beads!
Whom dost thou worship in this lonely dark corner of a temple
with doors all shut?

Open thine eyes and see thy God is not before thee!

진실한 마음이 담기지 않은 기도와 찬송
그리고 염주를 굴리며 주문을 외우는 따위의 짓은 이제 그만 두십시오!
문들이 모두 닫힌 이 외롭고 어두운 사원의 구석에서
그대들은 도대체 누구를 경배하며 기도하고 있단 말인가요?
눈을 열고 바로 보십시오.
그대의 신(神)은 그대 눈 앞에 있지 않다는 것을!

He is there where the tiller is tilling the hard ground
and where the pathmaker is breaking stones.

He is with them in sun and in shower,
and his garment is covered with dust.

Put of thy holy mantle and even like him come down on the dusty soil!

신(神)은 단단한 땅을 갈고있는 농부가 있는 곳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돌을 깨고 있는 그곳에 계십니다.
그 분께서는 내리 쬐는 햇볕 속에서도 비가 쏟아질 때에도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에 그 분의 옷은 먼지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대들도 자신이 성스럽다고 생각하는
그 가식의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더 나아가 신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더러운 먼지로 뒤덮인 이 낮은 땅으로 내려오십시오.

Deliverance? Where is this deliverance to be found?

Our master himself has joyfully taken upon him the bonds of creation;
he is bound with us all for ever.

해탈이라구요?

해탈이 어떤 장소에서 찾아질 수 있는 것인가요?
우리의 주님께서서는 자신 스스로 창조의 속박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분께서는 우리 모두와 영원한 인연을 맺으셨습니다.

Come out of thy meditations and leave aside thy flowers and incense!

What harm is there if thy clothes become tattered and stained?

Meet him and stand by him in toil and in sweat of thy brow.

그대 자신의 해묵은 생각들 속에서 뛰쳐나오십시오.

그대 자신이 생각으로 만든 꽃들과 향기를 한 쪽으로 치우십시오.

그대의 옷이 누더기가 되고 얼룩으로 더럽혀진다고 하더라도

신과 함께라면 거리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대의 이마에 땀방울을 맺히는 수고로움 속에서

신을 만나고 신 곁에 서십시오.

12.

The time that my journey takes is long and the way of it long.

내 여정(旅程)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갈 길은 멉니다.

I came out on the chariot of the first gleam of light, and

pursued my voyage through the wildernesses of worlds

leaving my track on many a star and planet.

나라는 것은 빛의 첫 섬광(閃光)으로부터 나타나

빛의 수레를 타고 자기만의 항로를 추구하고

망망히 펼쳐진 우주 사이에서 여행하면서

수많은 별과 행성에 자신의 자취를 남기고 떠나는 존재인 것입니다.

It is the most distant course that comes nearest to thyself,

and that training is the most intricate

which leads to the utter simplicity of a tune.

매우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시련을 통해서

나를 완전무결한 조화의 단순성으로 이끌어 감으로서

내가 자기 자신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것

이것이 나라의 존재의 머나먼 노정(路程)인 것입니다.

The traveller has to knock at every alien door to come to his own,

and one has to wander through all the outer worlds

to reach the innermost shrine at the end.

나그네는 자기 집 문에 이르기 위해

수많은 낯선 문들을 하나하나 다 두드려 봅니다.

그리고 맨 끝에 있는 가장 깊은 성지(聖地)에 도달하기 위해

모든 바깥 세계를 헤매고 다니며 방황합니다.

My eyes strayed far and wide
before I shut them and said 'Here art thou!'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눈을 감으면서
쟁慕 11 이곳에 당신이 계셨군요 11 하기 전까지는
나라는 존재는 온 세상 이곳 저곳을 헤매고 다닙니다.

The question and the cry 'Oh, where?'
melt into tears of a thousand streams
and deluge the world with the flood of the assurance 'I am!'

그리하여 마침내 나라의 존재에 대한 의문과
깡 11, 제가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다구요? 嚮求 11 외침은
수많은 시냇물 줄기를 이루어 눈물의 강 속으로 녹아들고
靛 11 존재한다! 靛 11 확신의 홍수로 세상을 범람케 합니다.

13.

The song that I came to sing remains unsung to this day.

제가 불러 보려고 한 노래는 이 날까지도 불러보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I have spent my days in stringing and in un-stringing my instrument.

저는 제게 주어진 시간을 내 악기의 줄을 당기거나 늦추거나 하면서
헛되이 악기를 조율(調律)하는데만 헛되이 시간을 보내왔던 것입니다.

The time has not come true, the words have not been rightly set;
only there is the agony of wishing in my heart.

시간은 진정 오지 않았고 말들은 올바르게 정돈되지 못해
제 마음은 오직 바람의 몸부림으로만 가득합니다.

사전기 (死戰期 agony)

죽음에 이르기 직전의 상태. 죽음 직전에는 신체의 여러 가지 기능이 실조(失調)되거나 거의 정지된 상태가 된다. 구체적으로는 순환계부전·간부전·위부전·호흡장애·영양실조·탈수증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호흡은 점차 약해지면서 느려지고 불규칙해지며 비익호흡(鼻翼呼吸) 또는 하악호흡(下顎呼吸)을 하거나 혹은 체인스토크스호흡(이상호흡의 일종으로, 호흡하는 기간과 호흡하지 않는 기간이 주기적으로 나타난다)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와 함께 맥박은 빠르고 미약해지며 혈압이 내려간다. 피부색은 일반적으로 창백해져 흙빛이 되며 신체 말단은 차가워진다. 또한 코끝은 뾰족해지고 안구는 폭 파이며 눈꺼풀이 내려앉고 반쯤 감은 듯이 보인다. 아래턱도 내려앉고 입술이 처지는 등의 사상(死相)이 나타난다. 사전기에는 온몸의 모든 반사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눈동자는 빛에 대한 반응이 둔해지고 동공산대(瞳孔散大) 현상을 나타낸다. 연하(嚥

下)도 불능상태가 되고 목에 점액이 고이며 호흡할 때 할딱이는 소리가 난다. 또한 입을 벌리고 호흡하기 때문에 상기도 및 구강의 점막이 마른다. 소변·대변의 실금(失禁)이 생기고 의식도 소실된다. 이와 같은 상태가 되었을 때는 의치(義齒)를 떼어내고 질식을 예방하기 위해 목에 고인 점액을 제거하고 구강과 입술에 물을 적셔준다.

단말마 (斷末魔 death agony)

임종(臨終)을 맞는 최후 순간의 모진 고통(苦痛). 산스크리트 말마(marman)에서 유래된 말로, 숨이 끊어질 때의 마지막 고통을 가리킬 때 쓰인다. 말마는 육체의 급소를 뜻하며, 이 말마를 끊으면 죽음과도 같은 아픔이 따른다는 데서 나왔다. <단말마의 고통>이라는 말로 예술작품 등에 쓰이고 있다.

The blossom has not opened; only the wind is sighing by.

꽃잎이 열지도 못했는데 바람만이 한숨지으며 스쳐갑니다.

I have not seen his face, nor have I listened to his voice;

only I have heard his gentle footsteps from the road before my house.

저는 아직 그의 얼굴도 보지 못했고 그의 음성도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제 집 앞길을 지나는 그의 조용한 발자국 소리를 들었을 뿐입니다.

The livelong day has passed in spreading his seat on the floor;

but the lamp has not been lit and I cannot ask him into my house.

기나긴 날을 살아오면서 나는 내내 마루에 그가 앉을 자리만을 펴면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의) 등불을 켜지 못했기에 나는 그를 내 집으로 청할 수도 없습니다.

I live in the hope of meeting with him; but this meeting is not yet.

저는 그와 만날 날만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4

My desires are many and my cry is pitiful,

but ever didst thou save me by hard refusals;

and this strong mercy has been wrought into my life

through and through.

저의 갈망들이 너무 많고 제 외침이 가련할 때도

님께서는 늘 단호하게 (저의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엄한 자비가 제 삶 속으로 속속들이 스며들도록 만드셨습니다.

Day by day thou art making me worthy of the simple, great gifts
that thou gavest to me unasked

--this sky and the light, this body and the life and the mind
--saving me from perils of overmuch desire.

제가 청하지 않아도 님께서는 제게
이 하늘과 빛과 이 몸과 생명과 그리고 마음과 같이 값진,
소박하고 위대한 선물들의 날이면 날마다 주시어
저를 가치 있게 만드시고
넘치는 욕망의 위험으로부터 절 구해 주십니다.

There are times when I languidly linger
and times when I awaken and hurry in search of my goal;
but cruelly thou hidest thyself from before me.

제가 무기력하게 꾸물거리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제 목표를 찾아 서두르는 그런 시간이면
님께서는 무정하게 제 앞에서 모습을 감추십니다.

Day by day thou art making me worthy of thy full acceptance
by refusing me ever and anon,
saving me from perils of weak, uncertain desire.

님께서는 저를 때때로 거절하심으로써
님을 제가 온전히 수용하도록 하시어
날이면 날마다 저를 더욱 가치 있게 만드십니다.

15

I am here to sing thee songs.
In this hall of thine I have a corner seat.
님을 찬송하기 위해 여기에 와서
저는 님의 방 한쪽 구석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In thy world I have no work to do;
my useless life can only break out in tunes without a purpose.
님의 세계 안에서는 저는 아무런 할 일이 없습니다.

제 부질없는 생명은 오직 목적 없이 존재하는 이 조화(調和)를 깰 뿐입니다.

When the hour strikes for thy silent worship at the dark temple of midnight,
command me, my master, to stand before thee to sing.

그러하오니 한 밤중에 어두운 사원에서
조용히 님을 경배할 시간이 되었음을 알리면
저의 주인님이시여, 제가 님 앞에 서서 노래하도록 명해주소서.

When in the morning air the golden harp is tuned, honour me,
commanding my presence.

그리고 아침의 싱그러운 공기 속에서 금빛 하프 소리가 울려 퍼지면
저를 축복하시어 님 곁에 제가 있도록 제 출석(出席)을 명해 주소서.

16

I have had my invitation to this world's festival,
and thus my life has been blessed.

My eyes have seen and my ears have heard.

저는 이 세상의 축제에 초대하는 제 초청장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 삶은 늘 축복 받은 삶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눈으로 보아 왔고 제 귀로 들어 왔습니다.

It was my part at this feast to play upon my instrument,
and I have done all I could.

이 축제에서 내 악기로 연주하는 것이 내 몫이라는 것을,
그리고 저는 이 세상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Now, I ask, has the time come at last when I may go in
and see thy face and offer thee my silent salutation?

그러니 이제 저는 마침내 님의 품속으로 들어가
님의 얼굴을 뵈고 제 침묵의 인사를 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왔는지를 묻나이다.

17

I am only waiting for love to give myself up at last into his hands.

That is why it is so late and why I have been guilty of such omissions.

저는 그의 손에 마침내 제 자신을 포기하여 바치는

오직 그런 사랑을 위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렇게 늦게 된 까닭이며 그런 태만함의 죄들을 지은 까닭입니다.

**They come with their laws and their codes to bind me fast;
but I evade them ever,
for I am only waiting for love to give myself up at last into his hands.**

사회는 자신들의 법률과 관습들로 저를 단단히 움아매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그것들을 피해 빠져나왔습니다.

그것은 저는 그 분의 손에 마침내 제 자신을 포기하여 바치는

오직 그런 사랑을 위해 기다리고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People blame me and call me heedless;

I doubt not they are right in their blame.

사람들은 그런 저를 비난하며 무모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비난이 그들 방식으로는 옳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The market day is over and work is all done for the busy.

Those who came to call me in vain have gone back in anger.

I am only waiting for love to give myself up at last into his hands.

장날은 지났고 바쁜 이들의 일도 모두 끝났습니다.

헛되이 나를 부르러 온 사람들도 모두 화를 내며 되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분의 손에 마침내 제 자신을 포기하여 바치는

오직 그런 사랑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18

Clouds heap upon clouds and it darkens.

Ah, love, why dost thou let me wait outside at the door all alone?

구름들이 층층이 쌓여서 어두워집니다.

오 사랑이여, 어찌하여 그대는 저를 문 밖에서 홀로 기다리게 하시나이까.

In the busy moments of the noontide work I am with the crowd,

but on this dark lonely day it is only for thee that I hope.

일로 바쁜 낮 시간에는 저는 군중들과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둡고 외로운 날이면

제가 바라는 것은 오직 당신을 찾는 것입니다.

If thou showest me not thy face, if thou leavest me wholly aside,

I know not how I am to pass these long, rainy hours.

만일 당신께서 제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신다면
만일 당신께서 저를 완전히 외면하고 떠나신다면
저는 그 긴 슬픔의 시간들을 도대체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모르답니다.

I keep gazing on the far-away gloom of the sky,
and my heart wanders wailing with the restless wind.

저 떠나 먼 하늘의 어두운 표정을 응시하고 있노라면
제 마음은 쉬지 못하는 바람처럼 울부짖으며 방황합니다.

19

If thou speakest not I will fill my heart with thy silence and endure it.
I will keep still and wait like the night with starry vigil
and its head bent low with patience.

만일 당신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당신의 침묵으로 제 마음을 채우고 그것을 견뎌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낮게 숙이고 인내하며
잠 못 드는 별들이 총총한 밤처럼 기다릴 것입니다.

The morning will surely come, the darkness will vanish,
and thy voice pour down in golden streams breaking through the sky.

틀림없이 아침은 오고 어둠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가르는 황금빛 햇살 속에 당신의 음성이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Then thy words will take wing in songs
from every one of my birds' nests,
and thy melodies will break forth in flowers in all my forest groves.

그런 다음 당신의 말씀들은
내 새 둥지들 하나 하나에서 나오는 모든 노래들로 날개를 헤 달고,
당신의 선율들은 내 숲 속 작은 과수원에 있는 모든 꽃들 속에서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20

On the day when the lotus bloomed,
alas, my mind was straying, and I knew it not.
My basket was empty and the flower remained unheeded.

연꽃이 피었던 바로 그 날도
아, 제 마음은 길을 잃고 방랑하여,
저는 그 연꽃이 핀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 바구니는 비어 있었고 그 연꽃은
아무도 보아주는 이 없는 채 남겨져 있었습니다.

Only now and again a sadness fell upon me,
and I started up from my dream
and felt a sweet trace of a strange fragrance in the south wind.
오직 슬픔이 눈앞에 닥치거나 되풀이해서 저를 덮쳐 누를 때에만,
저는 제 꿈으로부터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마파람 속에 묻어온 낮선 향기의 감미로운 흔적을 느꼈습니다.

That vague sweetness made my heart ache with longing
and it seemed to me that is
was the eager breath of the summer seeking for its completion.
그 희미한 감미로움이 그리움으로 제 마음을 아프게 만들어도
저는 그것이 열정적인 여름의 숨결이
자신의 계절을 완성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I knew not then that it was so near, that it was mine, and that
this perfect sweetness had blossomed in the depth of my own heart.
그 때에도 저는 그 꽃이 그렇게 가까이에 있으며
그 꽃이 저의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향기가 제 마음 속 깊은 곳으로부터 피어난
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 역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21

I must launch out my boat.
The languid hours pass by on the shore--Alas for me!
나는 이제 내 배를 띄워야만 합니다.
무기력했던 시간들을 해변에 남겨둔 채로,
나를 위하여.

The spring has done its flowering and taken leave.
And now with the burden of faded futile flowers I wait and linger.

봄은 꽃을 피우는 자신의 임무를 마치자마자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빛 바랜 하얗은 꽃무더기를 들고서
기다리며, 떠나기 싫어 꾸물거리고 있습니다.

The waves have become clamorous,
and upon the bank in the shady lane the yellow leaves flutter and fall.
물결들은 점점 거칠어지고 있고
제방 위 그늘진 샛길에는 노란 잎들이 흩날리며 떨어져 내립니다.

What emptiness do you gaze upon!
Do you not feel a thrill passing through the air
with the notes of the far-away song floating from the other shore?
그대는 어떤 무가치 한 것을 바라보고 있나요?
그대는 또 다른 해변에서 떠올라 바람을 타고 날아오는
희미한 노래 가락들이 스치는 짜릿함을 느끼지 못하시나요?

22

In the deep shadows of the rainy July, with secret steps,
thou walkest, silent as night, eluding all watchers.
당신께서는
비 내리는 7 월의 짙은 녹음 속을
밤처럼 고요하게, 모든 사람들의 눈을 피하며
남모르는 걸음으로 걷고 계십니다.

Today the morning has closed its eyes,
heedless of the insistent calls of the loud east wind,
and a thick veil has been drawn over the ever-wakeful blue sky.
오늘은 아침이 자신의 눈을 감았습니다.
요란한 새벽 바람의 끈질긴 요청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두터운 장막이 늘 깨어있는 푸른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The woodlands have hushed their songs,
and doors are all shut at every house.
Thou art the solitary wayfarer in this deserted street.
Oh my only friend, my best beloved,
the gates are open in my house--do not pass by like a dream.

숲들은 자신들의 노래들을 멈추었고
집집마다 모든 문들을 닫았는데도,
당신께서는 이 황량한 거리의 외로운 방랑자입니다.
오, 저의 유일한 친구여,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이여,
저희 집 문은 열려있으니, 부디 꿈처럼 스쳐 지나가지는 마옵소서.

23

Art thou abroad on this stormy night on thy journey of love, my friend?
The sky groans like one in despair.

내 사랑하는 벗이여,
그대는 이 폭풍우 몰아치는 밤에도 밖에서 사랑의 행로를 걷고 계신가요?
이렇게 하늘이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처럼 신음하는데 말입니다.

I have no sleep tonight.

Ever and again I open my door and look out on the darkness, my friend!

내 사랑하는 벗이여, 나는 이 밤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몇 번이고 다시 문을 열어 어둠 속을 바라봅니다.

I can see nothing before me. I wonder where lies thy path!

제 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이 길 어디쯤 계신지 궁금합니다.

By what dim shore of the ink-black river,
by what far edge of the frowning forest,
through what mazy depth of gloom
art thou threading thy course to come to me, my friend?

내 사랑하는 벗이여,
그대는 그 어떤 검푸른 강 어둑한 언덕을 지나고
그 어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먼 숲 모퉁이를 지나
그 어떤 깊은 어둠 속 미로와 같은 길을 통해
제게로 오는 당신의 길을 누비고 계십니까?

24

If the day is done, if birds sing no more, if the wind has flagged tired,
then draw the veil of darkness thick upon me,
even as thou hast wrapt the earth with the coverlet of sleep
and tenderly closed the petals of the drooping lotus at dusk.

날은 이미 저물고 새들도 이제 더 이상 노래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만일 바람마저 지쳐서 축 늘어진다면,
그렇게 되면 두터운 어둠의 장막을 끌어와 저를 덮어주소서.
당신께서 잠의 덮개로 대지를 감싸던 것처럼
어스름 때 풀 죽은 연꽃잎들을 부드럽게 단아주셨던 것처럼.

From the traveller, whose sack of provisions is empty
before the voyage is ended, whose garment is torn and dust-laden,
whose strength is exhausted, remove shame and poverty,
and renew his life like a flower under the cover of thy kindly night.

여행을 다 마치기도 전에 여행자의 식량자루가 비고
그 옷은 다 떨어지고 먼지에 절었으며 그 힘이 다했더라도,
여행자로부터 부끄러움과 가난함을 물리쳐주시고
당신이 베푸시는 다정한 밤의 품 아래에 있는 꽃처럼
여행자의 생명을 새롭게 하소서.

25

In the night of weariness
let me give myself up to sleep without struggle,
resting my trust upon thee.

지친 밤이 오면 제 모든 것을 당신께 맡기고
자신을 잠에 맡겨 뒤척거리지 않고 편히 쉬게 하소서.

Let me not force my flagging spirit
into a poor preparation for thy worship.

저의 쇠약해진 정신이
준비되지 못한 초라한 차림으로 당신을 경배하지 않게 하소서.

It is thou
who drawest the veil of night upon the tired eyes of the day
to renew its sight in a fresher gladness of awakening.

지친 낮의 눈 위에 밤의 장막을 끌어다 놓으심으로써
다음날이 되면 더욱 신선한 각성의 기쁨 속에서
그 눈이 보도록 다시 새롭게 하시는 것은 당신입니다.

26

He came and sat by my side but I woke not.

What a cursed sleep it was, O miserable me!

그 분이 와서 내 곁에 앉았어도 나는 잠을 깨지 못했습니다.

그 얼마나 저주스런 잠이었던가요. 오 참담한 이 몸.

He came when the night was still; he had his harp in his hands,
and my dreams became resonant with its melodies.

그 분은 밤이 고요해지면 자신의 하프를 손에 들고 오십니다.

그러면 내 꿈들은 그 분의 하프소리에 어울려 울리기 시작합니다.

Alas, why are my nights all thus lost?

Ah, why do I ever miss his sight whose breath touches my sleep?

아, 나는 왜 나의 밤들을 모두 그렇게 잃어버리는 것일까요?

아, 나는 왜 자신의 숨결로 내 잠을 만지는 그 분의 모습을

날마다 놓치고 있는 것일까요?

27

Light, oh where is the light?

Kindle it with the burning fire of desire!

There is the lamp

but never a flicker of a flame--is such thy fate, my heart?

Ah, death were better by far for thee!

빛이여, 오 어디에 빛이 있나요?

(신이시여, 부디 저의)

이 타오르는 욕망의 불로 제가 빛을 점화하게 만드소서!

등잔은 있지만 불꽃의 깜박임은 전혀 없는

이것이 정녕 내 마음 그대의 운명이란 말인가요?

오, 그렇다면 마음 그대에겐 죽음이 훨씬 더 나았을 것을!

Misery knocks at thy door,

and her message is that thy lord is wakeful,

and he calls thee to the love-tryst through the darkness of night.

비극이 그대의 문을 두드리며 소식을 전합니다.

그대의 주님께서 잠 못 이루고 있다고,

어둠을 뚫고 사랑의 보금자리로 오라고
주님께서 그대를 부르고 있다고.

The sky is overcast with clouds and the rain is ceaseless.
I know not what this is that stirs in me--I know not its meaning.
하늘엔 먹구름이 가득하고 비가 썩 없이 내립니다.
그러나 저는 제 속에서 저를 뒤흔드는 것이 무엇이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도 모릅니다.

A moment's flash of lightning
drags down a deeper gloom on my sight,
and my heart gropes for the path to where the music of the night calls me.
그러다가 한 순간 번갯불이 번쩍여
제 시야(視野)를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끌어내리면,
제 마음은 밤의 선율이 어디에서 나를 부르는지
손으로 길을 찾아 더듬습니다.

Light, oh where is the light!
Kindle it with the burning fire of desire!
It thunders and the wind rushes screaming through the void.
The night is black as a black stone.
Let not the hours pass by in the dark.
Kindle the lamp of love with thy life.
빛이여, 오 어디에 빛이 있나요?
(신이시여, 부디 저의)
이 타오르는 욕망의 불로 제가 빛을 점화하게 만드소서!
천둥이 치고 바람이 울부짖으며 허공을 매섭게 가릅니다.
저의 밤은 검은 바위처럼 어둡습니다.
주님, 부디 제가 이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게 하소서.
사랑의 등불을 당신의 생명으로 밝혀주소서.

28

Obstinate are the trammels,
but my heart aches when I try to break them.
집착한다는 것은 속박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집착의 사슬을 끊으려하면서 마음 아파합니다.

Freedom is all I want, but to hope for it I feel ashamed.

I am certain that priceless wealth is in thee,
and that thou art my best friend,
but I have not the heart to sweep away the tinsel that fills my room.

자유로워지는 것만이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이지만
하지만 그것을 기대하기에는 저는 너무나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저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부(富)가 주님 안에 있으며
주님께서 저의 가장 소중한 친구라는 것도 확신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제 방을 가득 채운,
겉만 번쩍이는 것들을 마음에서 끌어내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The shroud that covers me is a shroud of dust and death;
I hate it, yet hug it in love.

저를 덮고 있는 장막은 죽음과 덧없음의 장막입니다.
그 장막을 저는 미워합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장막을 애착하여 꼭 끌어안고 있습니다.

My debts are large, my failures great, my shame secret and heavy;
yet when I come to ask for my good,
I quake in fear lest my prayer be granted.

제가 짊어진 채무는 많고, 잘못은 크며,
저의 비밀스러운 부끄러움은 무겁기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저의 행복을 바라면서
혹시 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하여 두려움에 떨니다.

29

He whom I enclose with my name is weeping in this dungeon.

I am ever busy building this wall all around;
and as this wall goes up into the sky day by day
I lose sight of my true being in its dark shadow.

제가 저의 이름으로 에워싸 버린
그 분이 이 토굴 감옥 속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그 토굴의 사방을 담으로 쌓기에 바쁘고,
날이 갈수록 이 담이 하늘을 향해 높아짐에 따라

그 담의 어두운 그늘에 가려
저는 진정한 저의 모습을 보는 법을 잃어갑니다.

I take pride in this great wall,
and I plaster it with dust and sand
lest a least hole should be left in this name;
and for all the care I take I lose sight of my true being.
저는 이 거대한 담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랑스런 이름을 걸고
그 담에 조그마한 틈새도 없게 하기 위해 흙가루와 모래로 바릅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온 정성을 쏟은 덕에
저는 진정한 저의 모습을 보는 법을 잃고 맙니다.

30

I came out alone on my way to my tryst.
But who is this that follows me in the silent dark?
저는 저만의 보금자리를 찾아 홀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고요한 어둠 속에서 저를 따라오는 이는 누구입니까?

I move aside to avoid his presence but I escape him not.
저는 그 존재를 회피하기 위해 비켜서지만
그로부터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He makes the dust rise from the earth with his swagger;
he adds his loud voice to every word that I utter.
그의 활보는 땅으로부터 흙먼지가 일게 하고,
그는 큰소리로 내가 중얼거리는 모든 말에 대꾸합니다.

He is my own little self, my lord, he knows no shame;
but I am ashamed to come to thy door in his company.
오 저를 굽어살피시는 주님, 그는 바로
부끄러움이라고는 전혀 모르는 저의 왜소한 자아(自我)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그와 더불어 주님의 문에 간 것이 부끄럽습니다.

31

'Prisoner, tell me, who was it that bound you?'

隤价括結 25, 내게 말하라, 그대를 가둔 것이 누구였는지를? ㉞

'It was my master,' said the prisoner.

'I thought I could outdo everybody in the world in wealth and power,
and I amassed in my own treasure-house the money due to my king.

When sleep overcame me I lay upon the bed that was for my lord,
and on waking up I found I was a prisoner in my own treasure-house.'

그러자 죄수가 대답했습니다.

隤倅 25 가둔 것은 저의 주인이었습니다.25

隤駭 25 부와 권력에 있어서는 이 세상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으리라 생각했고,
그래서 저는 제가 모시는 왕에게 돌려야 할 돈을 제 보물창고에 쌓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잠이 쏟아지면 저의 주인인 부와 권력을 위해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깨어보니 저는 제 자신 보물창고에 갇힌 죄수의 신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㉞

'Prisoner, tell me, who was it that wrought this unbreakable chain?'

隤价括結 25, 내게 말하라, 이 끊을 수 없는 쇠사슬을 누가 만들었는가를? ㉞

'It was I,' said the prisoner,

'who forged this chain very carefully.

I thought my invincible power would hold the world
captive leaving me in a freedom undisturbed.

Thus night and day I worked at the chain
with huge fires and cruel hard strokes.

When at last the work was done
and the links were complete and unbreakable,

I found that it held me in its grip.'

그러자 죄수가 대답했습니다.

隤陋痼 25 만든 자는 바로 제 자신입니다.

제가 이 쇠사슬을 아주 정성을 들여 버려서 만든 것입니다.

저는 제 불굴의 힘으로 이 세상을 움켜질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힘이면 제가 노예의 상태에서 벗어나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큰 불을 피우고

몹시 힘들게 두드려서 이 쇠사슬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일을 끝마치고 보니

그 사슬이 너무 완벽하게 끊을 수 없게 이어져 있었고

그때서야 제가 그 사슬이 저를 단단히 묶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6

32

By all means they try to hold me secure
who love me in this world.

But it is otherwise with thy love which is greater than theirs,
and thou keepst me free.

온갖 수단으로 저를 편안하게 해주려고 하는 사람은
저를 이 세상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당신께서는 그들의 사랑과는 다른 더욱 더 큰 당신의 사랑으로
저를 자유롭게 놓아두고 지켜주고 계십니다.

Lest I forget them they never venture to leave me alone.

But day passes by after day and thou art not seen.

세상 속에서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제가 그들을 잊을까하여
저를 감히 혼자 내버려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날이 흘러도 당신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If I call not thee in my prayers, if I keep not thee in my heart,
thy love for me still waits for my love.

혹시 제가 기도로 당신을 찾지 않아도

제가 제 마음 속에 당신을 간직하지 않고 있어도

제 사랑을 기다리는 저를 위한 당신의 사랑은 여전합니다.

33

When it was day they came into my house and said,

'We shall only take the smallest room here.'

때가 오자 그들은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꺽 26 여기서 가장 작은 방을 차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26

They said, 'We shall help you in the worship of your God

and humbly accept only our own share in his grace';

and then they took their seat in a corner and they sat quiet and meek.

또 그들은 말했습니다.

꺽 26 그대의 신을 경배함으로써 그대를 돕고,

그 분이 은총을 내리시면 겸허하게 우리 뉘만을 받겠습니다. ㉠

그렇게 말한 다음 그들은 구석자리를 차지하고 앉은 다음
조용하고 얌전하게 앉아있었습니다.

But in the darkness of night

**I find they break into my sacred shrine, strong and turbulent,
and snatch with unholy greed the offerings from God's altar.**

하지만 밤이 오자 나는 그들이 맹렬하고 난폭하게

나의 성스러운 사원의 문을 부수고 들어와

내가 신의 제단에 올린 제물들을 게걸스럽게 강탈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34

**Let only that little be left of me
whereby I may name thee my all.**

당신을 저의 전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저라는 존재는 아주 조금만 남게 하소서

**Let only that little be left of my will
whereby I may feel thee on every side,
and come to thee in everything,
and offer to thee my love every moment.**

모든 곳에서 제가 당신을 느낄 수 있도록

약간의 제 의지는 남겨 주소서.

제가 모든 일을 당신께 맡기게 하시고

매 순간 제 사랑을 당신께 바칠 수 있게 하소서.

**Let only that little be left of me
whereby I may never hide thee.**

그리고 저에게는 제가 절대로 당신을 가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주 작은 부분만을 제 뉘으로 남겨주소서.

**Let only that little of my fetters be left
whereby I am bound with thy will,
and thy purpose is carried out in my life--and that is the fetter of thy love.**

제가 당신의 의지를 받들 수 있도록

제 족쇄를 아주 작은 부분만이 남게 해주소서.

당신께서 제게 부여한
당신의 목적이 제 생명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것이 바로 당신의 사랑의 족쇄입니다.

35

Where the mind is without fear and the head is held high;
마음에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고 눈은 높은 곳을 향할 수 있는 곳

Where knowledge is free;
자유로운 이해가 있는 곳

Where the world has not been broken up into fragments
by narrow domestic walls;
좁은 국경의 장벽으로 세상이 조각조각 나누어지지 않은 곳

Where words come out from the depth of truth;
진리의 깊은 곳에서 말씀이 나오는 곳

Where tireless striving stretches its arms towards perfection;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이 완성을 향해 그 팔을 벌리는 곳

Where the clear stream of reason has not lost its way
into the dreary desert sand of dead habit;
이성의 맑은 물줄기가 사문화(死文化)된 관습이란 메마른 황야에서
길을 잃지 않는 곳

Where the mind is led forward by thee
into ever-widening thought and action--
그곳은 마음이 님의 손에 이끌려
늘 열린 생각과 행동으로 나아가는 곳

Into that heaven of freedom, my Father, let my country awake.
저의 주님
그런 자유의 천국 안에서 제 조국이 깨어나게 하소서.

36

This is my prayer to thee, my lord

--strike, strike at the root of penury in my heart.

저의 주님이시여, 이것이 제가 당신께 드리는 기도이오니
제 마음 속 빈곤의 뿌리를 내리치고 또 내려쳐 주소서.

Give me the strength

lightly to bear my joys and sorrows.

기쁨과 슬픔을 가볍게 참고 견뎌낼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Give me the strength

to make my love fruitful in service.

섬김으로써 제 사랑이 결실을 맺게 하는 용기를 주소서

Give me the strength

never to disown the poor or bend my knees before insolent might.

결코 가난을 거부하지 않고

오만한 권력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용기를 주소서

Give me the strength

to raise my mind high above daily trifles.

제 마음이 일상의 사소한 일들을 넘어

높은 곳을 향해 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And give me the strength

to surrender my strength to thy will with love.

그리고 제가 사랑으로

당신의 의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37

I thought that my voyage had come to its end

at the last limit of my power,--that the path before me was closed,

that provisions were exhausted and the time come

to take shelter in a silent obscurity.

저는 제 능력이 마지막 한계에 도달해

제 여행이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가는 곳마다 제 앞길이 막혔고,

준비한 양식은 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밀하고 조용한 곳에 은신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But I find that thy will knows no end in me.
And when old words die out on the tongue,
new melodies break forth from the heart;
and where the old tracks are lost,
new country is revealed with its wonders.

하지만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의지는 이미
제 속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낡은 언어들 이 입에서 사라지자
새로운 선율이 가슴으로부터 솟구쳐 나옵니다.
그리고 옛 자취들이 사라진 곳에
새로운 나라가 경이로움과 함께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38

That I want thee, only thee--let my heart repeat without end.
All desires that distract me,
day and night, are false and empty to the core.

저는 당신을 원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제 마음이 이 말을 끝없이 반복하게 하옵소서.
밤낮으로 저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쏠리게 하는 모든 욕망들은
핵심에서 벗어난 헛되고 공허한 것들일 뿐입니다.

As the night keeps hidden in its gloom the petition for light,
even thus in the depth of my unconsciousness rings the cry
--'I want thee, only thee'.

그것은 마치 그 자신의 어둠 속에
빛의 기도를 감추고 있는 밤과 같아서,
비록 무의식의 심연 속에서 울리는 외침일지라도
결국은 이런 외침인 것입니다.
꺾駭 30 당신을 원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As the storm still seeks its end in peace
when it strikes against peace with all its might,

even thus my rebellion strikes against thy love
and still its cry is --'I want thee, only thee'.

그것은 마치 폭풍이 자신이 가진 모든 강력한 힘을 다해
고요를 깨트릴 때도,

여전히 폭풍은 고요함이란 종착역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듯이
비록 제가 반란을 일으켜 당신의 사랑에 저항하고 있다하더라도
결국은 여전히 이런 외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꺾駭 31 당신을 원합니다, 오직 당신만을.31

39

When the heart is hard and parched up,
come upon me with a shower of mercy.

제 마음이 힘들고 메마를 때면 자비의 비를 내려주소서.

When grace is lost from life, come with a burst of song.

삶에서 은총이 사라졌을 때면 노래 다발과 함께 오소서.

When tumultuous work raises its din
on all sides shutting me out from beyond,
come to me, my lord of silence, with thy peace and rest.

저 너머로부터 소란스러운 일이 생겨
각자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제가 갈 모든 길을 가로막으면
저의 주님이신 침묵의 주님이시여,
당신의 평화와 안식과 함께 제게 왕림하소서.

When my beggarly heart sits crouched, shut up in a corner,
break open the door, my king, and come with the ceremony of a king.

거지와 같은 제 마음이 구석에 갇혀 웅크리고 앉거든,
제가 모시는 임금님이시여, 문을 부숴 쫓히고 왕의 예로 왕림하소서.

When desire blinds the mind with delusion and dust,
O thou holy one, thou wakeful, come with thy light and thy thunder.

욕망이 망상과 티끌로 마음의 눈을 가리면,
오 거룩하신 분이시여, 항상 깨어있는 당신이시여,
당신의 빛과 당신의 우레와 함께 왕림하소서.

40

The rain has held back for days and days,
my God, in my arid heart.

The horizon is fiercely naked--not the thinnest cover of a soft cloud,
not the vaguest hint of a distant cool shower.

오 저의 하느님이시여,
메마른 제 가슴속에 비가 내리지 않은지 여러 날입니다.
지평선은 완전히 헐벗었고
성기고 연한 구름 조각 하나도 없으며
서늘한 소나기는 내릴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Send thy angry storm, dark with death, if it is thy wish,
and with lashes of lightning startle the sky from end to end.

만일 이것이 당신이 원하시는 바라면,
죽음처럼 캄캄한 당신의 성난 폭풍우를 주시고,
번개의 채찍을 하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휘둘러
온 천지를 놀라게 하옵소서.

But call back, my lord, call back this pervading silent heat,
still and keen and cruel, burning the heart with dire despair.

그러나 저의 주님이시여 불러들여 주소서.
아직은 살을 에는 듯하고 잔혹하며,
비참한 절망으로 가슴을 태우는,
온 천지를 가득 채운 이 고요한 열기를 불러들여 주소서.

Let the cloud of grace bend low from above
like the tearful look of the mother on the day of the father's wrath.

아버지께서 노하신 날 눈물어리는 어머니의 모습처럼
위로부터 아래로 은총의 구름이 굽어살피게 하옵소서.

41

Where dost thou stand behind them all,
my lover, hiding thyself in the shadows?
They push thee and pass thee by on the dusty road,
taking thee for naught.

I wait here weary hours spreading my offerings for thee,
while passers-by come and take my flowers,
one by one, and my basket is nearly empty.

내 사랑하는 님이시여, 그대는
당신 자신을 그림자 속에 숨긴 채
모든 사람들의 뒤 어딘가에 서 계신가요?
사람들은 님을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고
먼지 쌓인 길 위를 님을 밀치며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저는 님께 드릴 선물을 펼쳐놓은 채
여기서 님을 기다리며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지나가던 사람들이 와서는
당신께 드릴 내 꽃들을 하나 둘 씩 가져가 버려
이제 저의 바구니는 거의 비고 말았습니다.

The morning time is past, and the noon.
In the shade of evening my eyes are drowsy with sleep.
Men going home glance at me and smile and fill me with shame.
I sit like a beggar maid, drawing my skirt over my face,
and when they ask me, what it is I want,
I drop my eyes and answer them not.
아침 시간도 한낮도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어스름을 맞아 나른한 제 눈에는 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사람들이 저를 흘끗 바라보고는 웃습니다.
그러자 저는 너무나 부끄러워
거지 소녀처럼 앉아 치마를 끌어올려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냐고 물으면
나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Oh, how, indeed, could I tell them that for thee I wait,
and that thou hast promised to come.
How could I utter for shame that I keep for my dowry this poverty.
Ah, I hug this pride in the secret of my heart.
오, 어떻게 그들에게 당신을 위해
제가 기다리고 있다고 진정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께서 오시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것을.
부끄러워 제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가난이 당신의 신부(新婦)인 저의 지참금이라고.
오, 저는 가난이라는 이 긍지를
제 가슴 속 비밀로 꼭 껴안고 있을 뿐입니다.

I sit on the grass and gaze upon the sky
and dream of the sudden splendour of thy coming
--all the lights ablaze, golden pennons flying over thy car,
and they at the roadside standing agape,
when they see thee come down from thy seat to raise me from the dust,
and set at thy side this ragged beggar girl a-tremble with shame and pride,
like a creeper in a summer breeze.

저는 풀밭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꿈을 꾸니다.
갑자기 님께서 타는 듯한 무수한 빛과 함께
당신의 수레 위에 황금빛 깃발들을 나부끼며 찬란하게 나타나시더니
당신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여름산들바람에 흔들리는 덩굴식물처럼
부끄러움과 긍지로 떨고 있는 이 남루한 거지 소녀를
흙먼지로부터 들어 올려 당신의 보좌 옆에 앉히니
길가에 서 있던 사람들은 놀라서 입을 벌린 채
멍하니 바라만 보는 그런 꿈 말입니다.

But time glides on and still no sound of the wheels of thy chariot.
Many a procession passes
by with noise and shouts and glamour of glory.
Is it only thou who wouldst stand in the shadow silent
and behind them all?
And only I who would wait and weep
and wear out my heart in vain longing?

하지만 세월이 물같이 흘러도
아직 당신의 수레바퀴 소리는 전혀 들리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행렬이 명성을 뿜내며 거창하고 소란스럽게 지나갑니다.
그런데도 어찌하여 오직 당신만은 모든 사람들의 뒤에 숨어
그림자 속에 홀로 고요히 서 있으시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오직 저만을 헛된 그리움 속에서 애간장을 태우며
울며 기다리게 하시나이까?

Early in the day it was whispered that we should sail in a boat,
only thou and I, and never a soul in the world
would know of this our pilgrimage to no country and to no end.

아침 일찍 우리는 작은 배를 타고
여행을 떠나야만 한다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직 그대와 나 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영혼도
끝없고 정처 없는 우리의 순례 여행을 알지 못합니다.

In that shoreless ocean,
at thy silently listening smile my songs would swell in melodies,
free as waves, free from all bondage of words.

하지만 그 끝없는 대양 속에
그대가 조용히 미소지으며 내 노래에 귀를 기울인다면
내 노래들은 모든 말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워져
물결처럼 자유롭게 선을 속에 널리 울려 퍼질 것이랍니다.

Is the time not come yet? Are there works still to do?
Lo, the evening has come down upon the shore
and in the fading light the seabirds come flying to their nests.

그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나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남았나요?
보세요, 어느덧 해변에는 저녁이 와서 어둠이 내리고
그 스러지는 빛 속에 바닷새들은 자신의 둥지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Who knows when the chains will be off, and the boat,
like the last glimmer of sunset, vanish into the night?

그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저무는 석양의 마지막 한 줄기 가물대는 빛처럼
이 작은 배가 사슬에서 풀려
언제 밤 속으로 사라지게 될지를?

43

The day was when I did not keep myself in readiness for thee;
and entering my heart unbidden
even as one of the common crowd, unknown to me,
my king, thou didst press the signet of eternity
upon many a fleeting moment of my life.

지금까지의 날들은

당신께서 불현듯 제 가슴속으로 들어오셨기에

미처 제가 당신을 위한 준비를 마쳐놓지 못한 날들이었습니다.

저의 왕이시여, 심지어 당신께서는

제가 알지도 못하는 평범한 무리들 중의 한 사람처럼 오셔서

나는 듯이 지나가는 제 삶의 수많은 순간들 위에

영원의 각인(刻印)을 새겨 놓기도 하셨습니다.

And today when by chance I light upon them and see thy signature,

I find they have lain scattered in the dust

mixed with the memory of joys and sorrows of my trivial days forgotten.

그리고 오늘 저는 그것들과 우연히 마주쳐 당신의 서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들이 제가 이미 잊어버린 하찮은 슬픔의 날들과

행복한 추억들과 함께 뒤섞인 채 먼지 속에 흩어져 나뒹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Thou didst not turn in contempt from my childish play among dust,

and the steps that I heard in my playroom are the same

that are echoing from star to star.

그러나 당신께서는 그 먼지투성이의 저의 유치한 유희를 보시고도

태도를 바꾸시어 저를 경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제가 저의 놀이 방에서 들은 당신의 발자국 소리는

이 별에서 저 별로 울려 퍼지는 메아리와 똑 같았습니다.

44

This is my delight, thus to wait

and watch at the wayside where shadow chases light

and the rain comes in the wake of the summer.

길가에 서서 그림자가 빛을 뒤쫓고

여름이 깨어나는 속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Messengers, with tidings from unknown skies,

greet me and speed along the road.

My heart is glad within,

and the breath of the passing breeze is sweet.

알 수 없는 하늘로부터 조수(潮水)처럼 전령사들이 밀려와서

제게 소식을 전하고는 서둘러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러면 저의 마음은 안으로 기쁨이 넘치고
스쳐 지나가는 산들바람의 숨결은 향기롭습니다.

From dawn till dusk I sit here before my door,
and I know that of a sudden the happy moment
will arrive when I shall see.

동이 트는 새벽부터 어둠이 내리는 황혼까지
저는 여기 제 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득 행복한 그 순간이 오면 제가 그것을 보게 되리라는 것을.

In the meanwhile I smile and I sing all alone.
In the meanwhile the air is filling with the perfume of promise.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저는 미소지으며 홀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는 동안 대기(大氣)는 약속의 향기로 가득하고요.

45

Have you not heard his silent steps?
He comes, comes, ever comes.

당신은 그분의 조용한 발자국 소리를 듣지 못하셨는지요?
그 분이 오고 계십니다. 오시고 계십니다.
항상 오고 계십니다.

Every moment and every age,
every day and every night he comes,
comes, ever comes.

모든 순간, 모든 시대
매일 낮 매일 밤을 그분은 오시고 계십니다.
오고 계십니다. 예나 다름없이 늘 오고 계십니다.

Many a song have I sung in many a mood of mind,
but all their notes have always proclaimed,
'He comes, comes, ever comes.'

나는 분위기에 따라 내 마음가는 대로 수많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래의 가사는 늘

꽤 38 분이 오고 계십니다. 항상 그 분이 오고 계십니다.38
라고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In the fragrant days of sunny April
through the forest path
he comes, comes, ever comes.

해맑은 4 월의 향기로운 날이면
그 분은 숲길을 따라 오십니다.
그 분이 오십니다. 예나 다름없이.

In the rainy gloom of July nights
on the thundering chariot of clouds
he comes, comes, ever comes.

비를 머금은 먹구름으로 어두워진 7 월의 밤에도
천둥치는 구름들의 전차를 타고 그 분은 오십니다.
오고 계십니다. 언제나 오고 계십니다.

In sorrow after sorrow
it is his steps that press upon my heart,
and it is the golden touch of his feet
that makes my joy to shine.

슬픔에 슬픔이 이어질 때
내 가슴을 짓누르는 것은 그 분의 발자국 소리,
그리고 나의 기쁨을 환하게 밝혀주는 것은
그 분의 걸음마다에서 느껴지는 황금빛 감촉.

46

I know not from what distant time
thou art ever coming nearer to meet me.
Thy sun and stars can never keep thee hidden from me for aye.

저는 모른답니다.

당신께서 얼마나 머나 먼 옛적부터
저를 만나기 위해 늘 더 가까이 다가오고 계셨는지를.
(하지만 제가 아는 것은) 님의 해와 별들도
결코 저로부터 영원히 당신을 숨겨 둘 수는 없다는 것이랍니다.

In many a morning and eve thy footsteps have been heard
and thy messenger has come
within my heart and called me in secret.

수많은 아침과 저녁
저는 당신의 발자국 소리를 들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전령사는 제 마음 속에 들어와
저를 은밀히 불러왔습니다.

I know not only why today my life is all astir,
and a feeling of tremulous joy is passing through my heart.

저는 오늘 제 삶 전체가 왜 이렇게 두근거리는지,
그리고 즐거운 떨림의 느낌이 제 마음을 스치는지 전혀 모릅니다.

It is as if the time were come to wind up my work,
and I feel in the air a faint smell of thy sweet presence.

이런 느낌은
마치 저의 일을 모두 마무리지을 때가 온 것 같은 기분이어서
저는 대기 속에서 달콤한 당신의 존재의 향기를
어렴풋이 느끼고 있습니다.

47

The night is nearly spent waiting for him in vain.
I fear lest in the morning
he suddenly come to my door
when I have fallen asleep wearied out.
Oh friends, leave the way open to him--forbid him not.

헛되이 당신을 기다리다가
저는 밤을 거의 다 지새우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아침에 지쳐서 곤히 잠들었을 때
당신께서 갑자기 저의 문에 오실까 하여 걱정스럽습니다.
오 벗들이여, 그 분이 오실 길을 비워두어,
그 분을 막지 말기를.

If the sounds of his steps does not wake me,

do not try to rouse me, I pray.
I wish not to be called from my sleep
by the clamorous choir of birds,
by the riot of wind at the festival of morning light.
Let me sleep undisturbed
even if my lord comes of a sudden to my door.

혹시 제가 그분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깨어나지 못하더라도
간청하오니, 저를 깨워 일으키려 하지 마소서.
저는 소란스러운 새들의 합창이나
아침 햇살의 향연에 춤을 추는 바람소리에 이끌려
잠을 깨는 것은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하오니 비록 저의 문 앞에 갑자기 오시더라도
제가 평온히 그대로 자도록 내버려두소서.

Ah, my sleep, precious sleep,
which only waits for his touch to vanish.
Ah, my closed eyes that would open
their lids only to the light of his smile
when he stands before me
like a dream emerging from darkness of sleep.

오, 잠이여,
오직 그분의 보이지 않는 손길만을 기다리고 있는,
소중한 내 잠이여.
오, 내 감겨진 눈은
잠의 어둠으로부터 솟아오르는 꿈처럼 그 분이 내 앞에 서 계실 때,
오직 그분의 미소의 빛에 의해서만
번쩍 눈뜨게 할 수 있사오니.

Let him appear before my sight
as the first of all lights and all forms.
The first thrill of joy to my awakened soul
let it come from his glance.
And let my return to myself be immediate return to him.
모든 빛들이나 형상들의 처음처럼
당신께서 제 앞에 모습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깨어난 제 영혼을 향한 첫 기쁨의 감동이

님의 눈길로부터 비롯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참다운 제 자신으로 돌아감이
그대로 당신에게로 돌아감이 되게 하옵소서.

48

The morning sea of silence broke into ripples of bird songs;
and the flowers were all merry by the roadside;
and the wealth of gold was scattered through the rift of the clouds
while we busily went on our way and paid no heed.

고요한 아침 바다는 새들의 노래가 일으키는 파문에 일렁거렸고,
길가의 꽃들이 모두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황금빛 햇살이 구름의 갈라진 틈을 통해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쁘게 길을 가는 데만 정신이 팔려
그 풍성함에 그 어떤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습시다.

We sang no glad songs nor played;
we went not to the village for barter;
we spoke not a word nor smiled;
we lingered not on the way.
We quickened our pace more and more as the time sped by.

우리는 그 어떤 즐거운 노래도 부르지 않았고
즐거운 놀이도 하지 않았으며,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 마을로 가지도 않았습시다.
우리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고 미소짓지도 않았으며
길을 가는 도중에 한눈을 팔지도 않았습시다.
다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빨리
우리의 발걸음을 더욱더 재촉했을 뿐입니다.

The sun rose to the mid sky and doves cooed in the shade.
Withered leaves danced and whirled in the hot air of noon.
The shepherd boy drowsed and dreamed in the shadow of the banyan tree,
and I laid myself down by the water and stretched my tired limbs on the grass.
해가 중천에 떠오르면 비둘기들은 그늘에서 울었고,
시든 잎들은 춤을 추며 한낮의 뜨거운 대기 속으로 빙빙 돌며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양치는 소년이 보리수나무 그늘 밑에서 꾸벅꾸벅 졸며 꿈을 꾸면,
나는 물가에 있는 풀밭에 내 피로해진 다리를 쭉 뻗고 누웠습시다.

My companions laughed at me in scorn;
they held their heads high and hurried on;
they never looked back nor rested;
they vanished in the distant blue haze.
They crossed many meadows and hills,
and passed through strange, far-away countries.
All honour to you, heroic host of the interminable path!

내 동료들은 그런 나를 비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뒤돌아보지도 쉬지도 않고, 고개를 높이 들고 서두르며,
저 멀리 푸른 안개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초원과 언덕을 넘고 낮은 곳을 지나
아주 머나먼 나라로 갔습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길의 영웅적인 주인인 그대들에게
영광이 있기를!

Mockery and reproach pricked me to rise, but found no response in me.
I gave myself up for lost in the depth of a glad humiliation
--in the shadow of a dim delight.

이제 그 어떤 조롱과 비난으로 나를 찔러 일으켜 세우려한다 해도
내게서는 아무런 응답도 찾지 못하리라.
나는 기꺼이 희미한 기쁨의 그림자인
기쁨 치욕의 심연 속으로 내 자신을 던져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을 선택했기에.

The repose of the sun-embroidered green gloom
slowly spread over my heart.
I forgot for what I had travelled,
and I surrendered my mind
without struggle to the maze of shadows and songs.

태양을 수놓은 풀빛 어스름의 평화로움이
천천히 내 가슴에 번져오고 있습니다.
나는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여행을 해왔는지를.
그리고 망설임 없이 어둠과 노래들의 미로에
내 마음을 내맡겨 버렸습니다.

At last, when I woke from my slumber and opened my eyes,
I saw thee standing by me, flooding my sleep with thy smile.
How I had feared that the path was long and wearisome,
and the struggle to reach thee was hard!

마침내, 나는 보았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잠으로부터 깨어나 눈을 떴을 때,

미소지으며 내 잠을 가득 채우신,

님께서 내 곁에 서 계시는 것을.

아, 그동안 난 얼마나 이 길이 멀고도 지루해 하고

두려워해 왔던가요?

님께서 이르고자 하는 이 싸움을 힘들어하며!

49

You came down from your throne and stood at my cottage door.

I was singing all alone in a corner, and the melody caught your ear.

You came down and stood at my cottage door.

님께서는 당신의 옥좌에서 내려오셔서 제 오두막집 앞에 서 계십니다.

전 구석에서 늘 혼자서 노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선율이 당신의 귀에까지 울려

님께서는 옥좌에서 내려오셔서 제 오두막 앞에 서 계십니다.

Masters are many in your hall, and songs are sung there at all hours.

But the simple carol of this novice struck at your love.

One plaintive little strain mingled with the great music of the world,

and with a flower for a prize you came down and stopped at my cottage door.

당신의 현관에는 늘 수많은 지혜로운 자들로 넘치기에,

그곳에는 언제나 노래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풋내기의 소박한 찬송가가 당신의 사랑에 닿아,

보잘것없고 가련한 저의 한 가닥 선율이 세상의 위대한 음악과 섞이자,

님께서는 상으로 줄 한 송이 꽃을 들고 내려와,

제 사립문 앞에 멈추셨습니다.

50

I had gone a-begging from door to door in the village path,

when thy golden chariot appeared in the distance like a gorgeous dream

and I wondered who was this King of all kings!

님의 황금 마차가 마치 장엄한 꿈처럼 저 멀리서 어렴풋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저는 누가 왕들 중의 진정한 왕인지 잘 몰랐고,
마을에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구걸을 하며 다니던 중이었습니다.

My hopes rose high and me thought my evil days were at an end,
and I stood waiting for alms to be given unasked
and for wealth scattered on all sides in the dust.

(그러다가 님의 황금마차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는)

저는 큰 희망에 부풀어 마침내 저의 불운한 날들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청하지 않아도 님께서 자비를 베풀어주실 것이고
부가 흙먼지 속에 온 사방으로 쏟아져 내리리라 생각하며
마냥 기다리고만 서있었습니다.

The chariot stopped where I stood.

Thy glance fell on me and thou camest down with a smile.

I felt that the luck of my life had come at last.

Then of a sudden thou didst hold out thy right hand and say

'What hast thou to give to me?'

마침내 제가 서있는 곳에 님의 마차가 와서 멈추어 섰습니다.

님께서는 눈길이 제게 닿자

미소를 지으시며 수레에서 내려 다가오셨습니다.

저는 마침내 제 삶에 행운의 순간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순간

님께서는 당신의 오른 손을 내밀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罽榴遊 44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Ah, what a kingly jest was it to open thy palm to a beggar to beg!

I was confused and stood undecided, and then from my wallet

I slowly took out the least little grain of corn and gave it to thee.

아,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님께서 거지에게 손을 벌려 구걸을 청하시다니!

이 무슨 왕답지 않은 농담이시란 말입니까?

저는 너무나 혼란스러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다가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서 제 자루에서 밀알 약간을 꺼내

그것도 아주 조금만 당신께 드렸습니다.

But how great my surprise
when at the day's end I emptied my bag on the floor
to find a least little gram of gold among the poor heap.
I bitterly wept and wished that I had
had the heart to give thee my all.

하지만 날이 저물어 집에 돌아온 제가
저의 텅빈 자루를 마루바닥에 풀어놓자
제 초라한 배낭에서 나온 물건 더미들 속에서
(제가 님께 드렸던 그 만큼)
아주 작은 황금 알갱이가 들어있는 것을 보았을 때
전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저는 비통하게 울었습니다.
제가 만일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님께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뒤늦게 후회하면서.

51

The night darkened. Our day's works had been done.
We thought that the last guest had arrived for the night
and the doors in the village were all shut.
Only some said the king was to come.
We laughed and said 'No, it cannot be!'
밤이 깊었고, 우리의 하루 일과도 모두 끝났습니다.
우리는 저녁에 오실 마지막 손님도 이미 도착했고
마을의 모든 문들도 모두 닫혔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왕께서 오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에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靑澗 45 리가 있나.,

It seemed there were knocks at the door
and we said it was nothing but the wind.
We put out the lamps and lay down to sleep.
Only some said, 'It is the messenger!'
We laughed and said 'No, it must be the wind!'
어디선가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자,
우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靑柳 45 스치는 바람소리 일 뿐이야.,

그리고는 호롱불을 끄고 잠을 자려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靑藍 46 전령이 왔다.,
그러나 우리는 웃으며 그 말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靑靑 46, 바람소리 일 뿐이라니까.,

There came a sound in the dead of the night.
We sleepily thought it was the distant thunder.
The earth shook, the walls rocked, and it troubled us in our sleep.
Only some said it was the sound of wheels.
We said in a drowsy murmur,
'No, it must be the rumbling of clouds!'

그런데 칠혹같이 어두운 밤 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우리는 잠에 취해 그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소리 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곧이어 땅이 진동하고 벽들이 흔들리면서 우리의 잠을 방해했습니다.
그러자 누군가가 이 소리는 마차바퀴소리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우리는 꾸벅꾸벅 졸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靑靑 46, 저 소리는 틀림없이 먹구름이 내는 천둥소리야.,

The night was still dark when the drum sounded.
The voice came 'Wake up! delay not!'
We pressed our hands on our hearts and shuddered with fear.
Some said, 'Lo, there is the king's flag!'
We stood up on our feet and cried 'There is no time for delay!'
북소리가 울렸을 때도 밝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靑靑爭 46! 지체하지 말고!,
그 말에 우리는 두려움에 떨며
놀란 가슴을 진정하느라 손으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靑靑 46, 저기 왕의 깃발이다!,
그때서야 우리는 맨발로 벌떡 일어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靑稚선 46 시간이 없구나!,

The king has come--but where are lights, where are wreaths?
Where is the throne to seat him? Oh, shame! Oh utter shame!
Where is the hall, the decorations?
Someone has said, 'Vain is this cry! Greet him with empty hands,
lead him into thy rooms all bare!'

왕께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등불은 어디에 있고, 꽃다발은 어디에 있습니까?

왕께서 앉으실 자리는 어디에 마련되어 있습니까?

아, 부끄러워라. 아, 너무나도 부끄러워라.

왕을 모실 방은 어디에 있으며, 장식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諫訣 47 울어도 소용없다! 그러니 너희는 빈손으로 너희의 왕을 영접하라.

아무것도 없는 그대들의 텅 빈 방으로 그분을 모셔라!†

Open the doors, let the conch-shells be sounded!

in the depth of the night has come the king of our dark, dreary house.

The thunder roars in the sky.

The darkness shudders with lightning.

Bring out thy tattered piece of mat and spread it in the courtyard.

With the storm has come of a sudden our king of the fearful night.

문들을 열어라! 소라나팔 소리를 울려라!

밤의 심연 속에서 우리의 어둡고 황량한 집의 왕께서 오셨노라.

하늘에서는 천둥이 으르렁거리고, 어둠은 번개에 몸을 떨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다 떨어진 녁마 조각이라도 꺼내와서 뜰에 자리를 펴라.

폭풍과 함께 우리의 두려운 밤의 왕께서 불시에 오셨노라.

52

I thought I should ask of thee

--but I dared not-- the rose wreath thou hadst on thy neck.

Thus I waited for the morning, when thou didst depart,

to find a few fragments on the bed.

And like a beggar I searched in the dawn only for a stray petal or two.

저는 님께서 목에 걸고 계시는

장미 화환을 제게 달라고 청해 볼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그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이 되어 님께서 떠나시고 나면

혹시 자리에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찾을 수 있을까하여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동이 트자 거지처럼 헤맨 끝에

겨우 흩어져있던 꽃잎 몇 장을 찾아서 주웠습니다.

Ah me, what is it I find? What token left of thy love?
It is no flower, no spices, no vase of perfumed water.
It is thy mighty sword, flashing as a flame, heavy as a bolt of thunder.
The young light of morning comes through the window
and spreads itself upon thy bed.
The morning bird twitters and asks,
'Woman, what hast thou got?'
No, it is no flower, nor spices, nor vase of perfumed water
--it is thy dreadful sword.

오, 제가 찾은 이것이 무엇입니까?
제게 남겨진 님의 사랑의 증표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 어떤 꽃도 향료도 향수를 담은 병도 아닌,
느닷없는 천둥처럼 육중하고 불꽃처럼 번쩍이는 님의 강한 검이 아닙니까.
싱그러운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흘러들어
님께서 누우셨던 침대 위에 자신의 나래를 펼치고,
아침 새들은 지저귀며 묻습니다.
꿘(ㄴ)括結 48, 그대는 뭔가를 얻었나요?,
아니오, 제가 얻은 것은 그 어떤 꽃도 향료도 향수를 담은 병도 아닌,
다만 님의 두려운 검인걸요.

I sit and muse in wonder, what gift is this of thine.
I can find no place to hide it.
I am ashamed to wear it, frail as I am,
and it hurts me when I press it to my bosom.
Yet shall I bear in my heart
this honour of the burden of pain, this gift of thine.
저는 제게 이런 선물을 주신 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앉아서 명상에 잠겼습니다.
저는님께서 주신 이 칼을 감출 곳을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저는 님이 주신 칼을 차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이 칼은 제가 제 가슴을 향하게 하여 누르면
절 다치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이 고통스러운 짐의 영광을, 제 가슴에 품은 채 살아갈 것입니다.

From now there shall be no fear left for me in this world,

and thou shalt be victorious in all my strife.
Thou hast left death for my companion and I shall crown him with my life.
Thy sword is with me to cut asunder my bonds,
and there shall be no fear left for me in the world.

이제부터 제게는 저를 위해 이 세상에 남겨진 그 어떤 두려움도 없겠지요.
그리고 님께서는 저의 모든 투쟁 속에서 승리를 거두시게 되겠지요.
님께서 저를 위해 저의 동반자로 죽음을 남겨주셨으니
저는 제 목숨을 바쳐 저의 동반자인 죽음을 왕위에 앉힐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모든 속박을 토막 낼 님의 칼을 지니고 있으니
저에겐 저를 위해 남겨진 이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도 없겠지요.

From now I leave off all petty decorations.
Lord of my heart,
no more shall there be for me waiting and weeping in corners,
no more coyness and sweetness of demeanour.
Thou hast given me thy sword for adornment.

No more doll's decorations for me!
전 이제부터 온갖 하찮은 꾸밈과 작별할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제 마음의 주님이시여,
이제 더 이상 제가 기다리거나 모퉁이에서 울도록 예비하지 마옵소서.
더 이상 절 수줍게도 행동을 꾸미게 하지도 마옵소서
님께서 절 꾸미기 위해 당신의 칼을 제게 주셨으니
저에겐 이제 더 이상 인형장식들은 필요하지 않나이다.

53

Beautiful is thy wristlet, decked with stars
and cunningly wrought in myriad-coloured jewels.
But more beautiful to me thy sword with its curve of lightning
like the outspread wings of the divine bird of Vishnu,
perfectly poised in the angry red light of the sunset.

별들과 무수한 색색의 보석들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님의 팔찌는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제게 더욱 더 아름다운 것은
분노한 붉은 황혼 빛 속에서
마치 신성한 비슈누 신(神)의 새가 날개를 펼친 듯
완벽하게 균형을 이룬

우아한 번갯불의 곡선을 가진 당신의 검(劍)입니다.

It quivers like the one last response of life
in ecstasy of pain at the final stroke of death;
it shines like the pure flame of being
burning up earthly sense with one fierce flash.

그런 당신의 검은
마치 최후의 일격을 당한 생명이
죽어가며 마지막 고통의 황홀경 속에서
전율하고 있는 것처럼 부르르 떨고있습니다.
그리고 그 검은 마치 무시무시한 섬광으로
순식간에 모든 지상의 감각들을 태워버리는
순수한 존재의 불꽃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Beautiful is thy wristlet, decked with starry gems;
but thy sword, O lord of thunder, is wrought with uttermost beauty,
terrible to behold or think of.

무수히 반짝이는 별들로 꾸며진 님의 팔찌는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천둥의 주님이시여,
바라보기도 두렵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조차 두려운,
지극한 아름다움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당신의 검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54

I asked nothing from thee; I uttered not my name to thine ear.
When thou took'st thy leave I stood silent.
I was alone by the well where the shadow of the tree fell aslant,
and the women had gone home
with their brown earthen pitchers full to the brim.
They called me and shouted,
'Come with us, the morning is wearing on to noon.'
But I languidly lingered awhile lost in the midst of vague musings.
저는 님으로부터 아무 것도 얻어내려고 하지 않았습시다.
심지어는 저의 이름조차 님의 귀 앞에 끄집어내지 않았습시다
단지 님께서 작별을 고하실 때면 조용히 서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비스듬히 나무 그늘이 지는 우물가에 혼자 있었습시다.

그리고 여인들은 황토로 만든 토기항아리에 넘치도록 물을 채워
이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인들은 큰소리로 내게 이렇게 청했습니다.

짱痢?51 함께 가요. 이미 아침나절이 지나고 한낮이 다되었으니..

하지만 저는 막연한 생각들에 잠긴 채

힘없이 한동안 머뭇거리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I heard not thy steps as thou camest.

Thine eyes were sad when they fell on me;

thy voice was tired as thou spokest low--

'Ah, I am a thirsty traveller.'

I started up from my day-dreams and

poured water from my jar on thy joined palms.

The leaves rustled overhead; the cuckoo sang from the unseen dark,

and perfume of 靛 abla51 flowers came from the bend of the road.

님께서 오셨을 때 전 님의 그 발자국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눈길이 머문 당신의 눈은 슬펐습니다.

그리곤 피곤한 목소리로 이렇게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짱 51, 나는 목마른 나그네로다..

그 음성에 깜짝 놀라 낮잠에서 깨어난 저는

저의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당신께서 내미신 양손에 부었습니다.

그 순간 저의 머리 위에서는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고

빠꾸기는 보이지 않는 숲 속 그늘에서 노래했으며

은은한 바블라 꽃향기가 굽이진 길로부터 흘러왔습니다.

I stood speechless with shame when my name thou didst ask.

Indeed, what had I done for thee to keep me in remembrance?

But the memory that I could give water to thee

to allay thy thirst will cling to my heart and enfold it in sweetness.

The morning hour is late, the bird sings in weary notes,

꽃 eem51 leaves rustle overhead and I sit and think and think.

님께서 제 이름을 물었을 때

저는 부끄러움에 대답을 못하고 서있었습니다.

진정, 제가 당신을 위해 그 어떠한 일도 한 적이 있었던가요?

당신께서 절 기억하실 만한 일을 말입니다.

다만 당신의 갈증을 조금이라도 가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하여

당신께 물을 드렸던 기억만이 남아
향기로움 속에서 제 마음을 휘감아 에워싸고 있을 뿐인걸요.
아침나절이 훌쩍 지나버린 이 시간, 새들은 지친 음률로 노래하고
머리 위에서는 鬮? 나무 잎사귀들이 바스락거립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대로 앉아서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55

Languor is upon your heart and the slumber is still on your eyes.

그대의 마음에는 권태가 서려있고,
그대의 눈에는 아직도 졸음이 여전하답니다.

Has not the word come to you
that the flower is reigning in splendour among thorns?
Wake, oh awaken! let not the time pass in vain!

그대에게는 저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나요?
가시나무들 사이에
꽃들이 피어 온통 찬란하게 자리잡았다는 소식 말입니다.
일어나세요, 오 제발 깨어나세요!
이렇게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At the end of the stony path,
in the country of virgin solitude,
my friend is sitting all alone. Deceive him not.

Wake, oh awaken!
때묻지 않은 쓸쓸한 고장, 돌투성이의 길 끝에,
우리의 친구인 님은 늘 (우리를 기다리며) 홀로 앉아 있습니다.
님을 실망시키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오 제발 깨어나세요!

What if the sky pants and trembles
with the heat of the midday sun
--what if the burning sand spreads its mantle of thirst--
한낮의 태양열로 저 하늘이 숨차하며 부르르 떠들 어찌하며
열기로 달구어진 모래가 자신의 갈증의 외투를 펼쳐 놓은들 어떤가요.

Is there no joy in the deep of your heart?

At every footfall of yours,
will not the harp of the road break out in sweet music of pain?

그대 마음 깊은 곳에
아주 작은 기쁨하나라도 아직 남아있어 (님에게로 간다면),
그대가 내딛는 발걸음 소리 하나 하나는
감미로운 고통의 음악을 뚫고 울려 퍼지는 길의 선율이 될 것을.

56

Thus it is that thy joy in me is so full.
Thus it is that thou hast come down to me.

O thou lord of all heavens,
where would be thy love if I were not?

당신의 기쁨이
이토록 온통 제 마음에 가득 차게 하시고,
이렇게 제게로 내려 오셨으니
오, 모든 하늘의 주인이신 님이시여,
만일 제가 없었더라면
님은 이 사랑을 그 어디에 펼치시렵니까?

Thou hast taken me as thy partner of all this wealth.

In my heart is the endless play of thy delight.

In my life thy will is ever taking shape.

님께서는 당신께서 가지신 이 모든 행복의 동반자로 저를 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제 마음은 당신의 끝없는 기쁨의 놀이터가 되고
제 삶은 당신의 의지가 끊임없이 모습을 갖추는 마당이 되게 하셨습니다.

And for this, thou who art the King of kings
hast decked thyself in beauty to captivate my heart.

And for this thy love loses itself in the love of thy lover,
and there art thou seen in the perfect union of two.

그렇게 하심은 왕 중의 왕이신 당신께서는
사로잡은 제 마음을 통해 당신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심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심은 당신께서는 당신의 연인의 사랑 속에서는
당신의 사랑 그 자체를 감추시려 함이며,
당신과 연인의 완전한 결합 속에서 당신을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57

Light, my light, the world-filling light,
the eye-kissing light, heart-sweetening light!
빛이여, 나의 빛이여, 온 누리를 채우고 있는 빛이여,
눈으로 입맞춤하는 빛이여, 마음을 향기롭게 하는 빛이여!

Ah, the light dances, my darling, at the centre of my life;
the light strikes, my darling, the chords of my love;
the sky opens, the wind runs wild, laughter passes over the earth.
오, 빛이 춤추네, 내 사랑, 빛이 내 삶의 중심에서 춤추네.
빛이 심금을 울리네, 내 사랑, 빛이 사랑의 현을 울리네.
하늘이 열리고, 세차게 바람이 불고, 웃음이 대지를 스치네.

The butterflies spread their sails on the sea of light.
Lilies and jasmines surge up on the crest of the waves of light.
나비들이 빛의 바다 위로 자신들의 항해를 펼치며 나아가네.
백합과 자스민이 빛 물결 물마루 위를 일렁이며 굽이치고 있네.

The light is shattered into gold on every cloud,
my darling, and it scatters gems in profusion.
빛이 온갖 구름 위로 황금빛으로 흩어지며
아낌없이 수많은 보석들을 흩어놓네. 오 내 사랑이여.

Mirth spreads from leaf to leaf, my darling,
and gladness without measure.
The heaven's river has drowned its banks
and the flood of joy is abroad.
환희에 찬 웃음소리가 이 앞에서 저 앞으로 퍼져나가니
즐거움은 한이 없어라. 오 내 사랑이여.
하늘의 강물이 그 자신의 제방을 넘어와
기쁨의 홍수로 온 세상을 적시네.

58

Let all the strains of joy mingle in my last song
--the joy that makes the earth
flow over in the riotous excess of the grass,

the joy that sets the twin brothers,
life and death, dancing over the wide world,
the joy that sweeps in with the tempest,
shaking and waking all life with laughter,
the joy that sits still with its tears on the open red lotus of pain,
and the joy that throws everything it has upon the dust, and knows not a word.

저의 마지막 노래 속에 온갖 기쁨의 선율들이 뒤섞이게 하소서.
떠들썩함으로 흘러 넘치는 초원으로
대지를 풍요로움으로 충만케 하는 그런 기쁨,
삶과 죽음이라는 쌍둥이 형제가 온 누리에 춤추게 하는 그런 기쁨,
온 생명을 웃음으로 흔들고 깨우는 폭풍 속으로 함께 쓸려드는 기쁨,
활짝 핀 고통의 붉은 연꽃 위에
그 눈물과 더불어 고요히 앉아 있는 그런 기쁨,
그리고 더러움 위에 자리잡은 것들을 모두 던져버리고도
한마디 말도 알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
저의 마지막 노래의 선율 속에 뒤섞이게 하소서.

59

Yes, I know, this is nothing but thy love,
O beloved of my heart--
this golden light that dances upon the leaves,
these idle clouds sailing across the sky,
this passing breeze leaving its coolness upon my forehead.

오 내 마음의 사랑,
온갖 잎새들 위에서 춤추는 황금빛이여,
하늘을 가로질러 느릿느릿 흘러가는 게으른 저 구름들이여,
내 이마에 자신의 서늘함을 남기고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여,
그렇습니다, 저는 압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름 아닌 당신의 사랑이라는 것을.

The morning light has flooded my eyes
--this is thy message to my heart.

Thy face is bent from above,
thy eyes look down on my eyes,
and my heart has touched thy feet.

제 눈을 가득 채우는 아침 햇살은

제 마음에 보내는 당신의 편지입니다.
당신께서는 저 하늘에서 고개를 굽히시어,
당신의 눈으로 저의 눈을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제 마음은 당신의 발을 어루만집니다.

60

On the seashore of endless worlds children meet.
The infinite sky is motionless overhead
and the restless water is boisterous.

On the seashore of endless worlds
the children meet with shouts and dances.

무한한 세계의 바닷가 해변에서 아이들이 만났습니다.
머리 위로는 헤아릴 수 없는 하늘이 고요히 멈추어 있고
조금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파도는 쉽 없이 거칠게 몰아칩니다.
무한한 세계의 바닷가 해변에서
아이들이 만나서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They build their houses with sand
and they play with empty shells.
With withered leaves they weave their boats
and smilingly float them on the vast deep.
Children have their play on the seashore of worlds.

어린이들은 모래로 자신들의 집을 짓기도 하고,
빈 조개껍질을 가지고 장난을 치며 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른 나뭇잎으로 배를 만들어
방긋 웃으며 막막한 심해로 띄워 보내기도 합니다.
어린이들이 수많은 세상의 바닷가 해변에서
그들 자신만의 놀이를 하며 놀고 있습니다.

They know not how to swim, they know not how to cast nets.
Pearl fishers dive for pearls, merchants sail in their ships,
while children gather pebbles and scatter them again.
they seek not for hidden treasures, they know not how to cast nets.

아이들은 어떻게 헤엄쳐야 하는지도
어떻게 그물을 던져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이 조약돌을 모았다가 그것을 다시 흩어버리는 동안

진주조개를 잡는 사람은 물 속으로 뛰어들어 잠수하고
상인들은 자신들의 배를 타고 항해를 떠납니다.
아이들은 숨겨진 보물들을 찾을 줄도 모르고
어떻게 그물을 던져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The sea surges up with laughter
and pale gleams the smile of the sea beach.
Death-dealing waves sing meaningless ballads to the children,
even like a mother while rocking her baby's cradle.

The sea plays with children,
and pale gleams the smile of the sea beach.

바다는 웃으며 물결치고,
바닷가 해변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집니다.
죽음을 다루는 물결은
아기의 요람을 흔들면서 아기가 알지도 못하는 노래를
부르는 엄마처럼 의미가 담기지 않은 노래를 부릅니다.
바다가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습니다.
그런 바닷가 해변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집니다.

On the seashore of endless worlds children meet.
Tempest roams in the pathless sky,
ships get wrecked in the trackless water,
death is abroad and children play.

On the seashore of endless worlds is the great meeting of children.

무한한 세계의 바닷가 해변에 아이들이 서로 만났습니다.
폭풍이 길 없는 하늘을 가로지르며 배회하자,
배들은 자취 없는 바다 속으로 부서져 사라지고,
죽음이 사방으로 퍼져 나가지만 아이들은 놀고 있습니다.
무한한 세계들의 바닷가 해변은 아이들의 큰 모임 마당입니다.

61

The sleep that flits on baby's eyes
--does anybody know from where it comes?
Yes, there is a rumour that it has its dwelling there,
in the fairy village among shadows of the forest
dimly lit with glow-worms,

there hang two timid buds of enchantment.

From there it comes to kiss baby's eyes.

아가의 눈에 날개를 펼럭이며 어른거리는 잠,
그 잠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는 사람이 있나요?
그래요. 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아가의 잠은 반딧불 희미하게 깜박이는
숲 그늘 사이에 있는 요정 마을에,
자신의 보금자리를 두고 있는데,
그곳에 소심한 마법의 꽃봉오리 두 개가 매달려 있다가
아가의 눈에 입맞춤하러 온다는 소문이지요.

The smile that flickers on baby's lips when he sleeps

--does anybody know where it was born?

Yes, there is a rumour

that a young pale beam of a crescent moon
touched the edge of a vanishing autumn cloud,
and there the smile was first born
in the dream of a dew-washed morning
--the smile that flickers on baby's lips
when he sleeps.

잠든 아가의 입술에 하늘하늘 감도는 미소,
그 미소가 어디서 탄생했는지 아는 사람이 있나요?
그래요. 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초승달의 창백한 어린 빛줄기가
스러져 가는 가을 구름의 가장자리를 닿으면,
거기, 이슬에 씻긴 아침의 꿈속에서
잠든 아가의 입술에 하늘하늘 감도는 미소
그 미소가 처음 태어난다고 해요.

The sweet, soft freshness that blooms on baby's limbs

--does anybody know where it was hidden so long?

Yes, when the mother was a young girl

it lay pervading her heart in tender and silent mystery of love
--the sweet, soft freshness that has bloomed on baby's limbs.

아가의 버둥거리는 팔다리에서 피어나는 곱고 보드라운 살 냄새,
그것이 그토록 오랫동안 어디에 숨겨져 있었는지 아는 사람이 있나요?

그래요, 그 싱그러운 살 냄새는 엄마가 젊은 처녀였을 때
부드럽고 고요한 사랑의 신비로 그녀의 가슴속에 스며있던 것이랍니다.
아기의 버둥거리는 팔다리에서 피어나는 그 곱고 보드라운 살 냄새는
그곳에 숨어 있다가 나온 것이랍니다.

62

When I bring to you coloured toys, my child,
I understand why there is such a play of colours on clouds, on water,
and why flowers are painted in tints
--when I give coloured toys to you, my child.

아가야, 난 깨달았단다.

색색의 장난감을 너에게 가져다주면서
구름들 위에, 물 위에 왜 그런 색색의 향연이 펼쳐지는지를,
그리고 왜 꽃들은 색깔로 물들여져 있는지를.
색색의 장난감을 너에게 가져다주면서.

When I sing to make you dance
I truly now why there is music in leaves,
and why waves send their chorus of voices
to the heart of the listening earth
--when I sing to make you dance.

너를 춤추게 하려고 노래를 부르면서
그 순간 난 마음으로 느꼈단다.
왜 나뭇잎들 속에 노래들이 담겨있는지
그리고 왜 물결들은 자신들의 합창을
귀기울이는 대지의 심장으로 보내는지를.
너를 춤추게 하려고 노래를 부르면서.

When I bring sweet things to your greedy hands
I know why there is honey in the cup of the flowers
and why fruits are secretly filled with sweet juice
--when I bring sweet things to your greedy hands.

욕심을 부리는 너의 손에
달콤한 것들을 쥐어주면서 난 알았단다.
왜 꽃들의 입술 속에는 꿀들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왜 과일들이 그토록 향기로운 과즙으로
은밀히 채워져 있는지를.
욕심을 부리는 너의 손에 달콤한 것들을 쥐어주면서.

When I kiss your face to make you smile, my darling,
I surely understand what pleasure streams
from the sky in morning light, and what delight that is
that is which the summer breeze brings to my body
--when I kiss you to make you smile.

널 방긋 웃게 하려고 너의 얼굴에 뽀뽀를 하면서
아가야, 난 진정으로 깨달았단다.
하늘에서 아침 빛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내 몸을 실어가던 여름날 실바람의 환희가 무엇인지를.
널 방긋 웃게 하려고 너에게 뽀뽀를 하면서.

나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 열매맺지 못한 이 생명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새벽에 시드는 꽃, 메마른 사막의 시냇물도 결코 스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어리석음으로써 이 세상에서 뒤 처지는 것일지라도
결코 스러져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나의 꿈도,
아직 울리지 않은 나의 가락도 그대의 거문고 줄에 걸려있으며,
결코 스러져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 라빈드라나드 타고르

63

Thou hast made me known to friends whom I knew not.
Thou hast given me seats in homes not my own.
Thou hast brought the distant near and made a brother of the stranger.
넘께서는 제가 알지 못하던 친구들을 알게 하시었고
제 집이 아닌 집들에 제 자리를 마련해 놓으셨으며
먼 것들을 가깝게 만드시고 낯선 이들이 제 형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I am uneasy at heart when I have to leave my accustomed shelter;
I forget that there abides the old in the new,
and that there also thou abidest.

정든 오두막을 떠나야했을 때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새 것 속에는 낡은 것이 살고 있고
님 또한 거기에 머무르신다는 것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Through birth and death, in this world or in others,
wherever thou leadest me it is thou,
the same, the one companion of my endless life
who ever linkest my heart with bonds of joy to the unfamiliar.

탄생과 죽음을 통해, 이 세상이나 다른 세상 그 어디로,
절 이끄시더라도 그것은 님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항상 기쁨의 인연으로 제 가슴을 생소한 이와 맺어주시는
제 삶의 끝없는 동반자 역시 님일 것입니다.

When one knows thee, then alien there is none,
then no door is shut.
Oh, grant me my prayer that I may never lose the bliss
of the touch of the one in the play of many.

누군가가 님을 알게 되면
그로부터 그에게는 그 누구도 이방인이 되는 법이 없고,
그 어떤 문도 닫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부디 제게 기도를 허락하시어
제가 잡다한 일에 빠져
그분의 축복의 손길을 결코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게 하여 주소서.

64

On the slope of the desolate river among tall grasses I asked her,
'Maiden, where do you go shading your lamp with your mantle?
My house is all dark and lonesome--lend me your light!'
she raised her dark eyes for a moment
and looked at my face through the dusk.
'I have come to the river,' she said,
'to float my lamp on the stream when the daylight wanes in the west.'

I stood alone among tall grasses

and watched the timid flame of her lamp uselessly drifting in the tide.

풀들이 무성하고 비스듬히 경사진, 황량한 강기슭에서 저는 물었습니다.

젊든±62, 그대는 외투로 등불을 가리고 어디로 가시고 계시나요?

제 집이 너무도 어둡고 쓸쓸하니 당신의 등불을 제게 빌려주시면 안될까요!☹

그러자 그녀는 어스름 속에서 얼굴을 들고 까만 눈동자로

제 얼굴을 잠시 바라보더니 매정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젊 62 해가 서쪽으로 기울면 제 등불을 강물 위에 띄우기 위해 강에 왔답니다.,

그래서 전 풀숲에 홀로 서서 부질없이 강물에 흔들리며 떠가는,

희미해져 가는 그 아가씨의 등불을 바라만 보고 서있었습니다.

In the silence of gathering night I asked her,

'Maiden, your lights are all lit -- then where do you go with your lamp?

My house is all dark and lonesome -- lend me your light.'

She raised her dark eyes on my face and stood for a moment doubtful.

'I have come,' she said at last, 'to dedicate my lamp to the sky.'

I stood and watched her light uselessly burning in the void.

밀려드는 밤의 침묵 속에서 나는 그녀에게 청했습니다.

젊든±62, 당신의 등불은 모두 켜졌는데 그런데 어디로 가신다는 말입니까?,

제 집이 너무도 어둡고 쓸쓸하니 당신의 등불을 제게 빌려주시면 안될까요!☹

그러자 그녀는 얼굴을 들고 까만 눈동자로 다시 제 얼굴을 바라보더니

의아해하며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서 마침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젊 62 제 등불을 하늘에 바치기 위해 왔답니다.,

그래서 전 헛되이 허공 속으로 불타며 사라지는 그녀의 등불을

바라만 보고 서있었습니다.

In the moonless gloom of midnight I ask her,

'Maiden, what is your quest, holding the lamp near your heart?

My house is all dark and lonesome--lend me your light.'

She stopped for a minute and thought and gazed at my face in the dark.

'I have brought my light,' she said, 'to join the carnival of lamps.'

I stood and watched her little lamp uselessly lost among lights.

깊은 밤 달빛마저 없는 어둠 속에서 나는 그녀에게 청했습니다.

젊든±62 그토록 가까이 가슴에 등불을 품고 기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제 집이 너무도 어둡고 쓸쓸하니 당신의 등불을 제게 빌려주시면 안될까요!☹

그러자 그녀는 잠시 멈추어 서서 생각한 후

어둠 속에서 내 얼굴을 지그시 응시하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꺾 63 등불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제 등불을 가져왔어요.

(그러니 당신께 빌려줄 수 없어요.)63

그래서 나는 헛되이 불빛들 속에서 스러져가는 그녀의 작은 등불을 바라만 보고 있어야 했답니다.

65

What divine drink wouldst thou have, my God,
from this overflowing cup of my life?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는 이토록 흘러 넘치는 제 삶의 잔으로
그 어떤 신성한 음료를 마시려고 하시나이까?

My poet, is it thy delight
to see thy creation through my eyes
and to stand at the portals of my ears silently
to listen to thine own eternal harmony?

저의 시인이시여,
제 눈을 통해 당신의 창조물들을 보시는 그것이,
제 귓전에 조용히 서시어 당신 자신의 영원한 화음을 듣는 그것이,
당신의 기쁨인가요?

Thy world is weaving words in my mind
and thy joy is adding music to them.
Thou givest thyself to me in love
and then feelest thine own entire sweetness in me.

님의 세계가 제 마음 속에서 단어들로 베를 짜고
님의 기쁨이 그 단어들 위에 선율을 더하고 있나이다.
당신께서는 사랑으로 당신 자신을 제게 드러내시고
그리하여 저를 통해 당신 자신의 온전한 아름다움을
스스로 느끼고 계시나이다.

66

She who ever had remained in the depth of my being,
in the twilight of gleams and of glimpses;
she who never opened her veils in the morning light,
will be my last gift to thee, my God, folded in my final song.

오, 저의 하느님.

어슴푸레한 황혼 속에, 잠깐 스쳐가던 황혼 속에,
내 존재의 깊은 곳 속에 언제나 남겨진 채로 있던 그녀가,
아침 햇살에 단 한번도 베일을 벗은 적이 없던 그녀가,
제가 저의 마지막 노래 속에 접어 넣어서,
당신께 드리는 저의 마지막 선물이 될 것입니다.

Words have wooed yet failed to win her;
persuasion has stretched to her its eager arms in vain.

말로는 사랑을 구했지만,
하지만 전 아직도 그녀의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녀를 향해 권유의 손을 내 뻗었지만
그런 저의 열정의 손짓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I have roamed from country to country
keeping her in the core of my heart,
and around her have risen and fallen
the growth and decay of my life.

저는 제 가슴 깊은 곳에 그녀를 간직한 채
이 나라 저 나라를 정처 없이 배회하였으며,
그녀를 에워싸고서 제 삶의 모든 흥망성쇠가 일어났습니다.

Over my thoughts and actions, my slumbers and dreams,
she reigned yet dwelled alone and apart.

그리고 그녀는 아직도 홀로 따로 떨어져
저의 생각과 행동들 위에, 저의 선잠과 꿈들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Many a man knocked at my door
and asked for her and turned away in despair.

많은 남자들이 제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좌절하여 발길을 돌렸습니다.

There was none in the world who ever saw her face to face,
and she remained in her loneliness waiting for thy recognition.

이 세상에서 얼굴을 맞대고

그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당신께서 자신을 인식해 줄 날만 기다리며
그녀 자신의 외로움 속에 남아 있습니다.

67

Thou art the sky and thou art the nest as well.

O thou beautiful,

there in the nest is thy love that encloses the soul
with colours and sounds and odours.

당신께서는 하늘이시며 또한 보금자리이시기도 합니다.

오 아름다운 님이시여, 그 곳 보금자리 속에 있는 것은
색과 소리와 향기로 영혼을 감싸는 당신의 사랑입니다.

There comes the morning with the golden basket
in her right hand bearing the wreath of beauty,
silently to crown the earth.

아침이 조용히 대지에 왕관을 씌우며,
그녀의 오른 손에 아름다움의 화관을 가득 담은
황금바구니를 들고서 오고 있습니다.

And there comes the evening
over the lonely meadows deserted by herds,
through trackless paths,
carrying cool draughts of peace in her golden pitcher
from the western ocean of rest.

그리고 서쪽 안식의 바다로부터 저녁이
그녀의 황금 주전자 속에 멋진 평화의 밑그림을 담고서
자취 없는 길을 따라
무리들로부터 버림받은 외로운 소 떼들이 있는
풍경 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But there, where spreads the infinite sky for the soul
to take her flight in, reigns the stainless white radiance.

There is no day nor night,
nor form nor colour, and never, never a word.

그러나 그녀를 싣고 날아갈,

영혼을 위한 무한한 창공이 펼쳐져 있는 그곳은,
때묻지 않은 눈부시게 밝은 새하얀 빛이 다스리는 곳.
밤도 낮도 없고, 형상도 색도 없으며
그 어떠한 말도 없는 곳. 그 어떠한 말도.

68

Thy sunbeam comes upon this earth of mine
with arms outstretched and stands at my door
the livelong day to carry back to thy feet
clouds made of my tears and sighs and songs.

당신의 햇살은 두 팔을 활짝 벌리고서
제가 살고있는 제 것인 이 대지 위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가는 동안 내내 저의 집 문간에 서서
내 눈물과 노래와 한숨들로 만들어진 구름들을,
당신의 발 쪽으로 도로 가져갑니다.

With fond delight thou wrappest
about thy starry breast that mantle of misty cloud,
turning it into numberless shapes and folds
and colouring it
with hues ever-changing.

당신께서는 은하수의 장막인 무수한 별이 반짝이는
당신의 가슴 주위를 씹는 기쁨으로 감싸 안으시며,
그것을 헤아릴 수 없는 모양들과 층으로 변화시키고
그리고 늘 변화하는 색으로 그것들을 물들입니다.

It is so light and so fleeting, tender and tearful and dark,
that is why thou lovest it, O thou spotless and serene.
And that is why it may cover thy awful white light
with its pathetic shadows.

오 티 없이 맑으신 님이시여,
그것은 너무나도 보잘 것 없고 덧없는 것이기에,
눈물 어린 연약한 어둠을 지녔기에,
그런 까닭에 당신께서는 그것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님의 사랑이 그것들 자신의 애처로운 그림자를
님의 눈부신 흰 빛으로 덮을 수 있는 까닭입니다.

69

The same stream of life
that runs through my veins night and day
runs through the world
and dances in rhythmic measures.

밤낮으로 제 혈관사이를 달리는 것과 똑같은
생명의 물줄기가 세상 속에서도 흐르고 있고,
장단에 맞추어 규칙적인 순환을 하며 춤을 추고 있습니다.

It is the same life
that shoots in joy through the dust of the earth
in numberless blades of grass
and breaks into tumultuous waves of leaves and flowers.

그것은 이삭이 나기 전에는
헤아릴 수 없는 풀잎들 속에 숨어 있다가,
소란스러운 잎새와 꽃들의 물결로 번져나가는,
어느 날 대지의 흙먼지를 뚫고 나와
기쁨을 발산하는 것들과 같은 생명입니다

It is the same life
that is rocked in the ocean-cradle of birth and of death,
in ebb and in flow.

그것은 밀물과 썰물 속에서, 죽음과 삶의 바다의 요람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들과 같은 생명입니다.

I feel my limbs are made glorious
by the touch of this world of life.
And my pride is from the life-throb of ages
dancing in my blood this moment.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세계와의 접촉에 의해 만들어진
내 사지(四肢)가 너무나 멋지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무수한 세대들로 이루어진 생명의 고동이
내 피 속에서 춤추고 있는 것이

나의 긍지입니다.

70

Is it beyond thee to be glad with the gladness of this rhythm?
to be tossed and lost and broken in the whirl of this fearful joy?

이 선율의 즐거움과 더불어 기뻐하는 것이
님에게는 벅찬가요?
이 두려운 기쁨의 바퀴 속에 던져져
버려지고 부서지는 것이 님에게는 벅찬가요?

All things rush on, they stop not, they look not behind,
no power can hold them back, they rush on.

모든 것들이 앞으로만 내달립니다.
그들은 멈출 줄도, 뒤를 돌아볼 줄도 모릅니다.
그 어떤 힘으로도 그들을 잡아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Keeping steps with that restless, rapid music,
seasons come dancing and pass away
-- colours, tunes, and perfumes pour in endless cascades
in the abounding joy
that scatters and gives up and dies every moment.

계절들은 숨쉴 틈 없는 빠른 음악에 발을 맞추어
춤을 추면서 왔다가는
매순간 분해되고 버려지고 죽는, 넘치는 기쁨 속에서
끝없는 폭포들 속에 자신들의 빛깔도 선율도
그리고 향기마저도 쏟아 붓고는 사라져버립니다.

71

That I should make much of myself and turn it on all sides,
thus casting coloured shadows on thy radiance--such is thy - maya -.

자신 스스로의 것을 많이 만들어
그것을 온 사방(四方)에 내놓아야 한다는 것,
그리하여 그것들로 당신의 찬란한 광휘 위에
색색의 그림자들을 수놓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 - 瞿瞿 68(환상을 만들어 내는 힘)瞿都求 68.

Thou settest a barrier in thine own being
and then callest thy severed self in myriad notes.

This thy self-separation has taken body in me.

당신께서는 넘 자신의 것인,

당신의 존재 속에 장애물을 설치하시고는

그런 다음 무수한 가닥으로 나뉘어진 그 속에서 당신의 분신들을 부릅니다.

이런 넘의 자기 분열이 제 안에서 몸의 형태를 취했습니다.

The poignant song is echoed through all the sky
in many-coloured tears and smiles, alarms and hopes;
waves rise up and sink again, dreams break and form.

In me is thy own defeat of self.

가슴에 사무치는 그 노래가 각양각색의 눈물과 미소로,

놀람과 희망으로 온 하늘에 메아리쳐 울리면,

물결들은 차 올랐다가는 다시 가라앉고,

꿈들은 깨졌다가 다시 형태를 이루니.

제 속에 넘 자신 스스로에 대한 넘의 패배가 있는 것입니다.

This screen that thou hast raised is
painted with innumerable figures
with the brush of the night and the day.

Behind it thy seat is woven in wondrous mysteries of curves,
casting away all barren lines of straightness.

당신께서 막을 올려주신 이 연극무대에는

밤과 낮의 붓으로 그린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 뒤에 있는 당신의 자리는

불가사의한 곡선들의 신비로 직조(織造)되어 있기에,

열매맺지 못하는 끝은 선들을 모두 내던져지고 마는 것입니다.

The great pageant of thee and me has over-spread the sky.
With the tune of thee and me all the air is vibrant,
and all ages pass with the hiding and seeking of thee and me.

넌과 저의 거대한 가장행렬이 하늘을 온통 뒤덮고 있습니다.

넌과 저의 선율로 인해 온 대기가 진동하고 있고,

넌과 저는 숨바꼭질하다가 모든 세월을 다 보냅니다.

72

He it is, the innermost one,
who awakens my being with his deep hidden touches.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계시는 분
당신의 깊고 은밀한 손길로 내 존재를 깨우시는 분.
그 분이 여기 계십니다.

He it is who puts his enchantment upon these eyes
and joyfully plays on the chords of my heart
in varied cadence of pleasure and pain.

이 눈에 당신의 마술을 걸어
가지각색의 기쁨과 고통의 운율로
내 마음에 행복의 심금을 울리시는 분,
그 분이 여기 계십니다.

He it is who weaves the web of this
- maya - in evanescent hues of gold and silver, blue and green,
and lets peep out through the folds his feet,
at whose touch I forget myself.

무상(無常)한 금빛과 은빛 그리고 파랑과 초록으로
이 마야(幻像의 세계: 이 세상)의 거미줄을 짜시고,
겹겹으로 접힌 당신의 발 사이로 엿보게 하시며,
그 손길로 내 자신을 잊게 만드신, 그 분이 여기 계십니다.

Days come and ages pass,
and it is ever he who moves my heart
in many a name, in many a guise,
in many a rapture of joy and of sorrow.

새로운 날들은 오고 세대들은 지나갑니다.
하지만 당신께서는 수많은 이름과 수많은 모습으로
수 없는 기쁨과 슬픔의 법열(法悅)로 언제나 제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73

Deliverance is not for me in renunciation.
I feel the embrace of freedom in a thousand bonds of delight.

구원은 그것을 단념한 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 가지 기쁨의 속박 속에서도,
저는 이미 자유와 한 몸이 되었음을 느끼고 있기에.

**Thou ever pourest for me the fresh draught of thy wine
of various colours and fragrance,
filling this earthen vessel to the brim.**

님께서는 늘 저를 위해 다양한 색깔과 향기를 가진
신선한 당신의 술 한 모금을 제게 부어주시고
이 꽃恥瓚 71 향아리(몸)뿔 71 테두리까지 가득 채워주십니다.

**My world will light its hundred different lamps with thy flame
and place them before the altar of thy temple.**

그리하여 저의 세계는 당신의 불꽃과 어울려
또 다른 그 자신만의 수 없는 등불들이 되어 빛을 내게 될 것이며
그것들은님의 사원 제단 앞에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No, I will never shut the doors of my senses.
The delights of sight and hearing and touch will bear thy delight.**

아닙니다, 전 결코 제 감각의 문들을 닫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저의 보고 듣고 만지는 기쁨들 모두는
님의 기쁨을 전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Yes, all my illusions will burn into illumination of joy,
and all my desires ripen into fruits of love.**

그러합니다, 이제 저의 모든 환상들은
기쁨의 빛 속으로 들어가 모두 타서 사라질 것이며
그리고 저의 모든 갈망들은
사랑의 열매들 속으로 들어가 무르익게 될 것입니다.

74

**The day is no more, the shadow is upon the earth.
It is time that I go to the stream to fill my pitcher.**

날은 저물고 대지 위에는 어둠이 내립니다.
지금은 제가 시냇가로 가서 물을 길어 오기 시간입니다.

The evening air is eager with the sad music of the water.

Ah, it calls me out into the dusk.

In the lonely lane there is no passer-by,
the wind is up, the ripples are rampant in the river.

밤 공기는 물의 슬픈 곡조를 간절히 듣고자 합니다.

아, 그 음악이 어스름 속으로 저를 불러냅니다.

쓸쓸한 오솔길에는 지나다니는 사람 하나 없고,
바람이 일자, 강에는 잔물결들만 가득합니다.

I know not if I shall come back home.

I know not whom I shall chance to meet.

There at the fording in the little boat
the unknown man plays upon his lute.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다시 제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를.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제가 우연히 누구를 만나게 될지도.

얕은 여울에 떠 있는 작은 배 안에서

제가 알지 못하는 이가

자신의 箏瑟를 통기고 있습니다.

* 류트 : 만들어진 비슷한 모양에 줄이 6 ~ 13 개이고 줄감개 부분이 뒤로 꺾였으며, 손가락이나 피크로 통겨서 소리내는 악기.

75

Thy gifts to us mortals

fulfil all our needs and yet run back to thee undiminished.

덧없는 생명을 가진 우리에게 주시는 님의 선물들은

우리의 모든 바람을 채워줍니다.

그리고는 조금도 줄지 않고 님께로 다시 흘러갑니다.

The river has its everyday work to do

and hastens through fields and hamlets;

yet its incessant stream winds towards the washing of thy feet.

강물은 날마다 해야 할 그 자신만의 일이 있어

들판들과 작은 마을들 사이를 서둘러 지나갑니다.

그러면서도 그 부단한 물줄기는 님의 발을 씻고자
님을 향해 굽이칩니다.

The flower sweetens the air with its perfume;
yet its last service is to offer itself to thee.

비록 꽃이 자신의 향기로 대기를 향기롭게 했다하더라도
결국 꽃의 마지막 헌신이란 그 자신을 님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Thy worship does not impoverish the world.

님을 공경하는 일은 이 세상을 메마르게 하지 않습니다.

From the words of the poet men take what meanings please them;
yet their last meaning points to thee.

비록 시인들이 말에서 그들의 마음에 드는 의미들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지만 그들의 마지막 의미는 사람들이 님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76

Day after day, O lord of my life,
shall I stand before thee face to face.
With folded hands, O lord of all worlds,
shall I stand before thee face to face.

오, 생명의 주님이시여,
어떻게 하면 제가 날이면 날마다
님 앞에 얼굴을 마주하여 설 수 있을까요.
오, 모든 세상들의 주님이시여,
어떻게 하면 제가 손을 모은 채
님 앞에 얼굴을 마주하여 설 수 있을까요.

Under thy great sky in solitude and silence,
with humble heart
shall I stand before thee face to face.

어떻게 하면 제가
겸허한 마음으로 고독과 침묵 속에서
님의 거룩한 하늘 아래
님 앞에 얼굴을 마주하여 설 수 있을까요.

In this laborious world of thine,
tumultuous with toil and with struggle,
among hurrying crowds shall I stand before thee face to
face.

수고로움과 다툼으로 소란한
이토록 분주한 당신의 세상 속에
서두르는 무리들에 끼여 있는 제가
어떻게 하면 님 앞에 얼굴을 마주하여 설 수 있을까요.

And when my work shall be done in this world,
O King of kings,
alone and speechless shall I stand before thee face to face.

오, 왕 중의 왕이시여,
이 세상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을 모두 마치고 나면
홀로 말없이 제가 님 앞에 얼굴을 마주하여 설 수 있을까요.

77

I know thee as my God and stand apart
--I do not know thee as my own and come closer.
I know thee as my father and bow before thy feet
--I do not grasp thy hand as my friend's.

저는 님을 저의 하느님으로 알기에
저만치 떨어져 섭니다.
저는 님이 저만의 하느님인지 알지 못하기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저는 님을 저의 아버지로 알기에
제 벗의 손을 잡듯 덤석 당신의 손을 잡지 못하고
님의 발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I stand not where thou comest down
and ownest thyself as mine,
there to clasp thee to my heart and take thee as my comrade.

저는 당신을 대대로 전해오시는 분처럼 대하지 않고,
님 자신을 마치 제 자신처럼 대하기에, 그런 마음으로
제 가슴으로 당신을 껴안으려 하고

님을 마치 제 동료처럼 대합니다.

Thou art the Brother amongst my brothers,

but I heed them not,

I divide not my earnings with them, thus sharing my all with thee.

님은 제 형제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형제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형제들 그 어느 누구에게도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왔습니다.

저는 제가 벌어들인 것들을 그들과 나누지도 않았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제 모든 것을 당신과 더불어 나누려 하고 있습니다.

In pleasure and in pain I stand not by the side of men,
and thus stand by thee.

I shrink to give up my life,

and thus do not plunge into the great waters of life.

즐거울 때도 괴로울 때도

저는 사람들 곁에 서지 않고 님 곁에 섭니다.

제 삶을 포기하는 것을 회피하기에

저는 거룩한 생명의 흐름 속으로 뛰어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78

When the creation was new

and all the stars shone in their first splendour,

the gods held their assembly in the sky

and sang 'Oh, the picture of perfection! the joy unalloyed!'

창조가 새로웠고

모든 별들이 자신들의 영예를 처음으로 빛냈을 때,

신들은 하늘에 자신들이 창조한 창조물들을 불러모아놓고

이렇게 노래했답니다.

궤 75, 순수한 기쁨이여, 완전한 영상이여.,

But one cried of a sudden

--'It seems that somewhere there is a break in the chain of light
and one of the stars has been lost.'

하지만 한 신이 갑자기 이렇게 외쳤으니

궤 75 사슬 중 어딘가가 끊겨, 별들 중 하나가 사라진 것 같아요.75

The golden string of their harp snapped,
their song stopped, and they cried in dismay
--'Yes, that lost star was the best,
she was the glory of all heavens!'

그 말에 신들의 황금으로 만들어진 하프의 현은
특하는 소리를 내며 끊겼고,
신들은 노래하는 것을 멈추고 낙담하여 이렇게 울부짖었지요.
궂 76 별은 온 하늘의 자랑이었는데,
별 들 중 가장 으뜸가는 그 별을 잃은 것 같아요.76

From that day the search is unceasing for her,
and the cry goes on from one to the other
that in her the world has lost its one joy!

그 날부터 그 별을 찾기 위한 노력은 끝일 새가 없었지요.
그 별로 인해 별들의 세상이 누렸던 그 하나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외침이 이 별에서 저 별들로 번져갔지요

Only in the deepest silence of night
the stars smile and whisper among themselves
--'Vain is this seeking! unbroken perfection is over all!'

다만 밤에 가장 깊은 침묵의 시간이 오면
별들은 서로서로 모여 그들끼리 미소지으며 이렇게 속삭였답니다.
궂 76 탐색은 소용없으리. 깨어지지 않은 완성은 도처에 늘려있으니!,

79

If it is not my portion to meet thee in this life
then let me ever feel that I have missed thy sight

--let me not forget for a moment,
let me carry the pangs of this sorrow
in my dreams and in my wakeful hours.

만일 이번 저의 삶 속에서 너를 만나는 것이 제 몫이 아니라면,
그러하다면 제가 너의 모습을 볼 기회를 이미 놓쳤다는 것을
제가 늘 느끼게 하소서.
깨어있을 때나 꿈들 속에서나
저로 하여금 그 마음의 고통을 늘 짊어지고 다니시게 하시어
한 순간도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소서.

As my days pass in the crowded market of this world
and my hands grow full with the daily profits,
let me ever feel that I have gained nothing
--let me not forget for a moment,
let me carry the pangs of this sorrow
in my dreams and in my wakeful hours.

이 세상 혼잡한 시장 속에서 제 삶의 날들은 지나가고
저의 양손은 나날의 이익으로 가득 채워져 갈 때,
제가 진정으로 얻은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저로 하여금 늘 느끼게 하소서.
깨어있을 때나 꿈들 속에서나
저로 하여금 그 마음의 고통을 늘 깊어지고 다니시게 하시어
한 순간도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소서.

When I sit by the roadside, tired and panting,
when I spread my bed low in the dust,
let me ever feel that the long journey is still before me
--let me not forget a moment,
let me carry the pangs of this sorrow
in my dreams and in my wakeful hours.

제가 지쳐 헐떡거리며 길가에 앉아 있을 때나
먼지를 둘러쓰고 침대에 몸을 누이고 있을 때나
저의 긴 여행길은 아직 제게 닥쳐오지도 않았다는 것을
제가 늘 느끼게 하소서.
깨어있을 때나 꿈들 속에서나
저로 하여금 그 마음의 고통을 늘 깊어지고 다니시게 하시어
한 순간도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소서.

When my rooms have been decked out
and the flutes sound and the laughter there is loud,
let me ever feel that I have not invited thee to my house
--let me not forget for a moment,
let me carry the pangs of this sorrow
in my dreams and in my wakeful hours.

제가 저의 방들을 온통 꾸며놓고

거기서 플룻을 연주하며 크게 웃고 떠들고 있을 때에도
제가님을 저의 집에 초청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저로 하여금 늘 느끼게 하소서.
깨어있을 때나 꿈들 속에서나
저로 하여금 그 마음의 고통을 늘 깊어지고 다니시게 하시어
한 순간도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소서.

80

I am like a remnant of a cloud of autumn uselessly roaming in the sky,
O my sun ever-glorious!

Thy touch has not yet melted my vapour,
making me one with thy light,
and thus I count months and years separated from thee.

저는 쓸데없이 하늘에서 이리저리 배회하며 다니는
가을의 조각구름과 같은 존재입니다.
오, 그 언제나 빛나는 나의 태양이시여!
넘겨서는 당신의 빛과 더불어 저를 하나가 되게 하시고자
님의 손길로 저의 허세를 아직 녹여버리지 않으셨나이다.
그리하여 저는 님으로부터 분리된 채
해와 달이 가는 것을 헤아리고 있나이다.

If this be thy wish and if this be thy play,
then take this fleeting emptiness of mine,
paint it with colours, gild it with gold,
float it on the wanton wind and spread it in varied wonders.

이것이 정녕 님의 바람이라면, 이것이 정녕 님의 유희라면,
저의 것인 이 덧없는 공허함을 취하시어
그것을 색색으로 칠하시고 그리고 금박으로 덧입히시어
저의 이 덧없는 공허함이 무정한 바람 위를 떠가게 하여주소서.
다채로운 경이로움들 속에 저의 이 덧없는 공허함을 펼치소서.

And again when it shall be thy wish to end this play at night,
I shall melt and vanish away in the dark,
or it may be in a smile of the white morning,
in a coolness of purity transparent.

그에 더하여 밤에 이 유희를 끝내는 것이 님의 바람이시라면

저는 기꺼이 어둠 속에서 녹아 사라지겠나이다.
그렇지 않으면 속이 비쳐 보이는 순수의 냉정함 속에서
눈부신 아침의 미소를 맞이하게 되겠지요 .

81

On many an idle day have I grieved over lost time.
But it is never lost, my lord.
Thou hast taken every moment of my life in thine own hands.
삶이 지루한 날이면
저는 잃어버린 시간에 대하여 수없이 슬퍼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의 주님,
그 시간들은 결코 제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당신께서는 제 삶의 모든 순간마다
당신 자신의 손을 내밀어 이끌어주셨던 것입니다.

Hidden in the heart of things
thou art nourishing seeds into sprouts,
buds into blossoms,
and ripening flowers into fruitfulness.
님께서는 사물들의 가슴속에 몸을 숨기신 채
씨앗을 품어 싹이 돋게 하시고,
발아하여 꽃 속으로 들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 꽃이 익어 열매맺게 하십니다.

I was tired and sleeping on my idle bed
and imagined all work had ceased.
In the morning I woke up
and found my garden full with wonders of flowers.
저는 지쳤습니다.
그래서 텅 빈 제 침대에 누워 모든 일은 끝났다고 생각하며
제가 하다가 그만 둔 모든 일들을 마음 속으로 그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깨어보니
제 정원은 눈부신 꽃들로 만발해 있었습니다.

82

Time is endless in thy hands, my lord.

There is none to count thy minutes.

저의 주님, 당신의 손 안에 있는 시간은 끝이 없습니다.
그 순간 순간을 헤아릴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Days and nights pass and ages bloom and fade like flowers.

Thou knowest how to wait.

낮과 밤이 지나고 세월이 꽃처럼 피었다가는 시들어갑니다.
님께서서는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 지를 알고 계십니다.

Thy centuries follow each other perfecting a small wild flower.

당신의 100 년들은 각각 다른 하나 하나의 작은 야생화들을
완성시키면서 그들을 따라 흘러갑니다.

We have no time to lose,

and having no time we must scramble for a chances.

We are too poor to be late.

하지만 우리에게 놓쳐야 할 시간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없기에 우리는 기회를 잡으려고 서둘러야만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가난하기에 지체할 수 없습니다.

And thus it is that time goes by while I give it

to every querulous man who claims it,

and thine altar is empty of all offerings to the last.

그런데도 저는 시간을 달라고 투정하는 하나 하나의 사람들에게
시간을 허비하여 그 소중한 시간들을 흘러보내 버렸고,
당신의 제단은 이 순간까지도 공양하나 없이 비어있습니다.

At the end of the day I hasten in fear lest thy gate to be shut;

but I find that yet there is time.

그래서 저는 날마다 하루가 저물어 가는 시간이면
당신의 문이 이미 닫혀버리지는 않았을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마음이 조급해졌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시간이 있음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83

Mother, I shall weave a chain of pearls for thy neck

with my tears of sorrow.

어머니 저는 슬픔의 눈물로
당신의 목에 걸어드릴 진주목걸이를 엮을 것입니다.

The stars have wrought their anklets of light to deck thy feet,
but mine will hang upon thy breast.

별들도 어머니 당신의 발을 장식하고자 그들만의 빛의 발찌를 만들었지만,
하지만 저의 목걸이는 당신의 가슴 위에 드리워질 것입니다.

Wealth and fame come from thee
and it is for thee to give or to withhold them.
But this my sorrow is absolutely mine own,
and when I bring it to thee as my offering
thou rewardest me with thy grace.

부와 명성은 당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에,
그것들을 주시든 보류하시든 그것은 당신께 달렸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 슬픔만은 온전히 제 자신의 것이기에,
제가 그것을 당신께 공물로 드리면
님께서는 당신의 은총으로 제게 답례를 하십니다.

84

It is the pang of separation
that spreads throughout the world
and gives birth to shapes innumerable in the infinite sky.

무한한 하늘 속에
삶을 부여하여 헤아릴 수 없는 형상으로 태어나게 하고
온 누리에 구석구석에 퍼져있게 하는 것,
그것은 분리의 고통입니다.

It is this sorrow of separation
that gazes in silence all nights from star to star
and becomes lyric among rustling leaves in rainy darkness of July.

비 내리는 칠 월의 밤
바스락거리는 잎새들 틈에서 우리 마음을 서정적 만들고,
이 별에서 저 별로 눈을 주어가며
밤새도록 침묵 속에서 별을 응시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 분리의 슬픔입니다.

It is this overspreading pain
that deepens into loves and desires,
into sufferings and joy in human homes;
and this it is that ever melts and flows in songs
through my poet's heart.

인간사를 고통과 즐거움 속으로,
사랑과 욕망들 속으로 깊이 빠져들게 하고,
그런 것들이 내 가슴속의 시인을 통해
노래 속으로 항상 녹아 흐르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온 세상에 널려있는 분리의 고통입니다.

85

When the warriors came out first from their master's hall,
where had they hid their power?

Where were their armour and their arms?

전사(人間)들이 처음으로 스승(神)의 품을 떠나 밖으로 나왔을 때,
전사들은 자신들의 힘을 어디에 숨겨두고 있었던 것일까요?
전사들은 자신의 갑옷과 무기들을 어디에 두었던 것일까요?

They looked poor and helpless,
and the arrows were showered upon them
on the day they came out from their master's hall.

그들은 초라하고 힘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머리위로는 화살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그들이 스승의 품을 떠난 바로 그 날에 말이지요.

When the warriors marched back again to their master's hall
where did they hide their power?

그런 전사들이 행진하여 다시 스승의 품으로 돌아간다면
그들의 그 힘은 어디에 숨겨져 있던 힘일까요?

They had dropped the sword
and dropped the bow and the arrow;
peace was on their foreheads,

and they had left the fruits of their life behind them
on the day they marched back again to their master's hall.

그 전사들은 검도 활도 화살도 모두 던져 버렸기에,
그들의 이마에는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진하여 다시 스승의 품으로 돌아가던 바로 그 날
그들은 자신들이 지나간 길에 그 자신의 생명의 열매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역자주)

이 장은 욕망을 버린 사람에 대한 찬양하는 구절로 여겨진다.

86

Death, thy servant, is at my door.

He has crossed the unknown sea and brought thy call to my home.

당신의 사자(使者)인 죽음이 제 문 앞에 와 서있습니다.

그는 미지의 바다를 건너 당신의 부르심을 제 집에 전하고자 왔습니다.

The night is dark and my heart is fearful

--yet I will take up the lamp,

open my gates and bow to him my welcome.

It is thy messenger who stands at my door.

밤은 어둡고 제 가슴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램프를 들고 저의 집 대문을 연 다음

환영의 뜻으로 그에게 머리를 숙여 인사할 것입니다.

I will worship him placing at his feet the treasure of my heart.

저는 제 가슴의 보물을 그의 발 아래에 놓고 그를 공경할 것입니다.

He will go back with his errand done,

leaving a dark shadow on my morning;

and in my desolate home only my forlorn self will remain

as my last offering to thee.

자신에게 주어진 심부름을 다 마치면

그는 저의 아침 위에 어두운 그림자를 남겨둔 채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저의 황량한 집에는

오직 당신에게 드리는 저의 마지막 공양인,

버림받은 저의 자아만이 남게 되겠지요.

87

In desperate hope I go and search for her
in all the corners of my room; I find her not.

절박한 희망에 매달리며

저는 그녀를 찾기 위해 나와서 제 방 구석구석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디에서도 그녀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My house is small

and what once has gone from it can never be regained.

저의 집은 협소합니다.

그래서 한번 떠나보내 버린 것들은 다시는 되찾을 수 없습니다.

But infinite is thy mansion, my lord,

and seeking her I have to come to thy door.

무한(無限)이 당신의 저택이신 저의 주님,

하지만 저는 그녀를 찾아 당신의 문 앞에까지 왔습니다.

I stand under the golden canopy of thine evening sky

and I lift my eager eyes to thy face.

저는 당신의 저녁 하늘 황금 단집[天蓋] 아래에 서서

저의 열망하는 눈으로 당신의 얼굴을 우러러 봅니다.

I have come to the brink of eternity

from which nothing can vanish

--no hope, no happiness, no vision of a face seen through tears.

저는 희망도 없고 행복도 없고

눈물 사이로 보이는 한 얼굴의 환상도 없는,

그곳으로부터는 그 무엇도 소멸되지 않는

영원의 언저리까지 왔나이다.

Oh, dip my emptied life into that ocean,

plunge it into the deepest fullness.

Let me for once feel that lost sweet touch

in the all-ness of the universe.

오, 공허했던 저의 삶을 저 바다 속에 담그시어
그것이 가장 깊은 충만함 속으로 빠져들게 하소서.
저로 하여금 우주의 완전성 속에서,
잃어버렸던 그리운 그 감촉을 한번만 더 느끼게 하소서.

88

Deity of the ruined temple!

The broken strings of Vina sing no more your praise.

The bells in the evening proclaim not your time of worship.

The air is still and silent about you.

이제는 황폐해져 버린 사원의 신성(神性)이여!

끊어진 비나(Vina: 인도의 4絃琴)의 현들은 더 이상 당신을 찬미하지 않고,

저녁의 종소리들도 당신을 예배할 시간이라고 알리지 않네.

당신 주변의 공기는 침묵과 고요함이네.

In your desolate dwelling comes the vagrant spring breeze.

It brings the tidings of flowers

--the flowers that for your worship are offered no more.

황폐해진 그대의 거처에 방랑하던 봄바람이 불어,

꽃들의 소식을 전해오지만,

하지만 그 꽃들은 더 이상 당신의 예배를 위해 바쳐지지 않네.

Your worshipper of old wanders ever longing for favour still refused.

In the eventide, when fires and shadows mingle with the gloom of dust,

he wearily comes back to the ruined temple with hunger in his heart.

늙은 방랑자들인 당신의 숭배자들은

예나 다름없이 은총을 구하지만 여전히 거절당하고 있기에.

그들은 불빛과 어스름이 덧없는 것들의 우울함과 뒤섞이는

저녁이 되면, 그의 마음 속 배고픔과 함께

지친 몸으로 황폐해진 사원으로 돌아온다네.

Many a festival day comes to you in silence,

deity of the ruined temple.

Many a night of worship goes away with lamp unlit.

수많은 축제의 날들이 침묵 속에서

이제는 황폐해져 버린 사원의 신성(神性)인 당신에게 오지만

수많은 예배의 날들은 등불을 켜보지도 못한 채 사라져 간다네.

Many new images are built by masters of cunning art
and carried to the holy stream of oblivion when their time is come.

무수한 새로운 이미지들이 정교한 예술 장인들에 의해 세워지지만
그들의 시간이 오면 성스러운 땅각의 물결 쪽으로 보내진다네.

Only the deity of the ruined temple remains
unworshipped in deathless neglect.

오직 황폐해져버린 사원의 신성(神性)만이
영원히 방치된 채 예배도 받지 못하며 남아 있을 뿐.

역자주)

88 장, 89 장은 죽어버린 몸의 덧없음에 대한 구절로 여겨진다.

89

No more noisy, loud words from me--such is my master's will.
Henceforth I deal in whispers.

The speech of my heart will be carried on in murmurings of a song.

나 이제 더 이상 시끄럽게 굴지 않으리. 큰 소리로 떠들지 않으리.

이것이 바로 나의 주님의 뜻이기에, 나 이제부터는 속삭이기만 하리.

내 가슴의 말은 노래의 읊조림 속으로 옮겨가게 되리.

Men hasten to the King's market.

All the buyers and sellers are there.

But I have my untimely leave in the middle of the day,
in the thick of work.

사람들은 왕이 펼쳐놓은 시장을 향해 서둘러 가고

사고 파는 사람들이 모두 그곳에 있지만,

나는 산처럼 쌓여있는 일을 팽개친 채

한낮에 때아닌 작별을 고하며 떠나왔다네.

Let then the flowers come out in my garden,
though it is not their time;

and let the midday bees strike up their lazy hum.

그런 다음 나는

비록 꽃 피울 때가 아니더라도
꽃들이 정원에 만발하게 놓아두고,
일에 한참이어야 할 벌들이
한가로운 그 자신들의 노래를 연주하게 놓아두었네.

Full many an hour have I spent
in the strife of the good and the evil,
but now it is the pleasure of my playmate
of the empty days to draw my heart on to him;
and I know not why is this sudden call to what useless inconsequence!
수많은 나날들을 나는 선과 악의 갈등으로 지내왔다네.
하지만 이제 내게 선악이란 즐거운 내 놀이 동무이며,
내 마음을 그 분에게로 이끄는 무위의 날들의 즐거운 동반자라네.
그리고 나는 내가 왜 이처럼 쓸데없는 엉뚱한 일에
갑작스런 호출을 받아 불려나오게 되었는지를 모른다네.

90

On the day when death will knock at thy door
what wilt thou offer to him?
죽음이 그대의 문을 두드리게 되는 날,
그대는 죽음의 사자에게 무엇을 내 놓을 수 있을 것인가?

Oh, I will set before my guest the full vessel of my life
--I will never let him go with empty hands.
오, 나는 내 손님 앞에 넘치는 내 삶의 잔을 내어놓으리.
나 결코 그가 빈손으로 가도록 놓아두지 않으리.

All the sweet vintage of all my autumn days and summer nights,
all the earnings and gleanings of my busy life will I place before him
at the close of my days when death will knock at my door.
나의 날들이 다하여 죽음이 내 문을 두드리면
나 죽음의 사자(使者) 앞에 차려 놓으리.
나의 모든 가을날들과 여름날들에 수확한 향기로운 포도들을,
부지런히 일한 내 삶의 수확물들과 이삭들을 남김없이 내어놓으리.

91

O thou the last fulfillment of life,
Death, my death, come and whisper to me!

오 삶의 마지막 성취인 그대 죽음이여,
나의 죽음이여, 어서 와서 내게 속삭여주소!

Day after day I have kept watch for thee;
for thee have I borne the joys and pangs of life.

날이면 날마다 저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당신을 위해 제가 얼마나 삶의 기쁨과 비통함을 견뎌 왔나이까.

All that I am, that I have, that I hope
and all my love have ever flowed towards thee in depth of secrecy.
One final glance from thine eyes and my life will be ever thine own.

저의 모든 것, 제가 가진 모든 것, 제가 희망한 모든 것
그리고 저의 모든 사랑은 깊은 은밀함 속에서 늘 당신을 향해 흘러왔나이다.
그리하여 이제 당신께서 마지막으로 눈길 한번만 주셔도
저의 삶은 영원히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The flowers have been woven
and the garland is ready for the bridegroom.
After the wedding the bride shall leave her home
and meet her lord alone in the solitude of night.

꽃다발도 엮어 두었고, 신랑을 위한 화관도 준비되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면 신부는 자신의 집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밤의 고독 속에서 홀로 그녀의 주님을 만나게 되겠지요.

92

I know that the day will come
when my sight of this earth shall be lost,
and life will take its leave in silence,
drawing the last curtain over my eyes.

저는 압니다.
언젠가는 이 대지를 보는 저의 눈을 잃을 날이 오리라는 것을,
그리고 제 눈 위에 마지막 장막을 드리워지면
생명은 침묵 속에서 자신을 떠남 쪽으로 이끌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Yet stars will watch at night, and morning rise as before,
and hours heave like sea waves casting up pleasures and pains.

When I think of this end of my moments,
the barrier of the moments breaks and I see
by the light of death thy world with its careless treasures.
Rare is its lowliest seat, rare is its meanest of lives.

하지만 제가 떠난 후에도 별들은 여전히 밤을 지키고
예전과 다름없이 아침이 밝겠지요.
그리고 시간은 일렁이는 파도처럼
기쁨과 고통들을 토하고 들어올려 해안으로 밀어가겠지요.
이러한 제 생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할 때면
저는 죽음의 빛을 통해
이 순간들이라는 시간의 장벽이 깨어지는 것과,
무심이란 그 세계만의 보물들이 쌓여있는 당신의 세계를 봅니다.
그 세계에서는 가장 초라한 자리도 보기 힘들고
가장 중요성을 띤 생명들이란 의미도 보기 힘듭니다.

Things that I longed for in vain
and things that I got --let them pass.
Let me but truly possess the things
that I ever spurned and overlooked.

제가 헛되이 바랬던 것들과
제가 지녔던 모든 것들에 대해 너그럽게 보아주소서.
저로 하여금 제가 진정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들
즉, 제가 언제나 경멸하며 간과해왔던 것들을 갖게 하소서.

93

I have got my leave.
Bid me farewell, my brothers!
I bow to you all and take my departure.

저는 제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쫘해英?라고 말해주세요. 나의 형제들이여
여러분 모두들에게 인사드리며 저는 작별을 고합니다.

Here I give back the keys of my door
--and I give up all claims to my house.

I only ask for last kind words from you.

여기 제 집 문의 열쇠들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제 집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

오직 여러분들의 마지막 다정한 말씀들만을 바랄 뿐입니다.

We were neighbours for long,
but I received more than I could give.

Now the day has dawned and the lamp that lit my dark corner is out.

A summons has come and I am ready for my journey.

우리는 오랫동안 이웃을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전 여러분에게 줄 수 있었던 것보다 받았던 것이 더 많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아침이 밝았고

저의 어두운 구석자리를 비추던 등불은 꺼졌습니다.

전 부름을 받았고 저만의 여행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94

At this time of my parting, wish me good luck, my friends!

The sky is flushed with the dawn and my path lies beautiful.

나의 이번 떠남에 대해 행운을 빌어주오, 나의 벗들이여.

하늘은 새벽빛으로 붉게 얼굴을 물들었고

나의 길은 아름답게 펼쳐져 있으니.

Ask not what I have with me to take there.

I start on my journey with empty hands and expectant heart.

제가 그곳에 무엇을 지니고 가는지는 묻지 마세요.

전 빈 손과 희망에 찬 마음으로 여행길에 나선답니다.

I shall put on my wedding garland.

Mine is not the red-brown dress of the traveller,

and though there are dangers on the way I have no fear in mind.

전 제 결혼식을 위해 머리에 화관을 쓸 것입니다.

여행자의 붉은 갈색 옷은 제게는 맞지 않지요.

비록 제가 가는 길에 그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한들

제 마음 속에는 전혀 두려움이 없답니다.

The evening star will come out when my voyage is done
and the plaintive notes of the twilight melodies be struck up
from the King's gateway.

제 항해가 끝날 때쯤이면 저녁별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고,
임금님의 대문에서는 황혼의 선율이 구슬픈 가락으로 울려 퍼지겠지요.

95

I was not aware of the moment
when I first crossed the threshold of this life.

저는 처음으로 제가 이 생명의 문지방을 넘었던,
그 순간에 대해 깨닫지 못했습니다.

What was the power that made me open out
into this vast mystery like a bud in the forest at midnight!

저를 이 광활한 신비 속으로 끌어들이
마치 깊은 밤 숲 속의 꽃봉오리처럼
저를 펼치게 한 것은 그 어떤 힘이였을까요?

When in the morning I looked upon the light
I felt in a moment that I was no stranger in this world,
that the inscrutable without name and form
had taken me in its arms in the form of my own mother.

아침에 번져 오는 햇살을 바라보다가
그 순간 문득 저는 느꼈답니다.
제가 이 세상의 전혀 낯선 나그네가 아니라는 것을,
이름도 형상도 없는 불가사의하신 님께서
당신 자신의 손들로 저를 취하시어
저를 낳으신 어머니의 몸 속에 저를 넣으셨다는 것을.

Even so, in death the same unknown will appear as ever known to me.
And because I love this life, I know I shall love death as well.

그와 마찬가지로 제가 죽을 때에도 불가사의한 바로 그 님께서
예전의 낯익은 모습으로 내게 오실 것임을.
그리고 이 삶을 제가 사랑하기에,

저의 죽음 또한 제가 사랑하게 될 것임을 저는 압니다.

The child cries out
when from the right breast the mother takes it away,
in the very next moment
to find in the left one its consolation.

자신의 오른쪽 젖가슴으로부터
어머니가 아이를 떼어놓으면 아이는 울지만,
바로 다음 순간이면 아이는 어머니의 왼쪽 가슴에서
그것의 위안을 찾게 되기에.

96

When I go from hence let this be my parting word,
that what I have seen is unsurpassable.

꺽뺨 92 보았던 것들은 모두 비할 바 없는 탁월한 것이었네,
이 말이 여기 이 세상을 떠나는 저의 작별인사가 되게 하소서.

I have tasted of the hidden honey of this lotus
that expands on the ocean of light, and thus am I blessed
--let this be my parting word.

꺽岫 92 바다 위에 펼쳐져 있는
황홀경에 들게 하는 이 연꽃의 숨겨진 꿀을 맛보았으니
나는 얼마나 축복 받은 존재인가. 〰
이 말이 저의 작별인사가 되게 하소서

In this playhouse of infinite forms I have had my play
and here have I caught sight of him that is formless.

저는 무수한 형상들의 유희장인 이 세상 속에서
제가 맡은 배역을 수행해 왔고,
이 세상에 제가 붙잡은 형상 없는 그 분의 모습을 펼쳐왔습니다.

My whole body and my limbs have thrilled with his touch
who is beyond touch; and if the end comes here,
let it come --let this be my parting word.

꺽▣价 92 경지를 넘어선 존재인 님과의 접촉이

지금 저의 온 몸과 손발을 떨리게 하고 있습니다,
만일 지금이 저의 마지막 순간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되게 하소서.⁹
이 말이 저의 작별인사가 되게 하소서

97

When my play was with thee

I never questioned who thou wert.

I knew nor shyness nor fear, my life was boisterous.

저는 늘 님과 더불어 유희했으면서도

한번도 님께서 누구이셨는지를 묻지 않았습시다.

저는 수줍음도 두려움도 알지 못했고,

제 삶은 떠들썩하고 거칠었습니다.

In the early morning thou wouldst call me from my sleep

like my own comrade and lead me running from glade to glade.

이른 아침이면 님께서는 마치 제 동무인 것처럼 절 부르시며

저를 잠으로부터 깨우셨고,

저를 이끌어 이 숲에서 저 숲의 빈터로 달리게 했습니다.

On those days I never cared to know

the meaning of songs thou sangest to me.

Only my voice took up the tunes,

and my heart danced in their cadence.

그런 지나간 날들에 저는 단 한번도 님께서 저를 위해 부르신

그 노래의 의미를 알고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시다.

오직 목소리로만 그 가락을 취하여

마음으로 그 리듬에 맞춰 춤추었을 뿐이었습니다.

Now, when the playtime is over,

what is this sudden sight that is come upon me?

The world with eyes bent upon thy feet

stands in awe with all its silent stars.

유희의 시간이 다 지나간 지금

제 눈앞에 닥친 이 놀라운 광경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그 눈을 침묵하는 모든 별들과 더불어

경외감 속에 서 계시는 님의 발 위를 향하고 있나이다.

I will deck thee with trophies, garlands of my defeat.

It is never in my power to escape unconquered.

정복되지 않고서 도망치는 것은 결코 제 손에 달린 것은 아니기에,
저는 제 패배의 기념으로 너를 저의 화관들로 꾸미려 하나이다.

I surely know my pride will go to the wall,
my life will burst its bonds in exceeding pain,
and my empty heart will sob out in music like a hollow reed,
and the stone will melt in tears.

저는 제 자존심이 막다른 벽에 부딪치게 되리라는 것도,
제 삶은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만 폭발하여
그 자신의 굴레들을 벗어 던질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나이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야 텅 빈 제 마음이 속이 텅 빈 갈대피리처럼
음악에 맞춰 흐느껴 울게 되리라는 것도,
눈물들 속에서라야 돌이 녹게 되리라는 것도 잘 알고 있나이다.

I surely know the hundred petals of a lotus
will not remain closed for ever
and the secret recess of its honey will be bared.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100 개 달하는 연꽃의 꽃잎들이
영원히 꽃잎을 열지 않은 채 남아 있을 수는 없으리라는 것도,
그리하여 감추어져 있던 남모르는 연꽃의 꿀이
마침내 드러나게 되리라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나이다.

From the blue sky an eye shall gaze upon me
and summon me in silence.

Nothing will be left for me, nothing whatever,
and utter death shall I receive at thy feet.

때가 되면 푸른 하늘에서 눈 하나가 저를 굽어보다가
조용히 저를 부를 것입니다.
그러면 저를 위한 것은 그 무엇 하나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며,
저는 님의 발 아래에서 완전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When I give up the helm

I know that the time has come for thee to take it.

What there is to do will be instantly done.

Vain is this struggle.

제가 방향키[主權]를 포기할 때

님께서 키를 잡는 당신의 그 시간이 온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런 상태에서 해야할 일은 즉시 이루어 질 것입니다.

헛된 것이 (제가 키를 쥐고자하는) 이 투쟁입니다.

Then take away your hands

and silently put up with your defeat, my heart,

and think it your good fortune to sit perfectly still

where you are placed.

그러니 이번에는 너의 손을 치워라.

조용히 자신의 패배를 참고 견뎌라. 내 마음이어.

그리고 그대가 자리한 그곳에 조용히

그대로 온전하게 앉아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겨라.

These my lamps are blown out at every little puff of wind,

and trying to light them I forget all else again and again.

(님을 위해 불을 밝힌) 이런 나의 등잔들은

약한 바람만 불어도 매번 꺼져버리는 것들,

나는 그것들에 불을 붙이려 애를 쓰다가

그 외에 모든 것들을 망각하고 또 망각하였네.

But I shall be wise this time and wait in the dark,

spreading my mat on the floor;

and whenever it is thy pleasure, my lord,

come silently and take thy seat here.

하지만 나 이번만은 지혜로워지리라.

마루 위에 내 자리를 펴놓고 어둠 속에서 기다리리라.

그러하오니 저의 주님이시여

그 어느 때이든 당신의 마음이 내키실 때

조용히 오셔서 여기 제가 마련한 님의 자리에 앉으소서.

100

I dive down into the depth of the ocean of forms,
hoping to gain the perfect pearl of the formless.

저는 객環捉湧 96 대양(物質界)96, 그 대양의 심연 속으로 뛰어들어
객環 96 없는 완전한 진주(解脫)96 얻고자 하나이다.

No more sailing from harbour to harbour
with this my weather - beaten boat.

The days are long passed
when my sport was to be tossed on waves.

저는 이제 더 이상 제 마음의 날씨에 휘둘려 망신창이가 된 배를 타고
이 항구에서 저 항구로 향해하는 것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유희[삶]가 과도에 떠밀려 다니던 그런 날들은 오래 전에 지났나이다.

And now I am eager to die into the deathless.

이제 저는 불멸 속으로 뛰어들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있습니다.

Into the audience hall by the fathom-less abyss
where swells up the music of toneless strings
I shall take this harp of my life.

저는 음[音]이 없는 현들의 음악이 울려 퍼지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의 공간 옆에 자리한 공연장 속으로
저의 것인 이 삶의 거문고(豎琴)를 가져가려고 하나이다.

I shall tune it to the notes of forever,
and when it has sobbed out its last utterance,
lay down my silent harp at the feet of the silent.

저는 영원의 선율로 그 거문고를 조율하여 탈 것입니다.
그리고 흐느끼는 거문고의 마지막 울조림이 다하면
침묵의 발 밑에 조용해진 저의 거문고를 내려놓을 것입니다.

101

Ever in my life have I sought thee with my songs.
It was they who led me from door to door,
and with them have I felt about me, searching and touching my world.

저는 제 노래들과 더불어 늘 저의 삶 속에서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이 문에서 저 문으로 저를 이끈 것이 그 노래들이었으며
노래와 더불어 저는 제 자신에 대해 느꼈고, 저의 세계를 찾아 만났습니다.

It was my songs that taught me all the lessons I ever learnt;
they showed me secret paths,
they brought before my sight many a star on the horizon of my heart.

제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교훈들을
제게 가르친 것도 바로 저의 노래들이었습니다.
노래는 저에게 남모르는 길들을 보여주었고
제 마음의 지평선 위에 하나 하나의 수많은 별들이
제 시야에 들어오도록 가져다 주었습니다.

They guided me all the day long
to the mysteries of the country of pleasure and pain,
and, at last, to what palace gate have they brought me
in the evening at the end of my journey?

저의 노래들은 길고 긴 모든 날 동안
기쁨과 고통의 나라, 신비의 나라를 향해 절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여행이 끝날 무렵이 된 어느 날 저녁,
어느 왕궁의 대문 앞에 저를 데려다 놓은 것입니다.

102

I boasted among men that I had known you.
They see your pictures in all works of mine.
They come and ask me, 'Who is he?'
I know not how to answer them.
I say, 'Indeed, I cannot tell.'
They blame me and they go away in scorn.
And you sit there smiling.

저는 사람들에게 당신께서 저를 잘 아신다고 자랑해왔습니다.
사람들은 저의 모든 작품들 속에서 당신의 초상(肖像)들을 봅니다.
사람들은 제게로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꺾꺾 97 말하는 그 님은 누구입니까?,
저는 그런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저는 다만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꺾꺾 97, 저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절 책망하다가 비웃으며 가버립니다.
하지만 당신께서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시며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I put my tales of you into lasting songs.
The secret gushes out from my heart.
They come and ask me, 'Tell me all your meanings.'
I know not how to answer them.
I say, 'Ah, who knows what they mean!'
They smile and go away in utter scorn.
And you sit there smiling.

저는 당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기나긴 노래들 속에 담아 넣었습니다.
제 마음으로부터 비밀이 세차게 솟구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로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꺾꺾 98 부른 이 노래들의 뜻을 나에게 전부 말해 줄 수 있소?,
저는 그런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저는 다만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꺾꺾 98, 그 노래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웃다가 몹시 저를 비웃으며 가버립니다.
하지만 당신께서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시며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103

In one salutation to thee, my God,
let all my senses spread out and touch this world at thy feet.

저의 하느님, 당신께 올리는 이 하나의 찬가(讚歌)로 인해
저의 모든 감각들이 두루 펼쳐지게 하시고
당신의 발에 맞추어 이 세상을 어루만지게 하옵소서.

Like a rain-cloud of July hung low
with its burden of unshed showers
let all my mind bend down at thy door in one salutation to thee.

아직 뿌리지 못한 그 자신의 소나기를 짊어진 채
낮게 드리워져있는 7월의 비구름같이
당신께 올리는 이 하나의 찬가로 인해
저의 모든 마음이 당신의 문을 향해 엎드려 절하게 하옵소서.

Let all my songs gather together

their diverse strains into a single current
and flow to a sea of silence in one salutation to thee.

부디 저의 모든 노래들을 함께 모이게 하시고
제각기 다른 그 선율들이 하나의 흐름에 되게 하시어
당신께 올리는 이 하나의 찬가(讚歌) 속에서
침묵의 바다로 흘러가게 하소서.

Like a flock of homesick cranes
flying night and day back to their mountain nests
let all my life take its voyage to its eternal home
in one salutation to thee.

고향이 그리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산 속 자신들의 둥지를 찾아 날아서 돌아가는 학의 무리처럼,
당신께 올리는 이 하나의 찬가(讚歌)로 인해
부디 저의 모든 삶이 그 자신의 영원한 고향을 향해
자신의 진로를 잡아 향해하도록 해 주옵소서.

The End

끝

푸른글 평역 <기탄잘리>

2006년 10월 28일 시작한 번역을 2008년 10월 19일 모두 마칩.

End of the Project Gutenberg EBook of Gitanjali,
by Rabindranath Tagore

GITANJALI

신(神)께 바치는 송가(頌歌) 기탄잘리

평역 : 푸른글

<http://blog.paran.com/bharata>

1.

Thou hast made me endless, such is thy pleasure.

This frail vessel thou emptiest again and again,
and fillest it ever with fresh life.

당신께서 저를 영원케 하셨으니, 그것이 당신의 기쁨입니다.

이 연약한 그릇을 당신께서는 비우고 또 비우게 하시어
항상 신선한 생명으로 그것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This little flute of a reed thou hast carried over hills and dales,
and hast breathed through it melodies eternally new.

당신께서는 이 작은 갈대 피리를 언덕과 골짜기들 너머로 실어 오셔서,
그것을 통해 숨쉬시며 그 갈대 피리의 음률들을 영원히 새롭게 하십니다.

At the immortal touch of thy hands

my little heart loses its limits in joy and gives birth to utterance ineffable.

영원이신 당신의 손길들이 닿을 때면

저의 가냘픈 가슴은 기쁨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 자신의 한계를 잃고,
형언할 수 없는 것을 말로 나타내보려고 합니다.

Thy infinite gifts come to me only on these very small hands of mine.

Ages pass, and still thou pourest, and still there is room to fill.

당신의 무한한 선물들은 아주 작은 바로 나의 이 손을 통해 제게로 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당신은 가득 채워주시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손에는 채워야할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2.

When thou commandest me to sing
it seems that my heart would break with pride;
and I look to thy face, and tears come to my eyes.

당신께서 제게 노래를 부르시라 명하시면
저의 가슴은 자부심으로 터질 듯 하고,
제가 당신의 얼굴을 향할 때면 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릅니다.

All that is harsh and dissonant in my life melts into one sweet harmony
--and my adoration spreads wings like a glad bird on its flight across the sea.

제 삶 속의 온갖 거칠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들은
향긋한 하나의 조화 속으로 녹아들어,
저의 흠모는 바다를 가로질러 날아가는 기쁨에 찬 새처럼 날개를 펼칩니다.

I know thou takest pleasure in my singing.

I know that only as a singer I come before thy presence.

저는 당신께서 제 노래 속에서 기쁨을 얻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노래하는 자일 때만 제가 당신 앞에 설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I touch by the edge of the far-spreading wing of my song
thy feet which I could never aspire to reach.

나는 활짝 펼친 내 노래의 날개 끝으로만
감히 동경할 수 없는 당신의 발을 만질 수 있을 뿐입니다.

Drunk with the joy of singing I forget myself
and call thee friend who art my lord.

노래하는 기쁨에 취해 저는 제 자신을 잃고
저의 주님이신 당신을 감히 친구라 부릅니다.

3.

I know not how thou singest, my master!

I ever listen in silent amazement.

주님, 저는 당신께서 어떻게 노래하시는지 모릅니다.
저는 늘 조용한 놀라움 속에서 귀를 기울일 뿐입니다.

The light of thy music illumines the world.

The life breath of thy music runs from sky to sky.

The holy stream of thy music

breaks through all stony obstacles and rushes on.

당신의 음악은 빛줄기가 되어 온 세상을 빛나게 합니다.

당신의 음악은 생명의 숨결 되어 하늘에서 하늘로 날아다닙니다.

당신의 성스러운 음악의 물줄기는

온갖 돌처럼 단단한 장애물을 부수고 나아갑니다.

My heart longs to join in thy song,

but vainly struggles for a voice.

I would speak, but speech breaks not into song,

and I cry out baffled.

Ah, thou hast made my heart captive in the endless meshes of thy music,

my master!

제 가슴은 당신의 노래 속에서 하나가 되고자 하지만

다만 헛되이 목안에서 맴돌 뿐입니다.

저는 말로 표현하려하지만,

그 말들이 노래가 되지 나오지 않아 좌절하여 외칩니다.

오 주님, 당신께서는 제 가슴을

끝없는 당신 음악의 울가미들로 사로잡으셨습니다.

4.

Life of my life, I shall ever try to keep my body pure,

knowing that thy living touch is upon all my limbs.

제 생명 속의 참 생명이시여,

저는 언제나 제 육체를 순결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명의 손길이 제 온 몸을 어루만짐을 아는 까닭입니다.

I shall ever try to keep all untruths out from my thoughts,

knowing that thou art that truth

which has kindled the light of reason in my mind.

저는 언제나 제 생각들로부터 비롯되는

온갖 거짓된 것들을 물리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제 마음 속에 있는 이성의 불꽃이

당신으로부터 비롯된 진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I shall ever try to drive all evils away from my heart
and keep my love in flower,
knowing that thou hast thy seat in the inmost shrine of my heart.

저는 언제나 제 가슴속에 있는 모든 악들을 몰아내려고 노력하며,
저의 사랑이 꽃을 피운 상태로 있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성스러운 사원에
당신께서 자리하고 계심을 아는 까닭입니다.

And it shall be my endeavour to reveal thee in my actions,
knowing it is thy power gives me strength to act.

그리고 저는 저의 모든 행동들 속에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은 저를 행동하게 하는 힘이
당신께서 제게 주신 권능이라는 것을 아는 까닭입니다.

5.

I ask for a moment's indulgence to sit by thy side.
The works that I have in hand I will finish afterwards.

당신 곁에 앉아 제가 잠시나마 은혜를 구하게 하소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은 나중에 마치겠나이다.

Away from the sight of thy face
my heart knows no rest nor respite,
and my work becomes an endless toil in a shoreless sea of toil.

당신의 얼굴로부터 떨어져 당신을 보지 못하면
제 가슴에는 그 어떠한 휴식도 잠깐의 편안함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의 일들은 도달할 곳 없는 고통의 바다를 헤매는
끝없이 고된 노동이 됩니다.

Today the summer has come at my window
with its sighs and murmurs;
and the bees are plying their minstrelsy
at the court of the flowering grove.

오늘은 여름이 제 창가에 와서 숨쉬며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이 피어난 숲 속 정원에서는
벌들이 날아다니며 그들만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Now it is time to sit quite, face to face with thee,
and to sing dedication of live in this silent and overflowing leisure.

지금은 당신과 얼굴을 마주하고 조용히 앉아
이 고요함과 넘치는 여유로움으로 생명의 찬가를 부를 시간입니다.

6.

Pluck this little flower and take it, delay not!

I fear lest it droop and drop into the dust.

이 작은 꽃을 뽑아 때를 놓치지 말고 데려가 주소서.
저는 이 꽃이 시들어 땅에 떨어져 먼지로 돌아갈까 두렵습니다.

I may not find a place in thy garland,
but honour it with a touch of pain from thy hand and pluck it.

I fear lest the day end before I am aware, and the time of offering go by.

제가 비록 당신의 화관 속에 있을 자리를 찾지 못한다 하더라도,
당신의 손길이 닿아 뽑히는 아픔의 영광마저 저버리지는 마소서.
제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날이 저물어버려,
당신께 저를 바칠 시간이 지나가 버릴까 두렵습니다.

Though its colour be not deep and its smell be faint,
use this flower in thy service and pluck it while there is time.

비록 이 꽃의 색깔은 짙지 못하고 이 꽃의 향기가 약하다 하더라도
때맞추어 뽑아 이 꽃이 당신을 섬기는데 소용이 되게 하소서.

7.

My song has put off her adornments.

She has no pride of dress and decoration.

Ornaments would mar our union;

they would come between thee and me;

their jingling would drown thy whispers.

저의 노래는 여인의 장식들을 멀리 하였습니다.
저의 노래는 그 어떤 옷과 장신구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꾸밈은 당신과 나 사이에 끼여들어
그 짙은 소리로 님의 속삭임들을 가로막고
우리의 하나됨을 손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My poet's vanity dies in shame before thy sight.
O master poet, I have sat down at thy feet.
Only let me make my life simple and straight,
like a flute of reed for thee to fill with music.

시인으로서의 저의 자부심은
당신의 눈앞에 서면 부끄러워하며 사라져 버립니다.
오 시인들의 주님이시여, 저는 당신의 발 아래에 앉았나이다.
하오니 당신께서 선율을 채우시는 당신의 갈대 피리처럼
제 삶이 참되고 바르게 하소서.

8.

The child who is decked with prince's robes
and who has jewelled chains round his neck
loses all pleasure in his play;
his dress hampers him at every step.

좋은 옷을 입고 보석 목걸이를 한 채 노는 어린아이는,
걸을 때마다 그의 옷이 더러워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인해
놀이에서 전혀 즐거움을 얻지 못합니다.

In fear that it may be frayed, or stained with dust
he keeps himself from the world, and is afraid even to move.

옷이 닳아서 헤어지지 않을까 먼지로 더럽혀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사는 어린아이는 늘 세상에 섞이는 것을 망설이고
심지어 움직이는 것조차 두려워할 것입니다.

Mother, it is no gain, thy bondage of finery,
if it keep one shut off from the healthful dust of the earth,
if it rob one of the right of entrance
to the great fair of common human life.

성스러운 어머니시여,
만일 옷과 아름다운 장식이 건강한 대지로부터 자신을 차단하게 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의 평범한 삶 속으로 드나드는 권리를
그 사람에게서 빼앗는 것이라면
당신께 올리는 화려한 장식이란 속박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9.

O Fool, try to carry thyself upon thy own shoulders!

O beggar, to come beg at thy own door!

Leave all thy burdens on his hands who can bear all,
and never look behind in regret.

오 어리석은 자여,

그대는 그대 자신을 자신의 어깨 위에 메고 가려 하나요!

오 빈곤한 자여,

그대는 자신의 집 문 앞에 서서 구걸하려고 하나요!

그대는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그 분의 손에

그대의 모든 짐을 맡기고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결코 아쉬움이 남겨 뒤돌아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Thy desire at once puts out the light from the lamp
it touches with its breath.

It is unholy--take not thy gifts through its unclean hands.

Accept only what is offered by sacred love.

그대가 욕망으로 가득 찬 숨결로 등잔을 가까이 하면

등잔의 불은 이내 그대의 욕망으로 인해 꺼져 버리고 말 것이니,

욕망으로 더러워진 그 손으로 그대 자신의 선물을 받지 마십시오.

그것은 성스럽지 못한 것이니

오직 성스러운 사랑에 의해 그대에게 주어진 것만 받으십시오.

10.

Here is thy footstool and there rest thy feet

where live the poorest, and lowliest, and lost.

당신께서는 가장 가난한 사람과 가장 비천하게 살고있는 사람

그리고 길 잃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발판을 두시고

그곳에 당신은 머물러 계십니다.

When I try to bow to thee,

my obeisance cannot reach down to the depth

where thy feet rest among the poorest, and lowliest, and lost.

그러므로 제가 무릎을 꿇고 당신께 예배를 드리려 해도

저의 예배는 가장 가난한 사람과 가장 비천하게 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길을 잃은 자들 사이에 자신의 발을 머물게 하신
당신의 그 깊은 뜻에는 닿을 수 없습니다.

Pride can never approach to where thou walkest
in the clothes of the humble among the poorest, and lowliest, and lost.

당신께서는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천하고 길을 잃은 자들 속에서
남루한 옷을 입고 걷고 계시기에
오만함은 결코 당신이 걷고 계신 그곳에 이르지 못합니다.

My heart can never find its way to where thou keepest company
with the companionless among the poorest, the lowliest, and the
lost.

또한 당신께서는 벗도 없이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천하고 길 잃은 사람들 속에서
그 무리들을 가장 가까이 하고 계시기에
제 마음은 결코 당신의 그런 마음 길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11.

Leave this chanting and singing and telling of beads!
Whom dost thou worship in this lonely dark corner of a temple
with doors all shut?

Open thine eyes and see thy God is not before thee!

진실한 마음이 담기지 않은 기도와 찬송
그리고 염주를 굴리며 주문을 외우는 따위의 짓은 이제 그만 두십시오!
문들이 모두 닫힌 이 외롭고 어두운 사원의 구석에서
그대들은 도대체 누구를 경배하며 기도하고 있단 말인가요?
눈을 열고 바로 보십시오.
그대의 신(神)은 그대 눈 앞에 있지 않다는 것을!

He is there where the tiller is tilling the hard ground
and where the pathmaker is breaking stones.

He is with them in sun and in shower,
and his garment is covered with dust.

Put of thy holy mantle and even like him come down on the dusty soil!

신(神)은 단단한 땅을 갈고있는 농부가 있는 곳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돌을 깨고 있는 그곳에 계십니다.
그 분께서는 내리 쬐는 햇볕 속에서도 비가 쏟아질 때에도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에 그 분의 옷은 먼지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대들도 자신이 성스럽다고 생각하는
그 가식의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더 나아가 신께서 그렇게 하시게 하소서
더러운 먼지로 뒤덮인 이 낮은 땅으로 내려오십시오.

**Deliverance? Where is this deliverance to be found?
Our master himself has joyfully taken upon him the bonds of creation;
he is bound with us all for ever.**

해탈이라구요?
해탈이 어떤 장소에서 찾아질 수 있는 것인가요?
우리의 주님께서서는 자신 스스로 창조의 속박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분께서는 우리 모두와 영원한 인연을 맺으셨습니다.

**Come out of thy meditations and leave aside thy flowers and incense!
What harm is there if thy clothes become tattered and stained?
Meet him and stand by him in toil and in sweat of thy brow.**

그대 자신의 해묵은 생각들 속에서 뛰쳐나오십시오.
그대 자신이 생각으로 만든 꽃들과 향기를 한 쪽으로 치우십시오.
그대의 옷이 누더기가 되고 얼룩으로 더럽혀진다고 하더라도
신과 함께라면 거리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대의 이마에 땀방울을 맺히는 수고로움 속에서
신을 만나고 신 곁에 서십시오.

12.

The time that my journey takes is long and the way of it long.
내 여정(旅程)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갈 길은 멀니다.

**I came out on the chariot of the first gleam of light, and
pursued my voyage through the wildernesses of worlds
leaving my track on many a star and planet.**

나라는 것은 빛의 첫 섬광(閃光)으로부터 나타나
빛의 수레를 타고 자기만의 항로를 추구하고
망망히 펼쳐진 우주 사이에서 여행하면서

수많은 별과 행성에 자신의 자취를 남기고 떠나는 존재인 것입니다.

It is the most distant course that comes nearest to thyself,
and that training is the most intricate
which leads to the utter simplicity of a tune.

매우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시련을 통해서
나를 완전무결한 조화의 단순성으로 이끌어 감으로서
내가 자기 자신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것
이것이 나라는 존재의 머나먼 노정(路程)인 것입니다.

The traveller has to knock at every alien door to come to his own,
and one has to wander through all the outer worlds
to reach the innermost shrine at the end.

나그네는 자기 집 문에 이르기 위해
수많은 낯선 문들을 하나하나 다 두드려 봅니다.
그리고 맨 끝에 있는 가장 깊은 성지(聖地)에 도달하기 위해
모든 바깥 세계를 헤매고 다니며 방황합니다.

My eyes strayed far and wide
before I shut them and said 'Here art thou!'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눈을 감으면서
쟁慕 109 이곳에 당신이 계셨군요 109 하기 전까지는
나라는 존재는 온 세상 이곳 저곳을 헤매고 다닙니다.

The question and the cry 'Oh, where?'
melt into tears of a thousand streams
and deluge the world with the flood of the assurance 'I am!'

그리하여 마침내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의문과
쌍 109, 제가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다구요? 嚮求 109 외침은
수많은 시냇물 줄기를 이루어 눈물의 강 속으로 녹아들고
靄 109 존재한다! 靄 109 확신의 홍수로 세상을 범람케 합니다.

13.

The song that I came to sing remains unsung to this day.

제가 불러 보려고 한 노래는 이 날까지도 불러보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I have spent my days in stringing and in un-stringing my instrument.

저는 제게 주어진 시간을 내 악기의 줄을 당기거나 늦추거나 하면서
헛되이 악기를 조율(調律)하는데만 헛되이 시간을 보내왔던 것입니다.

The time has not come true, the words have not been rightly set;
only there is the agony of wishing in my heart.

시간은 진정 오지 않았고 말들은 올바르게 정돈되지 못해
제 마음은 오직 바람의 몸부림으로만 가득합니다.

사전기 (死戰期 agony)

죽음에 이르기 직전의 상태. 죽음 직전에는 신체의 여러 가지 기능이 실조(失調)되거나 거의 정지된 상태가 된다. 구체적으로는 순환계부전·간부전·위부전·호흡장애·영양실조·탈수증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호흡은 점차 약해지면서 느려지고 불규칙해지며 비익호흡(鼻翼呼吸) 또는 하악호흡(下顎呼吸)을 하거나 혹은 체인스토크스호흡(이상호흡의 일종으로, 호흡하는 기간과 호흡하지 않는 기간이 주기적으로 나타난다)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와 함께 맥박은 빠르고 미약해지며 혈압이 내려간다. 피부색은 일반적으로 창백해져 흙빛이 되며 신체 말단은 차가워진다. 또한 코끝은 뾰족해지고 안구는 폭 파이며 눈꺼풀이 내려앉고 반쯤 감은 듯이 보인다. 아래턱도 내려앉고 입술이 처지는 등의 사상(死相)이 나타난다. 사전기에는 온몸의 모든 반사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눈동자는 빛에 대한 반응이 둔해지고 동공산대(瞳孔散大) 현상을 나타낸다. 연하(嚥下)도 불능상태가 되고 목에 점액이 고이며 호흡할 때 할딱이는 소리가 난다. 또한 입을 벌리고 호흡하기 때문에 상기도 및 구강의 점막이 마른다. 소변·대변의 실금(失禁)이 생기고 의식도 소실된다. 이와 같은 상태가 되었을 때는 의치(義齒)를 떼어내고 질식을 예방하기 위해 목에 고인 점액을 제거하고 구강과 입술에 물을 적셔준다.

단말마 (斷末魔 death agony)

임종(臨終)을 맞는 최후 순간의 모진 고통(苦痛). 산스크리트 말마(marman)에서 유래된 말로, 숨이 끊어질 때의 마지막 고통을 가리킬 때 쓰인다. 말마는 육체의 급소를 뜻하며, 이 말마를 끊으면 죽음과도 같은 아픔이 따른다는 데서 나왔다. <단말마의 고통>이라는 말로 예술작품 등에 쓰이고 있다.

The blossom has not opened; only the wind is sighing by.

꽃잎이 열지도 못했는데 바람만이 한숨지으며 스쳐갑니다.

I have not seen his face, nor have I listened to his voice;

only I have heard his gentle footsteps from the road before my house.

저는 아직 그의 얼굴도 보지 못했고 그의 음성도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제 집 앞길을 지나는 그의 조용한 발자국 소리를 들었을 뿐입니다.

The livelong day has passed in spreading his seat on the floor;
but the lamp has not been lit and I cannot ask him into my house.
기나긴 날을 살아오면서 나는 내내 마루에 그가 앉을 자리만을 펴면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의) 등불을 켜지 못했기에 나는 그를 내 집으로 청할 수도 없습니다.

I live in the hope of meeting with him; but this meeting is not yet.
저는 그와 만날 날만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4

My desires are many and my cry is pitiful,
but ever didst thou save me by hard refusals;
and this strong mercy has been wrought into my life
through and through.

저의 갈망들이 너무 많고 제 외침이 가련할 때도
님께서는 늘 단호하게 (저의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엄한 자비가 제 삶 속으로 속속들이 스며들도록 만드셨습니다.

Day by day thou art making me worthy of the simple, great gifts
that thou gavest to me unasked

--this sky and the light, this body and the life and the mind
--saving me from perils of overmuch desire.

제가 청하지 않아도 님께서는 제게
이 하늘과 빛과 이 몸과 생명과 그리고 마음과 같이 값진,
소박하고 위대한 선물들의 날이면 날마다 주시어
저를 가치 있게 만드시고
넘치는 욕망의 위험으로부터 절 구해 주십니다.

There are times when I languidly linger
and times when I awaken and hurry in search of my goal;
but cruelly thou hidest thyself from before me.

제가 무기력하게 꾸물거리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제 목표를 찾아 서두르는 그런 시간이면
님께서는 무정하게 제 앞에서 모습을 감추십니다.

Day by day thou art making me worthy of thy full acceptance

by refusing me ever and anon,
saving me from perils of weak, uncertain desire.

님께서는 저를 때때로 거절하심으로써
님을 제가 온전히 수용하도록 하시어
날이면 날마다 저를 더욱 가치 있게 만드십니다.

15

I am here to sing thee songs.
In this hall of thine I have a corner seat.

님을 찬송하기 위해 여기에 와서
저는 님의 방 한쪽 구석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In thy world I have no work to do;
my useless life can only break out in tunes without a purpose.

님의 세계 안에서는 저는 아무런 할 일이 없습니다.
제 부질없는 생명은 오직 목적 없이 존재하는 이 조화(調和)를 껴 뿐입니다.

When the hour strikes for thy silent worship at the dark temple of midnight,
command me, my master, to stand before thee to sing.

그러하오니 한 밤중에 어두운 사원에서
조용히 님을 경배할 시간이 되었음을 알리면
저의 주인님이시여, 제가 님 앞에 서서 노래하도록 명해주소서.

When in the morning air the golden harp is tuned, honour me,
commanding my presence.

그리고 아침의 싱그러운 공기 속에서 금빛 하프 소리가 울려 퍼지면
저를 축복하시어 님 곁에 제가 있도록 제 출석(出席)을 명해 주소서.

16

I have had my invitation to this world's festival,
and thus my life has been blessed.

My eyes have seen and my ears have heard.
저는 이 세상의 축제에 초대하는 제 초청장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 삶은 늘 축복 받은 삶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눈으로 보아 왔고 제 귀로 들어 왔습니다.

It was my part at this feast to play upon my instrument,
and I have done all I could.

이 축제에서 내 악기로 연주하는 것이 내 몫이라는 것을,
그리고 저는 이 세상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Now, I ask, has the time come at last when I may go in
and see thy face and offer thee my silent salutation?

그러니 이제 저는 마침내 님의 품속으로 들어가
님의 얼굴을 뵈고 제 침묵의 인사를 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왔는지를 묻나이다.

17

I am only waiting for love to give myself up at last into his hands.
That is why it is so late and why I have been guilty of such omissions.

저는 그의 손에 마침내 제 자신을 포기하여 바치는
오직 그런 사랑을 위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렇게 늦게 된 까닭이며 그런 태만함의 죄들을 지은 까닭입니다.

They come with their laws and their codes to bind me fast;
but I evade them ever,
for I am only waiting for love to give myself up at last into his hands.

사회는 자신들의 법률과 관습들로 저를 단단히 움아매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그것들을 피해 빠져나왔습니다.
그것은 저는 그 분의 손에 마침내 제 자신을 포기하여 바치는
오직 그런 사랑을 위해 기다리고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People blame me and call me heedless;
I doubt not they are right in their blame.
사람들은 그런 저를 비난하며 무모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비난이 그들 방식으로는 옳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The market day is over and work is all done for the busy.
Those who came to call me in vain have gone back in anger.
I am only waiting for love to give myself up at last into his hands.

장날은 지났고 바쁜 이들의 일도 모두 끝났습니다.
헛되이 나를 부르러 온 사람들도 모두 화를 내며 되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분의 손에 마침내 제 자신을 포기하여 바치는
오직 그런 사랑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18

Clouds heap upon clouds and it darkens.

Ah, love, why dost thou let me wait outside at the door all alone?

구름들이 층층이 쌓여서 어두워집니다.

오 사랑이여, 어찌하여 그대는 저를 문 밖에서 홀로 기다리게 하시나이까.

In the busy moments of the noontide work I am with the crowd,
but on this dark lonely day it is only for thee that I hope.

일로 바쁜 낮 시간에는 저는 군중들과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둡고 외로운 날이면

제가 바라는 것은 오직 당신을 찾는 것입니다.

If thou showest me not thy face, if thou leavest me wholly aside,
I know not how I am to pass these long, rainy hours.

만일 당신께서 제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신다면

만일 당신께서 저를 완전히 외면하고 떠나신다면

저는 그 긴 슬픔의 시간들을 도대체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모른답니다.

I keep gazing on the far-away gloom of the sky,
and my heart wanders wailing with the restless wind.

저 떠나 먼 하늘의 어두운 표정을 응시하고 있노라면

제 마음은 쉬지 못하는 바람처럼 울부짖으며 방황합니다.

19

If thou speakest not I will fill my heart with thy silence and endure it.

I will keep still and wait like the night with starry vigil

and its head bent low with patience.

만일 당신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당신의 침묵으로 제 마음을 채우고 그것을 견뎌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낮게 숙이고 인내하며

잠 못 드는 별들이 층층한 밤처럼 기다릴 것입니다.

The morning will surely come, the darkness will vanish,
and thy voice pour down in golden streams breaking through the sky.
틀림없이 아침은 오고 어둠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가르는 황금빛 햇살 속에 당신의 음성이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Then thy words will take wing in songs
from every one of my birds' nests,
and thy melodies will break forth in flowers in all my forest groves.
그런 다음 당신의 말씀들은
내 새 둥지들 하나 하나에서 나오는 모든 노래들로 날개를 해 달고,
당신의 선율들은 내 숲 속 작은 과수원에 있는 모든 꽃들 속에서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20

On the day when the lotus bloomed,
alas, my mind was straying, and I knew it not.
My basket was empty and the flower remained unheeded.
연꽃이 피었던 바로 그 날도
아, 제 마음은 길을 잃고 방랑하여,
저는 그 연꽃이 핀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 바구니는 비어 있었고 그 연꽃은
아무도 보아주는 이 없는 채 남겨져 있었습니다.

Only now and again a sadness fell upon me,
and I started up from my dream
and felt a sweet trace of a strange fragrance in the south wind.
오직 슬픔이 눈앞에 닥치거나 되풀이해서 저를 덮쳐 누를 때에만,
저는 제 꿈으로부터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마과람 속에 묻어온 낮선 향기의 감미로운 흔적을 느꼈습니다.

That vague sweetness made my heart ache with longing
and it seemed to me that is
was the eager breath of the summer seeking for its completion.
그 희미한 감미로움이 그리움으로 제 마음을 아프게 만들어도
저는 그것이 열정적인 여름의 숨결이
자신의 계절을 완성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I knew not then that it was so near, that it was mine, and that
this perfect sweetness had blossomed in the depth of my own heart.

그 때에도 저는 그 꽃이 그렇게 가까이에 있으며
그 꽃이 저의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향기가 제 마음 속 깊은 곳으로부터 피어난
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 역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21

I must launch out my boat.

The languid hours pass by on the shore--Alas for me!

나는 이제 내 배를 띄워야만 합니다.
무기력했던 시간들을 해변에 남겨둔 채로,
나를 위하여.

The spring has done its flowering and taken leave.

And now with the burden of faded futile flowers I wait and linger.

봄은 꽃을 피우는 자신의 임무를 마치자마자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빛 바랜 하찮은 꽃무더기를 들고서
기다리며, 떠나기 싫어 꾸물거리고 있습니다.

The waves have become clamorous,

and upon the bank in the shady lane the yellow leaves flutter and fall.

물결들은 점점 거칠어지고 있고
제방 위 그늘진 샛길에는 노란 잎들이 훑날리며 떨어져 내립니다.

What emptiness do you gaze upon!

Do you not feel a thrill passing through the air

with the notes of the far-away song floating from the other shore?

그대는 어떤 무가치 한 것을 바라보고 있나요?
그대는 또 다른 해변에서 떠올라 바람을 타고 날아오는
희미한 노래 가락들이 스치는 짜릿함을 느끼지 못하시나요?

22

In the deep shadows of the rainy July, with secret steps,
thou walkest, silent as night, eluding all watchers.

당신께서는

비 내리는 7 월의 짙은 녹음 속을
밤처럼 고요하게, 모든 사람들의 눈을 피하며
남모르는 걸음으로 걷고 계십니다.

Today the morning has closed its eyes,
heedless of the insistent calls of the loud east wind,
and a thick veil has been drawn over the ever-wakeful blue sky.

오늘은 아침이 자신의 눈을 감았습니다.
요란한 새벽 바람의 끈질긴 요청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두터운 장막이 늘 껴어있는 푸른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The woodlands have hushed their songs,
and doors are all shut at every house.
Thou art the solitary wayfarer in this deserted street.
Oh my only friend, my best beloved,
the gates are open in my house--do not pass by like a dream.

숲들은 자신들의 노래들을 멈추었고
집집마다 모든 문들을 닫았는데도,
당신께서는 이 황량한 거리의 외로운 방랑자입니다.
오, 저의 유일한 친구여,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이여,
저희 집 문은 열려있으니, 부디 꿈처럼 스쳐 지나가지는 마옵소서.

23

Art thou abroad on this stormy night on thy journey of love, my friend?
The sky groans like one in despair.

내 사랑하는 벗이여,
그대는 이 폭풍우 몰아치는 밤에도 밖에서 사랑의 행로를 걷고 계신가요?
이렇게 하늘이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처럼 신음하는데 말입니다.

I have no sleep tonight.
Ever and again I open my door and look out on the darkness, my friend!

내 사랑하는 벗이여, 나는 이 밤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몇 번이고 다시 문을 열어 어둠 속을 바라봅니다.
I can see nothing before me. I wonder where lies thy path!
제 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이 길 어디쯤 계신지 궁금합니다.

By what dim shore of the ink-black river,
by what far edge of the frowning forest,
through what mazy depth of gloom
art thou threading thy course to come to me, my friend?

내 사랑하는 벗이여,
그대는 그 어떤 검푸른 강 어두한 언덕을 지나고
그 어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먼 숲 모퉁이를 지나
그 어떤 깊은 어둠 속 미로와 같은 길을 통해
제게로 오는 당신의 길을 누비고 계십니까?

24

If the day is done, if birds sing no more, if the wind has flagged tired,
then draw the veil of darkness thick upon me,
even as thou hast wrapt the earth with the coverlet of sleep
and tenderly closed the petals of the drooping lotus at dusk.

날은 이미 저물고 새들도 이제 더 이상 노래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만일 바람마저 지쳐서 축 늘어진다면,
그렇게 되면 두터운 어둠의 장막을 끌어와 저를 덮어주소서.
당신께서 잠의 덮개로 대지를 감싸던 것처럼
어스름 때 풀 죽은 연꽃잎들을 부드럽게 닫아주셨던 것처럼.

From the traveller, whose sack of provisions is empty
before the voyage is ended, whose garment is torn and dust-laden,
whose strength is exhausted, remove shame and poverty,
and renew his life like a flower under the cover of thy kindly night.

여행을 다 마치기도 전에 여행자의 식량자루가 비고
그 옷은 다 떨어지고 먼지에 절었으며 그 힘이 다했더라도,
여행자로부터 부끄러움과 가난함을 물리쳐주시고
당신이 베푸시는 다정한 밤의 품 아래에 있는 것처럼
여행자의 생명을 새롭게 하소서.

25

In the night of weariness
let me give myself up to sleep without struggle,

resting my trust upon thee.

지친 밤이 오면 제 모든 것을 당신께 맡기고
자신을 잠에 맡겨 뒤척거리지 않고 편히 쉬게 하소서.

Let me not force my flagging spirit
into a poor preparation for thy worship.

저의 쇠약해진 정신이
준비되지 못한 초라한 차림으로 당신을 경배하지 않게 하소서.

It is thou
who drawest the veil of night upon the tired eyes of the day
to renew its sight in a fresher gladness of awakening.

지친 낮의 눈 위에 밤의 장막을 끌어다 놓으심으로써
다음날이 되면 더욱 신선한 각성의 기쁨 속에서
그 눈이 보도록 다시 새롭게 하시는 것은 당신입니다.

26

He came and sat by my side but I woke not.

What a cursed sleep it was, O miserable me!

그 분이 와서 내 곁에 앉았어도 나는 잠을 깨지 못했습니다.
그 얼마나 저주스런 잠이었던가요. 오 참담한 이 몸.

He came when the night was still; he had his harp in his hands,
and my dreams became resonant with its melodies.

그 분은 밤이 고요해지면 자신의 하프를 손에 들고 오십니다.
그러면 내 꿈들은 그 분의 하프소리에 어울려 울리기 시작합니다.

Alas, why are my nights all thus lost?

Ah, why do I ever miss his sight whose breath touches my sleep?

아, 나는 왜 나의 밤들을 모두 그렇게 잃어버리는 것일까요?
아, 나는 왜 자신의 숨결로 내 잠을 만지는 그 분의 모습을
날마다 놓치고 있는 것일까요?

27

Light, oh where is the light?

Kindle it with the burning fire of desire!

There is the lamp

but never a flicker of a flame--is such thy fate, my heart?

Ah, death were better by far for thee!

빛이여, 오 어디에 빛이 있나요?

(신이시여, 부디 저의)

이 타오르는 욕망의 불로 제가 빛을 점화하게 만드소서!

등잔은 있지만 불꽃의 깜박임은 전혀 없는

이것이 정녕 내 마음 그대의 운명이란 말인가요?

오, 그렇다면 마음 그대에겐 죽음이 훨씬 더 나았을 것을!

Misery knocks at thy door,

and her message is that thy lord is wakeful,

and he calls thee to the love-tryst through the darkness of night.

비극이 그대의 문을 두드리며 소식을 전합니다.

그대의 주님께서 잠 못 이루고 있다고,

어둠을 뚫고 사랑의 보금자리로 오라고

주님께서 그대를 부르고 있다고.

The sky is overcast with clouds and the rain is ceaseless.

I know not what this is that stirs in me--I know not its meaning.

하늘엔 먹구름이 가득하고 비가 썬 없이 내립니다.

그러나 저는 제 속에서 저를 뒤흔드는 것이 무엇이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도 모릅니다.

A moment's flash of lightning

drags down a deeper gloom on my sight,

and my heart gropes for the path to where the music of the night calls me.

그러다가 한 순간 번갯불이 번쩍여

제 시야(視野)를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끌어내리면,

제 마음은 밤의 선율이 어디에서 나를 부르는지

손으로 길을 찾아 더듬습니다.

Light, oh where is the light!

Kindle it with the burning fire of desire!

It thunders and the wind rushes screaming through the void.

The night is black as a black stone.

Let not the hours pass by in the dark.

Kindle the lamp of love with thy life.

빛이여, 오 어디에 빛이 있나요?

(신이시여, 부디 저의)

이 타오르는 욕망의 불로 제가 빛을 점화하게 만드소서!

천둥이 치고 바람이 울부짖으며 허공을 매섭게 가릅니다.

저의 밤은 검은 바위처럼 어둡습니다.

주님, 부디 제가 이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게 하소서.

사랑의 등불을 당신의 생명으로 밝혀주소서.

28

Obstinate are the trammels,

but my heart aches when I try to break them.

집착한다는 것은 속박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집착의 사슬을 끊으려하면서 마음 아파합니다.

Freedom is all I want, but to hope for it I feel ashamed.

I am certain that priceless wealth is in thee,

and that thou art my best friend,

but I have not the heart to sweep away the tinsel that fills my room.

자유로워지는 것만이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이지만

하지만 그것을 기대하기에는 저는 너무나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저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부(富)가 주님 안에 있으며

주님께서 저의 가장 소중한 친구라는 것도 확신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제 방을 가득 채운,

겉만 번쩍이는 것들을 마음에서 끌어내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The shroud that covers me is a shroud of dust and death;

I hate it, yet hug it in love.

저를 덮고 있는 장막은 죽음과 덧없음의 장막입니다.

그 장막을 저는 미워합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장막을 애착하여 꼭 끌어안고 있습니다.

My debts are large, my failures great, my shame secret and heavy;
yet when I come to ask for my good,
I quake in fear lest my prayer be granted.

제가 짊어진 채무는 많고, 잘못은 크며,
저의 비밀스러운 부끄러움은 무겁기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저의 행복을 바라면서
혹시 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하여 두려움에 떨니다.

29

He whom I enclose with my name is weeping in this dungeon.
I am ever busy building this wall all around;
and as this wall goes up into the sky day by day
I lose sight of my true being in its dark shadow.

제가 저의 이름으로 에워싸 버린
그 분이 이 토굴 감옥 속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그 토굴의 사망을 담으로 쌓기에 바쁘고,
날이 갈수록 이 담이 하늘을 향해 높아짐에 따라
그 담의 어두운 그늘에 가려
저는 진정한 저의 모습을 보는 법을 잃어갑니다.

I take pride in this great wall,
and I plaster it with dust and sand
lest a least hole should be left in this name;
and for all the care I take I lose sight of my true being.

저는 이 거대한 담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랑스런 이름을 걸고
그 담에 조그마한 틈새도 없게 하기 위해 흙가루와 모래로 바릅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온 정성을 쏟은 덕에
저는 진정한 저의 모습을 보는 법을 잃고 맙니다.

30

I came out alone on my way to my tryst.
But who is this that follows me in the silent dark?

저는 저만의 보금자리를 찾아 홀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고요한 어둠 속에서 저를 따라오는 이는 누구입니까?

I move aside to avoid his presence but I escape him not.

저는 그 존재를 회피하기 위해 비켜서지만
그로부터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He makes the dust rise from the earth with his swagger;
he adds his loud voice to every word that I utter.

그의 활보는 땅으로부터 흙먼지가 일게 하고,
그는 큰소리로 내가 중얼거리는 모든 말에 대꾸합니다.

He is my own little self, my lord, he knows no shame;
but I am ashamed to come to thy door in his company.

오 저를 굶어살피시는 주님, 그는 바로
부끄러움이라고는 전혀 모르는 저의 왜소한 자아(自我)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그와 더불어 주님의 문에 간 것이 부끄럽습니다.

31

'Prisoner, tell me, who was it that bound you?'

隤价括結 123, 내게 말하라, 그대를 가둔 것이 누구였는지를? 〇

'It was my master,' said the prisoner.

'I thought I could outdo everybody in the world in wealth and power,
and I amassed in my own treasure-house the money due to my king.

When sleep overcame me I lay upon the bed that was for my lord,
and on waking up I found I was a prisoner in my own treasure-house.'

그러자 죄수가 대답했습니다.

隤倖 123 가둔 것은 저의 주인이었습니다.123

隤駭 123 부와 권력에 있어서는 이 세상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으리라 생각했고,
그래서 저는 제가 모시는 왕에게 돌려야 할 돈을 제 보물창고에 쌓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잠이 쏟아지면 저의 주인인 부와 권력을 위해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깨어보니 저는 제 자신 보물창고에 갇힌 죄수의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〇

'Prisoner, tell me, who was it that wrought this unbreakable chain?'

隤价括結 123, 내게 말하라, 이 끊을 수 없는 쇠사슬을 누가 만들었는가를? 〇

'It was I,' said the prisoner,

'who forged this chain very carefully.

I thought my invincible power would hold the world
captive leaving me in a freedom undisturbed.
Thus night and day I worked at the chain
with huge fires and cruel hard strokes.
When at last the work was done
and the links were complete and unbreakable,
I found that it held me in its grip.'

그러자 죄수가 대답했습니다.

醜陋癖 124 만든 자는 바로 제 자신입니다.

제가 이 쇠사슬을 아주 정성을 들여 버려서 만든 것입니다.

저는 제 불굴의 힘으로 이 세상을 움켜질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힘이면 제가 노예의 상태에서 벗어나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큰 불을 피우고

몹시 힘들게 두드려서 이 쇠사슬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일을 끝마치고 보니

그 사슬이 너무 완벽하게 끊을 수 없게 이어져 있었고

그때서야 제가 그 사슬이 저를 단단히 묶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32

By all means they try to hold me secure
who love me in this world.

But it is otherwise with thy love which is greater than theirs,
and thou keepest me free.

온갖 수단으로 저를 편안하게 해주려고 하는 사람은

저를 이 세상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당신께서는 그들의 사랑과는 다른 더욱 더 큰 당신의 사랑으로

저를 자유롭게 놓아두고 지켜주고 계십니다.

Lest I forget them they never venture to leave me alone.

But day passes by after day and thou art not seen.

세상 속에서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제가 그들을 잊을까하여

저를 감히 혼자 내버려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날이 흘러도 당신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If I call not thee in my prayers, if I keep not thee in my heart,

thy love for me still waits for my love.

혹시 제가 기도로 당신을 찾지 않아도
제가 제 마음 속에 당신을 간직하지 않고 있어도
제 사랑을 기다리는 저를 위한 당신의 사랑은 여전합니다.

33

When it was day they came into my house and said,
'We shall only take the smallest room here.'

때가 오자 그들은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궂痢?125 여기서 가장 작은 방을 차지하고 있을 뿐입니다.125

They said, 'We shall help you in the worship of your God
and humbly accept only our own share in his grace';
and then they took their seat in a corner and they sat quiet and meek.

또 그들은 말했습니다.
궂痢?125 그대의 신을 경배함으로써 그대를 돕고,
그 분이 은총을 내리시면 겸허하게 우리 몫만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 그들은 구석자리를 차지하고 앉은 다음
조용하고 얌전하게 앉아있었습니다.

But in the darkness of night

I find they break into my sacred shrine, strong and turbulent,
and snatch with unholy greed the offerings from God's altar.

하지만 밤이 오자 나는 그들이 맹렬하고 난폭하게
나의 성스러운 사원의 문을 부수고 들어와
내가 신의 제단에 올린 제물들을 게걸스럽게 강탈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34

Let only that little be left of me
whereby I may name thee my all.

당신을 저의 전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저라는 존재는 아주 조금만 남게 하소서

Let only that little be left of my will
whereby I may feel thee on every side,

and come to thee in everything,
and offer to thee my love every moment.

모든 곳에서 제가 당신을 느낄 수 있도록
약간의 제 의지는 남겨 주소서.
제가 모든 일을 당신께 맡기게 하시고
매 순간 제 사랑을 당신께 바칠 수 있게 하소서.

Let only that little be left of me
whereby I may never hide thee.

그리고 저에게는 제가 절대로 당신을 가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주 작은 부분만을 제 몫으로 남겨주소서.

Let only that little of my fetters be left
whereby I am bound with thy will,
and thy purpose is carried out in my life--and that is the fetter of thy love.

제가 당신의 의지를 받들 수 있도록
제 족쇄를 아주 작은 부분만이 남게 해주소서.
당신께서 제게 부여한
당신의 목적이 제 생명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것이 바로 당신의 사랑의 족쇄입니다.

35

Where the mind is without fear and the head is held high;
마음에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고 눈은 높은 곳을 향할 수 있는 곳

Where knowledge is free;
자유로운 이해가 있는 곳

Where the world has not been broken up into fragments
by narrow domestic walls;
좁은 국경의 장벽으로 세상이 조각조각 나누어지지 않은 곳

Where words come out from the depth of truth;
진리의 깊은 곳에서 말씀이 나오는 곳

Where tireless striving stretches its arms towards perfection;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이 완성을 향해 그 팔을 벌리는 곳

Where the clear stream of reason has not lost its way
into the dreary desert sand of dead habit;

이성의 맑은 물줄기가 사문화(死文化)된 관습이란 메마른 황야에서
길을 잃지 않는 곳

Where the mind is led forward by thee
into ever-widening thought and action--

그곳은 마음이 너의 손에 이끌려
늘 열린 생각과 행동으로 나아가는 곳

Into that heaven of freedom, my Father, let my country awake.

저의 주님
그런 자유의 천국 안에서 제 조국이 깨어나게 하소서.

36

This is my prayer to thee, my lord
--strike, strike at the root of penury in my heart.

저의 주님이시여, 이것이 제가 당신께 드리는 기도이오니
제 마음 속 빈곤의 뿌리를 내리치고 또 내려쳐 주소서.

Give me the strength
lightly to bear my joys and sorrows.

기쁨과 슬픔을 가볍게 참고 견딜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Give me the strength
to make my love fruitful in service.

섬김으로써 제 사랑이 결실을 맺게 하는 용기를 주소서

Give me the strength
never to disown the poor or bend my knees before insolent might.

결코 가난을 거부하지 않고
오만한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용기를 주소서

Give me the strength

to raise my mind high above daily trifles.

제 마음이 일상의 사소한 일들을 넘어
높은 곳을 향해 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And give me the strength

to surrender my strength to thy will with love.

그리고 제가 사랑으로
당신의 의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37

I thought that my voyage had come to its end
at the last limit of my power,--that the path before me was closed,
that provisions were exhausted and the time come
to take shelter in a silent obscurity.

저는 제 능력이 마지막 한계에 도달해
제 여행이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가는 곳마다 제 앞길이 막혔고,
준비한 양식은 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밀하고 조용한 곳에 은신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But I find that thy will knows no end in me.

And when old words die out on the tongue,
new melodies break forth from the heart;
and where the old tracks are lost,
new country is revealed with its wonders.

하지만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의지는 이미
제 속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낡은 언어들 이 입에서 사라지자
새로운 선율이 가슴으로부터 솟구쳐 나옵니다.
그리고 옛 자취들이 사라진 곳에
새로운 나라가 경이로움과 함께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38

That I want thee, only thee--let my heart repeat without end.
All desires that distract me,

day and night, are false and empty to the core.

저는 당신을 원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제 마음이 이 말을 끝없이 반복하게 하옵소서.

밤낮으로 저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쏠리게 하는 모든 욕망들은
핵심에서 벗어난 헛되고 공허한 것들일 뿐입니다.

As the night keeps hidden in its gloom the petition for light,
even thus in the depth of my unconsciousness rings the cry
--'I want thee, only thee'.

그것은 마치 그 자신의 어둠 속에

빛의 기도를 감추고 있는 밤과 같아서,

비록 무의식의 심연 속에서 울리는 외침일지라도

결국은 이런 외침인 것입니다.

꺄꺄 129 당신을 원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As the storm still seeks its end in peace
when it strikes against peace with all its might,
even thus my rebellion strikes against thy love
and still its cry is --'I want thee, only thee'.

그것은 마치 폭풍이 자신이 가진 모든 강력한 힘을 다해
고요를 깨트릴 때도,

여전히 폭풍은 고요함이란 종착역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듯이

비록 제가 반란을 일으켜 당신의 사랑에 저항하고 있다하더라도

결국은 여전히 이런 외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꺄꺄 129 당신을 원합니다, 오직 당신만을.129

39

When the heart is hard and parched up,
come upon me with a shower of mercy.

제 마음이 힘들고 메마를 때면 자비의 비를 내려주소서.

When grace is lost from life, come with a burst of song.

삶에서 은총이 사라졌을 때면 노래 다발과 함께 오소서.

When tumultuous work raises its din

on all sides shutting me out from beyond,
come to me, my lord of silence, with thy peace and rest.

저 너머로부터 소란스러운 일이 생겨
각자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제가 갈 모든 길을 가로막으면
저의 주님이신 침묵의 주님이시여,
당신의 평화와 안식과 함께 제게 왕립하소서.

When my beggarly heart sits crouched, shut up in a corner,
break open the door, my king, and come with the ceremony of a king.

거지와 같은 제 마음이 구석에 갇혀 웅크리고 앉거든,
제가 모시는 임금님이시여, 문을 부숴 쫓히고 왕의 예로 왕립하소서.

When desire blinds the mind with delusion and dust,
O thou holy one, thou wakeful, come with thy light and thy thunder.

욕망이 망상과 티끌로 마음의 눈을 가리면,
오 거룩하신 분이시여, 항상 깨어있는 당신이시여,
당신의 빛과 당신의 우레와 함께 왕립하소서.

40

The rain has held back for days and days,
my God, in my arid heart.

The horizon is fiercely naked--not the thinnest cover of a soft cloud,
not the vaguest hint of a distant cool shower.

오 저의 하느님이시여,
메마른 제 가슴속에 비가 내리지 않은지 여러 날입니다.
지평선은 완전히 험벗었고
성기고 연한 구름 조각 하나도 없으며
서늘한 소나기는 내릴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Send thy angry storm, dark with death, if it is thy wish,
and with lashes of lightning startle the sky from end to end.

만일 이것이 당신이 원하시는 바라면,
죽음처럼 캄캄한 당신의 성난 폭풍우를 주시고,
번개의 채찍을 하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휘둘러
온 천지를 놀라게 하옵소서.

But call back, my lord, call back this pervading silent heat,
still and keen and cruel, burning the heart with dire despair.

그러나 저의 주님이시여 불러들여 주소서.
아직은 살을 에는 듯하고 잔혹하며,
비참한 절망으로 가슴을 태우는,
온 천지를 가득 채운 이 고요한 열기를 불러들여 주소서.

Let the cloud of grace bend low from above
like the tearful look of the mother on the day of the father's wrath.

아버지께서 노하신 날 눈물어리는 어머니의 모습처럼
위로부터 아래로 은총의 구름이 굽어살피게 하옵소서.

41

Where dost thou stand behind them all,
my lover, hiding thyself in the shadows?
They push thee and pass thee by on the dusty road,
taking thee for naught.
I wait here weary hours spreading my offerings for thee,
while passers-by come and take my flowers,
one by one, and my basket is nearly empty.

내 사랑하는 님이시여, 그대는
당신 자신을 그림자 속에 숨긴 채
모든 사람들의 뒤 어딘가에 서 계신가요?
사람들은 님을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고
먼지 쌓인 길 위를 님을 밀치며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저는 님께 드릴 선물을 펼쳐놓은 채
여기서 님을 기다리며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지나가던 사람들이 와서는
당신께 드릴 내 꽃들을 하나 둘 씩 가져가 버려
이제 저의 바구니는 거의 비고 말았습니다.

The morning time is past, and the noon.
In the shade of evening my eyes are drowsy with sleep.
Men going home glance at me and smile and fill me with shame.
I sit like a beggar maid, drawing my skirt over my face,
and when they ask me, what it is I want,

I drop my eyes and answer them not.

아침 시간도 한낮도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어스름을 맞아 나른한 제 눈에는 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사람들이 저를 흘끗 바라보고는 웃습니다.

그러자 저는 너무나 부끄러워

거지 소녀처럼 앉아 치마를 끌어올려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나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Oh, how, indeed, could I tell them that for thee I wait,

and that thou hast promised to come.

How could I utter for shame that I keep for my dowry this poverty.

Ah, I hug this pride in the secret of my heart.

오, 어떻게 그들에게 당신을 위해

제가 기다리고 있다고 진정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께서 오시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것을.

부끄러워 제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가난이 당신의 신부(新婦)인 저의 지참금이라고.

오, 저는 가난이라는 이 긍지를

제 가슴 속 비밀로 꼭 껴안고 있을 뿐입니다.

I sit on the grass and gaze upon the sky

and dream of the sudden splendour of thy coming

--all the lights ablaze, golden pennons flying over thy car,

and they at the roadside standing agape,

when they see thee come down from thy seat to raise me from the dust,

and set at thy side this ragged beggar girl a-tremble with shame and pride,

like a creeper in a summer breeze.

저는 풀밭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꿈을 꾸니다.

갑자기 님께서 타는 듯한 무수한 빛과 함께

당신의 수레 위에 황금빛 깃발들을 나부끼며 찬란하게 나타나시더니

당신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여름산들바람에 흔들리는 덩굴식물처럼

부끄러움과 긍지로 떨고 있는 이 남루한 거지 소녀를

흙먼지로부터 들어 올려 당신의 보좌 옆에 앉히니

길가에 서 있던 사람들은 놀라서 입을 벌린 채

멍하니 바라만 보는 그런 꿈 말입니다.

But time glides on and still no sound of the wheels of thy chariot.
Many a procession passes
by with noise and shouts and glamour of glory.
Is it only thou who wouldst stand in the shadow silent
and behind them all?
And only I who would wait and weep
and wear out my heart in vain longing?

하지만 세월이 물같이 흘러도
아직 당신의 수레바퀴 소리는 전혀 들리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행렬이 명성을 뿜내며 거창하고 소란스럽게 지나갑니다.
그런데도 어찌하여 오직 당신만은 모든 사람들의 뒤에 숨어
그림자 속에 홀로 고요히 서 있으시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오직 저만을 헛된 그리움 속에서 애간장을 태우며
울며 기다리게 하시나이까?

42

Early in the day it was whispered that we should sail in a boat,
only thou and I, and never a soul in the world
would know of this our pilgrimage to no country and to no end.

아침 일찍 우리는 작은 배를 타고
여행을 떠나야만 한다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직 그대와 나 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영혼도
끝없고 정처 없는 우리의 순례 여행을 알지 못합니다.

In that shoreless ocean,
at thy silently listening smile my songs would swell in melodies,
free as waves, free from all bondage of words.

하지만 그 끝없는 대양 속에
그대가 조용히 미소지으며 내 노래에 귀를 기울인다면
내 노래들은 모든 말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워져
물결처럼 자유롭게 선을 속에 널리 울려 퍼질 것입니다.

Is the time not come yet? Are there works still to do?
Lo, the evening has come down upon the shore
and in the fading light the seabirds come flying to their nests.

그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나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남았나요?
보세요, 어느덧 해변에는 저녁이 와서 어둠이 내리고
그 스러지는 빛 속에 바닷새들은 자신의 둥지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Who knows when the chains will be off, and the boat,
like the last glimmer of sunset, vanish into the night?

그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저무는 석양의 마지막 한 줄기 가물대는 빛처럼
이 작은 배가 사슬에서 풀려
언제 밤 속으로 사라지게 될지를?

43

The day was when I did not keep myself in readiness for thee;
and entering my heart unbidden
even as one of the common crowd, unknown to me,
my king, thou didst press the signet of eternity
upon many a fleeting moment of my life.

지금까지의 날들은
당신께서 불현듯 제 가슴속으로 들어오셨기에
미처 제가 당신을 위한 준비를 마쳐놓지 못한 날들이었습니다.
저의 왕이시여, 심지어 당신께서는
제가 알지도 못하는 평범한 무리들 중의 한 사람처럼 오셔서
나는 듯이 지나가는 제 삶의 수많은 순간들 위에
영원의 각인(刻印)을 새겨 놓기도 하셨습니다.

And today when by chance I light upon them and see thy signature,
I find they have lain scattered in the dust
mixed with the memory of joys and sorrows of my trivial days forgotten.
그리고 오늘 저는 그것들과 우연히 마주쳐 당신의 서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들이 제가 이미 잊어버린 하찮은 슬픔의 날들과
행복한 추억들과 함께 뒤섞인 채 먼지 속에 흩어져 나뒹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Thou didst not turn in contempt from my childish play among dust,
and the steps that I heard in my playroom are the same
that are echoing from star to star.

그러나 당신께서는 그 먼지투성이의 저의 유치한 유희를 보시고도

태도를 바꾸시어 저를 경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제가 저의 놀이 방에서 들은 당신의 발자국 소리는
이 별에서 저 별로 울려 퍼지는 메아리와 똑 같았습니다.

44

This is my delight, thus to wait
and watch at the wayside where shadow chases light
and the rain comes in the wake of the summer.

길가에 서서 그림자가 빛을 뒤쫓고
여름이 깨어나는 속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Messengers, with tidings from unknown skies,
greet me and speed along the road.

My heart is glad within,
and the breath of the passing breeze is sweet.

알 수 없는 하늘로부터 조수(潮水)처럼 전령사들이 밀려와서
제게 소식을 전하고는 서둘러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러면 저의 마음은 안으로 기쁨이 넘치고
스쳐 지나가는 산들바람의 숨결은 향기롭습니다.

From dawn till dusk I sit here before my door,
and I know that of a sudden the happy moment
will arrive when I shall see.

동이 트는 새벽부터 어둠이 내리는 황혼까지
저는 여기 제 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득 행복한 그 순간이 오면 제가 그것을 보게 되리라는 것을.

In the meanwhile I smile and I sing all alone.

In the meanwhile the air is filling with the perfume of promise.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저는 미소지으며 홀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는 동안 대기(大氣)는 약속의 향기로 가득하고요.

45

Have you not heard his silent steps?

He comes, comes, ever comes.

당신은 그분의 조용한 발자국 소리를 듣지 못하셨는지요?

그 분이 오고 계십니다. 오시고 계십니다.

항상 오고 계십니다.

Every moment and every age,
every day and every night he comes,
comes, ever comes.

모든 순간, 모든 시대

매일 낮 매일 밤을 그분은 오시고 계십니다.

오고 계십니다. 예나 다름없이 늘 오고 계십니다.

Many a song have I sung in many a mood of mind,
but all their notes have always proclaimed,
'He comes, comes, ever comes.'

나는 분위기에 따라 내 마음가는 대로 수많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래의 가사는 늘

꺆 136 분이 오고 계십니다. 항상 그 분이 오고 계십니다.136

라고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In the fragrant days of sunny April
through the forest path
he comes, comes, ever comes.

해맑은 4 월의 향기로운 날이면

그 분은 숲길을 따라 오십니다.

그 분이 오십니다. 예나 다름없이.

In the rainy gloom of July nights
on the thundering chariot of clouds
he comes, comes, ever comes.

비를 머금은 먹구름으로 어두워진 7 월의 밤에도

천둥치는 구름들의 전차를 타고 그 분은 오십니다.

오고 계십니다. 언제나 오고 계십니다.

In sorrow after sorrow
it is his steps that press upon my heart,

and it is the golden touch of his feet
that makes my joy to shine.

슬픔에 슬픔이 이어질 때
내 가슴을 짓누르는 것은 그 분의 발자국 소리,
그리고 나의 기쁨을 환하게 밝혀주는 것은
그 분의 걸음마다에서 느껴지는 황금빛 감촉.

46

I know not from what distant time
thou art ever coming nearer to meet me.
Thy sun and stars can never keep thee hidden from me for aye.

저는 모른답니다.
당신께서 얼마나 머나 먼 옛적부터
저를 만나기 위해 늘 더 가까이 다가오고 계셨는지를.
(하지만 제가 아는 것은) 님의 해와 별들도
결코 저로부터 영원히 당신을 숨겨 둘 수는 없다는 것이랍니다.

In many a morning and eve thy footsteps have been heard
and thy messenger has come
within my heart and called me in secret.

수많은 아침과 저녁
저는 당신의 발자국 소리를 들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전령사는 제 마음 속에 들어와
저를 은밀히 불러왔습니다.

I know not only why today my life is all astir,
and a feeling of tremulous joy is passing through my heart.

저는 오늘 제 삶 전체가 왜 이렇게 두근거리는지,
그리고 즐거운 떨림의 느낌이 제 마음을 스치는지 전혀 모릅니다.

It is as if the time were come to wind up my work,
and I feel in the air a faint smell of thy sweet presence.

이런 느낌은
마치 저의 일을 모두 마무리지을 때가 온 것 같은 기분이어서
저는 대기 속에서 달콤한 당신의 존재의 향기를

어렴풋이 느끼고 있습니다.

47

The night is nearly spent waiting for him in vain.

I fear lest in the morning

he suddenly come to my door

when I have fallen asleep wearied out.

Oh friends, leave the way open to him--forbid him not.

헛되이 당신을 기다리다가

저는 밤을 거의 다 지새우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아침에 지쳐서 곤히 잠들었을 때

당신께서 갑자기 저의 문에 오실까 하여 걱정스럽습니다.

오 벗들이여, 그 분이 오실 길을 비워두어,

그 분을 막지 말기를.

If the sounds of his steps does not wake me,

do not try to rouse me, I pray.

I wish not to be called from my sleep

by the clamorous choir of birds,

by the riot of wind at the festival of morning light.

Let me sleep undisturbed

even if my lord comes of a sudden to my door.

혹시 제가 그분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깨어나지 못하더라도

간청하오니, 저를 깨워 일으키려 하지 마소서.

저는 소란스러운 새들의 합창이나

아침 햇살의 향연에 춤을 추는 바람소리에 이끌려

잠을 깨는 것은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하오니 비록 저의 문 앞에 갑자기 오시더라도

제가 평온히 그대로 자도록 내버려두소서.

Ah, my sleep, precious sleep,

which only waits for his touch to vanish.

Ah, my closed eyes that would open

their lids only to the light of his smile

when he stands before me

like a dream emerging from darkness of sleep.

오, 잠이여,

오직 그분의 보이지 않는 손길만을 기다리고 있는,

소중한 내 잠이여.

오, 내 감겨진 눈은

잠의 어둠으로부터 솟아오르는 꿈처럼 그 분이 내 앞에 서 계실 때,

오직 그분의 미소의 빛에 의해서만

번쩍 눈뜨게 할 수 있사오니.

Let him appear before my sight

as the first of all lights and all forms.

The first thrill of joy to my awakened soul

let it come from his glance.

And let my return to myself be immediate return to him.

모든 빛들이나 형상들의 처음처럼

당신께서 제 앞에 모습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깨어난 제 영혼을 향한 첫 기쁨의 감동이

님의 눈길로부터 비롯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참다운 제 자신으로 돌아감이

그대로 당신에게로 돌아감이 되게 하옵소서.

48

The morning sea of silence broke into ripples of bird songs;

and the flowers were all merry by the roadside;

and the wealth of gold was scattered through the rift of the clouds

while we busily went on our way and paid no heed.

고요한 아침 바다는 새들의 노래가 일으키는 파문에 일렁거렸고,

길가의 꽃들이 모두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황금빛 햇살이 구름의 갈라진 틈을 통해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쁘게 길을 가는 데만 정신이 팔려

그 풍성함에 그 어떤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We sang no glad songs nor played;

we went not to the village for barter;

we spoke not a word nor smiled;

we lingered not on the way.

We quickened our pace more and more as the time sped by.

우리는 그 어떤 즐거운 노래도 부르지 않았고
즐거운 놀이도 하지 않았으며,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 마을로 가지도 않았습니니다.
우리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고 미소짓지도 않았으며
길을 가는 도중에 한눈을 팔지도 않았습니니다.
다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빨리
우리의 발걸음을 더욱더 재촉했을 뿐입니다.

The sun rose to the mid sky and doves cooed in the shade.

Withered leaves danced and whirled in the hot air of noon.

The shepherd boy drowsed and dreamed in the shadow of the banyan tree,
and I laid myself down by the water and stretched my tired limbs on the grass.

해가 중천에 떠오르면 비둘기들은 그늘에서 울었고,
시든 잎들은 춤을 추며 한낮의 뜨거운 대기 속으로 빙빙 돌며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양치는 소년이 보리수나무 그늘 밑에서 꾸벅꾸벅 졸며 꿈을 꾸면,
나는 물가에 있는 풀밭에 내 피로해진 다리를 쭉 뻗고 누웠습니다.

My companions laughed at me in scorn;
they held their heads high and hurried on;
they never looked back nor rested;
they vanished in the distant blue haze.

They crossed many meadows and hills,
and passed through strange, far-away countries.

All honour to you, heroic host of the interminable path!

내 동료들은 그런 나를 비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뒤돌아보지도 쉬지도 않고, 고개를 높이 들고 서두르며,
저 멀리 푸른 안개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초원과 언덕을 넘고 낮은 곳을 지나
아주 머나먼 나라로 갔습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길의 영웅적인 주인인 그대들에게
영광이 있기를!

Mockery and reproach pricked me to rise, but found no response in me.

I gave myself up for lost in the depth of a glad humiliation
--in the shadow of a dim delight.

이제 그 어떤 조롱과 비난으로 나를 찢어 일으켜 세우려한다 해도
내게서는 아무런 응답도 찾지 못하리라.
나는 기꺼이 희미한 기쁨의 그림자인
기쁜 치욕의 심연 속으로 내 자신을 던져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을 선택했기에.

The repose of the sun-embroidered green gloom
slowly spread over my heart.
I forgot for what I had travelled,
and I surrendered my mind
without struggle to the maze of shadows and songs.

태양을 수놓은 풀빛 어스름의 평화로움이
천천히 내 가슴에 번져오고 있습니다.
나는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여행을 해왔는지를.
그리고 망설임 없이 어둠과 노래들의 미로에
내 마음을 내맡겨 버렸습니다.

At last, when I woke from my slumber and opened my eyes,
I saw thee standing by me, flooding my sleep with thy smile.
How I had feared that the path was long and wearisome,
and the struggle to reach thee was hard!

마침내, 나는 보았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잠으로부터 깨어나 눈을 떴을 때,
미소지으며 내 잠을 가득 채우신,
님께서 내 곁에 서 계시는 것을.
아, 그동안 난 얼마나 이 길이 멀고도 지루해 하고
두려워해 왔던가요?
님께 이르고자 하는 이 싸움을 힘들어하며!

49

You came down from your throne and stood at my cottage door.
I was singing all alone in a corner, and the melody caught your ear.
You came down and stood at my cottage door.

님께서는 당신의 옥좌에서 내려오셔서 제 오두막집 앞에 서 계십니다.
전 구석에서 늘 혼자서 노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선율이 당신의 귀에까지 올려
넘겨서는 옥좌에서 내려오셔서 제 오두막 앞에서 계십니다.

Masters are many in your hall, and songs are sung there at all hours.
But the simple carol of this novice struck at your love.
One plaintive little strain mingled with the great music of the world,
and with a flower for a prize you came down and stopped at my cottage door.

당신의 현관에는 늘 수많은 지혜로운 자들로 넘치기에,
그곳에는 언제나 노래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풋내기의 소박한 찬송가가 당신의 사랑에 닿아,
보잘것없고 가련한 저의 한 가닥 선율이 세상의 위대한 음악과 섞이자,
넘겨서는 상으로 줄 한 송이 꽃을 들고 내려와,
제 사립문 앞에 멈추셨습니다.

50

I had gone a-begging from door to door in the village path,
when thy golden chariot appeared in the distance like a gorgeous dream
and I wondered who was this King of all kings!

님의 황금 마차가 마치 장엄한 꿈처럼 저 멀리서 어렴풋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저는 누가 왕들 중의 진정한 왕인지 잘 몰랐고,
마을에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구걸을 하며 다니던 중이었습니다.

My hopes rose high and me thought my evil days were at an end,
and I stood waiting for alms to be given unasked
and for wealth scattered on all sides in the dust.

(그러다가 님의 황금마차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는)
저는 큰 희망에 부풀어 마침내 저의 불운한 날들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청하지 않아도 넘겨서 자비를 베풀어주실 것이고
부가 흙먼지 속에 온 사방으로 쏟아져 내리리라 생각하며
마냥 기다리고만 서있었습니다.

The chariot stopped where I stood.
Thy glance fell on me and thou camest down with a smile.
I felt that the luck of my life had come at last.
Then of a sudden thou didst hold out thy right hand and say
'What hast thou to give to me?'

마침내 제가 서있는 곳에 님의 마차가 와서 멈추어 섰습니다.
님께서는 눈길이 제게 닿자
미소를 지으시며 수레에서 내려 다가오셨습니다.
저는 마침내 제 삶에 행운의 순간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순간
님께서는 당신의 오른 손을 내밀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罽榴遊 143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Ah, what a kingly jest was it to open thy palm to a beggar to beg!
I was confused and stood undecided, and then from my wallet
I slowly took out the least little grain of corn and gave it to thee.
아,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님께서 거지에게 손을 벌려 구걸을 청하시다니!
이 무슨 왕답지 않은 농담이시란 말입니까?
저는 너무나 혼란스러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다가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서 제 자루에서 밀알 약간을 꺼내
그것도 아주 조금만 당신께 드렸습니다.

But how great my surprise
when at the day's end I emptied my bag on the floor
to find a least little gram of gold among the poor heap.
I bitterly wept and wished that I had
had the heart to give thee my all.
하지만 날이 저물어 집에 돌아온 제가
저의 텅빈 자루를 마루바닥에 풀어놓자
제 초라한 배낭에서 나온 물건 더미들 속에서
(제가 님께 드렸던 그 만큼)
아주 작은 황금 알갱이가 들어있는 것을 보았을 때
전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저는 비통하게 울었습니다.
제가 만일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님께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뒤늦게 후회하면서.

We thought that the last guest had arrived for the night
and the doors in the village were all shut.

Only some said the king was to come.

We laughed and said 'No, it cannot be!'

밤이 깊었고, 우리의 하루 일과도 모두 끝났습니다.

우리는 저녁에 오실 마지막 손님도 이미 도착했고

마을의 모든 문들도 모두 닫혔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왕께서 오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에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鰲淵 144 리가 있나.,

It seemed there were knocks at the door
and we said it was nothing but the wind.

We put out the lamps and lay down to sleep.

Only some said, 'It is the messenger!'

We laughed and said 'No, it must be the wind!'

어디선가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자,

우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鰲柳 144 스치는 바람소리 일 뿐이야.,

그리고는 호롱불을 끄고 잠을 자려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鰲藍 144 전령이 왔다.,

그러나 우리는 웃으며 그 말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鰲鬚 144, 바람소리 일 뿐이라니까.,

There came a sound in the dead of the night.

We sleepily thought it was the distant thunder.

The earth shook, the walls rocked, and it troubled us in our sleep.

Only some said it was the sound of wheels.

We said in a drowsy murmur,

'No, it must be the rumbling of clouds!'

그런데 칠혹같이 어두운 밤 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우리는 잠에 취해 그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소리 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곧이어 땅이 진동하고 벽들이 흔들리면서 우리의 잠을 방해했습니다.

그러자 누군가가 이 소리는 마차바퀴소리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우리는 꾸벅꾸벅 졸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鰲鬚 144, 저 소리는 틀림없이 먹구름이 내는 천둥소리야.,

The night was still dark when the drum sounded.

The voice came 'Wake up! delay not!'

We pressed our hands on our hearts and shuddered with fear.

Some said, 'Lo, there is the king's flag!'

We stood up on our feet and cried 'There is no time for delay!'

북소리가 울렸을 때도 밖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靑雋爭訟 145! 지체하지 말고!,

그 말에 우리는 두려움에 떨며

놀란 가슴을 진정하느라 손으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靑雋 145, 저기 왕의 깃발이다!,

그때서야 우리는 맨발로 벌떡 일어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靑雋선 145 시간이 없구나!,

The king has come--but where are lights, where are wreaths?

Where is the throne to seat him? Oh, shame! Oh utter shame!

Where is the hall, the decorations?

Someone has said, 'Vain is this cry! Greet him with empty hands,

lead him into thy rooms all bare!'

왕께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등불은 어디에 있고, 꽃다발은 어디에 있습니까?

왕께서 앉으실 자리는 어디에 마련되어 있습니까?

아, 부끄러워라. 아, 너무나도 부끄러워라.

왕을 모실 방은 어디에 있으며, 장식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靑訣 145 울어도 소용없다! 그러니 너희는 빈손으로 너희의 왕을 영접하라.

아무것도 없는 그대들의 텅 빈 방으로 그 분을 모셔라!†

Open the doors, let the conch-shells be sounded!

in the depth of the night has come the king of our dark, dreary house.

The thunder roars in the sky.

The darkness shudders with lightning.

Bring out thy tattered piece of mat and spread it in the courtyard.

With the storm has come of a sudden our king of the fearful night.

문들을 열어라! 소라나팔 소리를 울려라!

밤의 심연 속에서 우리의 어둡고 황량한 집의 왕께서 오셨노라.

하늘에서는 천둥이 으르렁거리고, 어둡은 번개에 몸을 떨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다 떨어진 녀마 조각이라도 꺼내와서 뜰에 자리를 펴라.

폭풍과 함께 우리의 두려운 밤의 왕께서 불시에 오셨노라.

52

I thought I should ask of thee

--but I dared not-- the rose wreath thou hadst on thy neck.

Thus I waited for the morning, when thou didst depart,

to find a few fragments on the bed.

And like a beggar I searched in the dawn only for a stray petal or two.

저는 님께서 목에 걸고 계시는

장미 화환을 제게 달라고 청해 볼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그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이 되어 님께서 떠나시고 나면

혹시 자리에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찾을 수 있을까하여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동이 트자 거지처럼 헤맨 끝에

겨우 흩어져있던 꽃잎 몇 장을 찾아서 주었습니다.

Ah me, what is it I find? What token left of thy love?

It is no flower, no spices, no vase of perfumed water.

It is thy mighty sword, flashing as a flame, heavy as a bolt of thunder.

The young light of morning comes through the window

and spreads itself upon thy bed.

The morning bird twitters and asks,

'Woman, what hast thou got?'

No, it is no flower, nor spices, nor vase of perfumed water

--it is thy dreadful sword.

오, 제가 찾은 이것이 무엇입니까?

제게 남겨진 님의 사랑의 증표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 어떤 꽃도 향료도 향수를 담은 병도 아닌,

느닷없는 천둥처럼 육중하고 불꽃처럼 번쩍이는 님의 강한 검이 아닙니까.

싱그러운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흘러들어

님께서 누우셨던 침대 위에 자신의 나래를 펼치고,

아침 새들은 지저귀며 묻습니다.

喞(ㄴ)括結 146, 그대는 뭔가를 얻었나요?,

아니오, 제가 얻은 것은 그 어떤 꽃도 향료도 향수를 담은 병도 아닌,

다만 님의 두려운 검인걸요.

I sit and muse in wonder, what gift is this of thine.

I can find no place to hide it.

I am ashamed to wear it, frail as I am,

and it hurts me when I press it to my bosom.

Yet shall I bear in my heart

this honour of the burden of pain, this gift of thine.

저는 제게 이런 선물을 주신 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앉아서 명상에 잠겼습니다.

저는 님께서 주신 이 칼을 감출 곳을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저는 님이 주신 칼을 차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이 칼은 제가 제 가슴을 향하게 하여 누르면

절 다치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이 고통스러운 짐의 영광을, 제 가슴에 품은 채 살아갈 것입니다.

From now there shall be no fear left for me in this world,

and thou shalt be victorious in all my strife.

Thou hast left death for my companion and I shall crown him with my life.

Thy sword is with me to cut asunder my bonds,

and there shall be no fear left for me in the world.

이제부터 제게는 저를 위해 이 세상에 남겨진 그 어떤 두려움도 없겠지요.

그리고 님께서는 저의 모든 투쟁 속에서 승리를 거두시게 되겠지요.

님께서 저를 위해 저의 동반자로 죽음을 남겨주셨으니

저는 제 목숨을 바쳐 저의 동반자인 죽음을 왕위에 앉힐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모든 속박을 토막 낼 님의 칼을 지니고 있으니

저에겐 저를 위해 남겨진 이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도 없겠지요.

From now I leave off all petty decorations.

Lord of my heart,

no more shall there be for me waiting and weeping in corners,

no more coyness and sweetness of demeanour.

Thou hast given me thy sword for adornment.

No more doll's decorations for me!

전 이제부터 온갖 하찮은 꾸밈과 작별할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제 마음의 주님이시여,

이제 더 이상 제가 기다리거나 모퉁이에서 울도록 예비하지 마옵소서.
더 이상 절 수줍게도 행동을 꾸미게 하지도 마옵소서
님께서 절 꾸미기 위해 당신의 칼을 제게 주셨으니
저에겐 이제 더 이상 인형장식들은 필요하지 않나이다.

53

Beautiful is thy wristlet, decked with stars
and cunningly wrought in myriad-coloured jewels.
But more beautiful to me thy sword with its curve of lightning
like the outspread wings of the divine bird of Vishnu,
perfectly poised in the angry red light of the sunset.

별들과 무수한 색색의 보석들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님의 팔찌는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제게 더욱 더 아름다운 것은
분노한 붉은 황혼 빛 속에서
마치 신성한 비슈누 신(神)의 새가 날개를 펼친 듯
완벽하게 균형을 이룬
우아한 번갯불의 곡선을 가진 당신의 검(劍)입니다.

It quivers like the one last response of life
in ecstasy of pain at the final stroke of death;
it shines like the pure flame of being
burning up earthly sense with one fierce flash.

그런 당신의 검은
마치 최후의 일격을 당한 생명이
죽어가며 마지막 고통의 황홀경 속에서
전율하고 있는 것처럼 부르르 떨고있습니다.
그리고 그 검은 마치 무시무시한 섬광으로
순식간에 모든 지상의 감각들을 태워버리는
순수한 존재의 불꽃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Beautiful is thy wristlet, decked with starry gems;
but thy sword, O lord of thunder, is wrought with uttermost beauty,
terrible to behold or think of.

무수히 반짝이는 별들로 꾸며진 님의 팔찌는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천둥의 주님이시여,

바라보기도 두렵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조차 두려운,
지극한 아름다움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당신의 겹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54

I asked nothing from thee; I uttered not my name to thine ear.
When thou took'st thy leave I stood silent.

I was alone by the well where the shadow of the tree fell aslant,
and the women had gone home
with their brown earthen pitchers full to the brim.

They called me and shouted,

'Come with us, the morning is wearing on to noon.'

But I languidly lingered awhile lost in the midst of vague musings.

저는 넘으로부터 아무 것도 얻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저의 이름조차 님의 귀 앞에 끄집어내지 않았습니다

단지 님께서 작별을 고하실 때면 조용히 서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비스듬히 나무 그늘이 지는 우물가에 혼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황토로 만든 토기항아리에 넘치도록 물을 채워

이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인들은 큰소리로 내게 이렇게 청했습니다.

썩痺?149 함께 가요. 이미 아침나절이 지나고 한낮이 다되었으니..

하지만 저는 막연한 생각들에 잠긴 채

힘없이 한동안 머뭇거리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I heard not thy steps as thou camest.

Thine eyes were sad when they fell on me;

thy voice was tired as thou spokest low--

'Ah, I am a thirsty traveller.'

I started up from my day-dreams and

poured water from my jar on thy joined palms.

The leaves rustled overhead; the cuckoo sang from the unseen dark,
and perfume of 靛 abla149 flowers came from the bend of the road.

님께서 오셨을 때 진 님의 그 발자국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눈길이 머문 당신의 눈은 슬펐습니다.

그리곤 피곤한 목소리로 이렇게 나지막이 말씀하셨지요.

썩 149, 나는 목마른 나그네로다..

그 음성에 깜짝 놀라 낮잠에서 깨어난 저는
저의 향아리에서 물을 떠서 당신께서 내미신 양손에 부었습니다.
그 순간 저의 머리 위에서는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고
빼꾸기는 보이지 않는 숲 속 그늘에서 노래했으며
은은한 바블라 꽃향기가 굽이진 길로부터 흘러왔습니다.

I stood speechless with shame when my name thou didst ask.
Indeed, what had I done for thee to keep me in remembrance?
But the memory that I could give water to thee
to allay thy thirst will cling to my heart and enfold it in sweetness.
The morning hour is late, the bird sings in weary notes,
깃 eem150 leaves rustle overhead and I sit and think and think.

남께서 제 이름을 물었을 때
저는 부끄러움에 대답을 못하고 서있었습니다.
진정, 제가 당신을 위해 그 어떠한 일도 한 적이 있었던가요?
당신께서 잘 기억하실 만한 일을 말입니다.
다만 당신의 갈증을 조금이라도 가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하여
당신께 물을 드렸던 기억만이 남아
향기로운 속에서 제 마음을 휘감아 에워싸고 있을 뿐인걸요.
아침나절이 훌쩍 지나버린 이 시간, 새들은 지친 음률로 노래하고
머리 위에서는 齟齬? 나무 잎사귀들이 바스락거립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대로 앉아서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55

Languor is upon your heart and the slumber is still on your eyes.

그대의 마음에는 권태가 서려있고,
그대의 눈에는 아직도 졸음이 여전하답니다.

Has not the word come to you
that the flower is reigning in splendour among thorns?

Wake, oh awaken! let not the time pass in vain!

그대에게는 저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나요?

가시나무들 사이에

꽃들이 피어 온통 찬란하게 자리잡았다는 소식 말입니다.

일어나세요, 오 제발 깨어나세요!

이렇게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At the end of the stony path,
in the country of virgin solitude,
my friend is sitting all alone. Deceive him not.
Wake, oh awaken!

때묻지 않은 쓸쓸한 고장, 돌투성이의 길 끝에,
우리의 친구인 님은 늘 (우리를 기다리며) 홀로 앉아 있습니다.
님을 실망시키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오 제발 깨어나세요!

What if the sky pants and trembles
with the heat of the midday sun
--what if the burning sand spreads its mantle of thirst--

한낮의 태양열로 저 하늘이 숨차하며 부르르 떠들 어찌하며
열기로 달구어진 모래가 자신의 갈증의 외투를 펼쳐 놓은들 어떨까요.

Is there no joy in the deep of your heart?
At every footfall of yours,
will not the harp of the road break out in sweet music of pain?

그대 마음 깊은 곳에
아주 작은 기쁨하나라도 아직 남아있어 (님에게로 간다면),
그대가 내딛는 발걸음 소리 하나 하나는
감미로운 고통의 음악을 뚫고 울려 퍼지는 길의 선율이 될 것을.

56

Thus it is that thy joy in me is so full.
Thus it is that thou hast come down to me.
O thou lord of all heavens,
where would be thy love if I were not?

당신의 기쁨이
이토록 온통 제 마음에 가득 차게 하시고,
이렇게 제게로 내려 오셨으니
오, 모든 하늘의 주인이신 님이시여,
만일 제가 없었더라면
님은 이 사랑을 그 어디에 펼치시렵니까?

Thou hast taken me as thy partner of all this wealth.

In my heart is the endless play of thy delight.

In my life thy will is ever taking shape.

남께서는 당신께서 가지신 이 모든 행복의 동반자로 저를 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제 마음은 당신의 끝없는 기쁨의 놀이터가 되고
제 삶은 당신의 의지가 끊임없이 모습을 갖추는 마당이 되게 하셨습니다.

And for this, thou who art the King of kings

hast decked thyself in beauty to captivate my heart.

And for this thy love loses itself in the love of thy lover,

and there art thou seen in the perfect union of two.

그렇게 하심은 왕 중의 왕이신 당신께서는
사로잡은 제 마음을 통해 당신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심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심은 당신께서는 당신의 연인의 사랑 속에서는
당신의 사랑 그 자체를 감추시려 함이며,
당신과 연인의 완전한 결합 속에서 당신을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57

Light, my light, the world-filling light,

the eye-kissing light, heart-sweetening light!

빛이여, 나의 빛이여, 온 누리를 채우고 있는 빛이여,
눈으로 입맞춤하는 빛이여, 마음을 향기롭게 하는 빛이여!

Ah, the light dances, my darling, at the centre of my life;

the light strikes, my darling, the chords of my love;

the sky opens, the wind runs wild, laughter passes over the earth.

오, 빛이 춤추네, 내 사랑, 빛이 내 삶의 중심에서 춤추네.
빛이 심금을 울리네, 내 사랑, 빛이 사랑의 현을 울리네.
하늘이 열리고, 세차게 바람이 불고, 웃음이 대지를 스치네.

The butterflies spread their sails on the sea of light.

Lilies and jasmines surge up on the crest of the waves of light.

나비들이 빛의 바다 위로 자신들의 항해를 펼치며 나아가네.
백합과 자스민이 빛 물결 물마루 위를 일렁이며 굽이치고 있네.

The light is shattered into gold on every cloud,

my darling, and it scatters gems in profusion.

빛이 온갖 구름 위로 황금빛으로 흩어지며
아낌없이 수많은 보석들을 흩어놓네. 오 내 사랑이여.

Mirth spreads from leaf to leaf, my darling,
and gladness without measure.

The heaven's river has drowned its banks
and the flood of joy is abroad.

환희에 찬 웃음소리가 이 앞에서 저 앞으로 퍼져나가니
즐거움은 한이 없어라. 오 내 사랑이여.
하늘의 강물이 그 자신의 제방을 넘어와
기쁨의 홍수로 온 세상을 적시네.

58

Let all the strains of joy mingle in my last song
--the joy that makes the earth
flow over in the riotous excess of the grass,
the joy that sets the twin brothers,
life and death, dancing over the wide world,
the joy that sweeps in with the tempest,
shaking and waking all life with laughter,
the joy that sits still with its tears on the open red lotus of pain,
and the joy that throws everything it has upon the dust, and knows not a word.

저의 마지막 노래 속에 온갖 기쁨의 선율들이 뒤섞이게 하소서.
떠들썩함으로 흘러 넘치는 초원으로
대지를 풍요로움으로 충만케 하는 그런 기쁨,
삶과 죽음이라는 쌍둥이 형제가 온 누리에 춤추게 하는 그런 기쁨,
온 생명을 웃음으로 흔들고 깨우는 폭풍 속으로 함께 쓸려드는 기쁨,
활짝 핀 고통의 붉은 연꽃 위에
그 눈물과 더불어 고요히 앉아 있는 그런 기쁨,
그리고 더러움 위에 자리잡은 것들을 모두 던져버리고도
한마디 말도 알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
저의 마지막 노래의 선율 속에 뒤섞이게 하소서.

59

Yes, I know, this is nothing but thy love,

O beloved of my heart--
this golden light that dances upon the leaves,
these idle clouds sailing across the sky,
this passing breeze leaving its coolness upon my forehead.

오 내 마음의 사랑,
온갖 잎새들 위에서 춤추는 황금빛이여,
하늘을 가로질러 느릿느릿 흘러가는 게으른 저 구름들이여,
내 이마에 자신의 서늘함을 남기고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여,
그렇습니다, 저는 압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름 아닌 당신의 사랑이라는 것을.

The morning light has flooded my eyes
--this is thy message to my heart.

Thy face is bent from above,
thy eyes look down on my eyes,
and my heart has touched thy feet.

제 눈을 가득 채우는 아침 햇살은
제 마음에 보내는 당신의 편지입니다.
당신께서는 저 하늘에서 고개를 굽히시어,
당신의 눈으로 저의 눈을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제 마음은 당신의 발을 어루만집니다.

60

On the seashore of endless worlds children meet.

The infinite sky is motionless overhead
and the restless water is boisterous.

On the seashore of endless worlds
the children meet with shouts and dances.

무한한 세계의 바닷가 해변에서 아이들이 만났습니다.
머리 위로는 헤아릴 수 없는 하늘이 고요히 멈추어 있고
조금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파도는 쉼 없이 거칠게 몰아칩니다.
무한한 세계의 바닷가 해변에서
아이들이 만나서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They build their houses with sand
and they play with empty shells.

With withered leaves they weave their boats
and smilingly float them on the vast deep.
Children have their play on the seashore of worlds.

어린이들은 모래로 자신들의 집을 짓기도 하고,
빈 조개껍질을 가지고 장난을 치며 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른 나뭇잎으로 배를 만들어
방긋 웃으며 막막한 심해로 띄워 보내기도 합니다.
어린이들이 수많은 세상의 바닷가 해변에서
그들 자신만의 놀이를 하며 놀고 있습니다.

They know not how to swim, they know not how to cast nets.
Pearl fishers dive for pearls, merchants sail in their ships,
while children gather pebbles and scatter them again.
they seek not for hidden treasures, they know not how to cast nets.

아이들은 어떻게 헤엄쳐야 하는지도
어떻게 그물을 던져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이 조약돌을 모았다가 그것을 다시 흩어버리는 동안
진주조개를 잡는 사람은 물 속으로 뛰어들어 잠수하고
상인들은 자신들의 배를 타고 항해를 떠납니다.
아이들은 숨겨진 보물들을 찾을 줄도 모르고
어떻게 그물을 던져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The sea surges up with laughter
and pale gleams the smile of the sea beach.
Death-dealing waves sing meaningless ballads to the children,
even like a mother while rocking her baby's cradle.

The sea plays with children,
and pale gleams the smile of the sea beach.
바다는 웃으며 물결치고,
바닷가 해변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집니다.
죽음을 다루는 물결은
아기의 요람을 흔들면서 아기가 알지도 못하는 노래를
부르는 엄마처럼 의미가 담기지 않은 노래를 부릅니다.
바다가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습니다.
그런 바닷가 해변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집니다.

On the seashore of endless worlds children meet.

Tempest roams in the pathless sky,
ships get wrecked in the trackless water,
death is abroad and children play.

On the seashore of endless worlds is the great meeting of children.

무한한 세계의 바닷가 해변에 아이들이 서로 만났습니다.
폭풍이 길 없는 하늘을 가로지르며 배회하자,
배들은 자취 없는 바다 속으로 부서져 사라지고,
죽음이 사방으로 퍼져 나가지만 아이들은 놀고 있습니다.
무한한 세계들의 바닷가 해변은 아이들의 큰 모임 마당입니다.

61

The sleep that flits on baby's eyes

--does anybody know from where it comes?

Yes, there is a rumour that it has its dwelling there,
in the fairy village among shadows of the forest
dimly lit with glow-worms,

there hang two timid buds of enchantment.

From there it comes to kiss baby's eyes.

아가의 눈에 날개를 펴리며 어른거리는 잠,
그 잠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는 사람이 있나요?
그래요. 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아가의 잠은 반딧불 희미하게 깜박이는
숲 그늘 사이에 있는 요정 마을에,
자신의 보금자리를 두고 있는데,
그곳에 소심한 마법의 꽃봉오리 두 개가 매달려 있다가
아가의 눈에 입맞춤하러 온다는 소문이지요.

The smile that flickers on baby's lips when he sleeps

--does anybody know where it was born?

Yes, there is a rumour
that a young pale beam of a crescent moon
touched the edge of a vanishing autumn cloud,
and there the smile was first born
in the dream of a dew-washed morning
--the smile that flickers on baby's lips

when he sleeps.

잠든 아가의 입술에 하늘하늘 감도는 미소,
그 미소가 어디서 탄생했는지 아는 사람이 있나요?
그래요. 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초승달의 창백한 어린 빛줄기가
스러져 가는 가을 구름의 가장자리를 닿으면,
거기, 이슬에 씻긴 아침의 꿈속에서
잠든 아가의 입술에 하늘하늘 감도는 미소
그 미소가 처음 태어난다고 해요.

The sweet, soft freshness that blooms on baby's limbs

--does anybody know where it was hidden so long?

Yes, when the mother was a young girl

it lay pervading her heart in tender and silent mystery of love

--the sweet, soft freshness that has bloomed on baby's limbs.

아가의 버둥거리는 팔다리에서 피어나는 곱고 보드라운 살 냄새,
그것이 그토록 오랫동안 어디에 숨겨져 있었는지 아는 사람이 있나요?
그래요, 그 싱그러운 살 냄새는 엄마가 젊은 처녀였을 때
부드럽고 고요한 사랑의 신비로 그녀의 가슴속에 스며있던 것이랍니다.
아가의 버둥거리는 팔다리에서 피어나는 그 곱고 보드라운 살 냄새는
그곳에 숨어 있다가 나온 것이랍니다.

62

When I bring to you coloured toys, my child,

I understand why there is such a play of colours on clouds, on water,

and why flowers are painted in tints

--when I give coloured toys to you, my child.

아가야, 난 깨달았단다.

색색의 장난감을 너에게 가져다주면서

구름들 위에, 물 위에 왜 그런 색색의 향연이 펼쳐지는지를,

그리고 왜 꽃들은 색깔로 물들여져 있는지를.

색색의 장난감을 너에게 가져다주면서.

When I sing to make you dance

I truly now why there is music in leaves,

and why waves send their chorus of voices
to the heart of the listening earth
--when I sing to make you dance.

너를 춤추게 하려고 노래를 부르면서
그 순간 난 마음으로 느꼈단다.
왜 나뭇잎들 속에 노래들이 담겨있는지
그리고 왜 물결들은 자신들의 합창을
귀기울이는 대지의 심장으로 보내는지를.
너를 춤추게 하려고 노래를 부르면서.

When I bring sweet things to your greedy hands
I know why there is honey in the cup of the flowers
and why fruits are secretly filled with sweet juice
--when I bring sweet things to your greedy hands.

욕심을 부리는 너의 손에
달콤한 것들을 쥐어주면서 난 알았단다.
왜 꽃들의 입술 속에는 꿀들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왜 과일들이 그토록 향기로운 과즙으로
은밀히 채워져 있는지를.
욕심을 부리는 너의 손에 달콤한 것들을 쥐어주면서.

When I kiss your face to make you smile, my darling,
I surely understand what pleasure streams
from the sky in morning light, and what delight that is
that is which the summer breeze brings to my body
--when I kiss you to make you smile.

널 방긋 웃게 하려고 너의 얼굴에 뽀뽀를 하면서
아가야, 난 진정으로 깨달았단다.
하늘에서 아침 빛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내 몸을 실어가던 여름날 실바람의 환희가 무엇인지를.
널 방긋 웃게 하려고 너에게 뽀뽀를 하면서.

나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 열매맺지 못한 이 생명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새벽에 시드는 꽃, 메마른 사막의 시냇물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어리석음으로써 이 세상에서 뒤 처지는 것일지라도

결코 스러져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나의 꿈도,

아직 울리지 않은 나의 가락도 그대의 거문고 줄에 걸려있으며,

결코 스러져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 라빈드라나드 타고르

63

Thou hast made me known to friends whom I knew not.

Thou hast given me seats in homes not my own.

Thou hast brought the distant near and made a brother of the stranger.

넘게서는 제가 알지 못하던 친구들을 알게 하시었고

제 집이 아닌 집들에 제 자리를 마련해 놓으셨으며

먼 것들을 가깝게 만드시고 낯선 이들이 제 형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I am uneasy at heart when I have to leave my accustomed shelter;

I forget that there abides the old in the new,

and that there also thou abidest.

정든 오두막을 떠나야했을 때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새 것 속에는 낡은 것이 살고 있고

님 또한 거기에 머무르신다는 것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Through birth and death, in this world or in others,

wherever thou ledest me it is thou,

the same, the one companion of my endless life

who ever linkest my heart with bonds of joy to the unfamiliar.

탄생과 죽음을 통해, 이 세상이나 다른 세상 그 어디로,

절 이끄시더라도 그것은 님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항상 기쁨의 인연으로 제 가슴을 생소한 이와 맺어주시는

제 삶의 끝없는 동반자 역시 님일 것입니다.

When one knows thee, then alien there is none,

then no door is shut.

Oh, grant me my prayer that I may never lose the bliss
of the touch of the one in the play of many.

누군가가 나를 알게 되면
그로부터 그에게는 그 누구도 이방인이 되는 법이 없고,
그 어떤 문도 닫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부디 제게 기도를 허락하시어
제가 잡다한 일에 빠져
그분의 축복의 손길을 결코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게 하여 주소서.

64

On the slope of the desolate river among tall grasses I asked her,
'Maiden, where do you go shading your lamp with your mantle?
My house is all dark and lonesome--lend me your light!'
she raised her dark eyes for a moment
and looked at my face through the dusk.
'I have come to the river,' she said,
'to float my lamp on the stream when the daylight wanes in the west.'
I stood alone among tall grasses
and watched the timid flame of her lamp uselessly drifting in the tide.

풀들이 무성하고 비스듬히 경사진, 황량한 강기슭에서 저는 물었습니다.
곶튼±160, 그대는 외투로 등불을 가리고 어디로 가시고 계시나요?
제 집이 너무도 어둡고 쓸쓸하니 당신의 등불을 제게 빌려주시면 안될까요!☞
그러자 그녀는 어스름 속에서 얼굴을 들고 까만 눈동자로
제 얼굴을 잠시 바라보더니 매정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곶 160 해가 서쪽으로 기울면 제 등불을 강물 위에 띄우기 위해 강에 왔답니다.,
그래서 전 풀숲에 홀로 서서 부질없이 강물에 흔들리며 떠가는,
희미해져 가는 그 아가씨의 등불을 바라만 보고 서있었습니다.

In the silence of gathering night I asked her,
'Maiden, your lights are all lit -- then where do you go with your lamp?
My house is all dark and lonesome -- lend me your light.'
She raised her dark eyes on my face and stood for a moment doubtful.
'I have come,' she said at last, 'to dedicate my lamp to the sky.'
I stood and watched her light uselessly burning in the void.

멀려드는 밤의 침묵 속에서 나는 그녀에게 청했습니다.
곶튼±160, 당신의 등불은 모두 켜졌는데 그런데 어디로 가신다는 말입니까?,

제 집이 너무도 어둡고 쓸쓸하니 당신의 등불을 제게 빌려주시면 안될까요!☹
그러자 그녀는 얼굴을 들고 까만 눈동자로 다시 제 얼굴을 바라보더니
의아해하며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서 마침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겪 161 제 등불을 하늘에 바치기 위해 왔답니다.,
그래서 전 헛되이 허공 속으로 불타며 사라지는 그녀의 등불을
바라만 보고 서있었습니다.

In the moonless gloom of midnight I ask her,
'Maiden, what is your quest, holding the lamp near your heart?
My house is all dark and lonesome--lend me your light.'
She stopped for a minute and thought and gazed at my face in the dark.
'I have brought my light,' she said, 'to join the carnival of lamps.'
I stood and watched her little lamp uselessly lost among lights.

깊은 밤 달빛마저 없는 어둠 속에서 나는 그녀에게 청했습니다.
곶튼±161 그토록 가까이 가슴에 등불을 품고 기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제 집이 너무도 어둡고 쓸쓸하니 당신의 등불을 제게 빌려주시면 안될까요!☹
그러자 그녀는 잠시 멈추어 서서 생각한 후
어둠 속에서 내 얼굴을 지그시 응시하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겪 161 등불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제 등불을 가져왔어요.
(그러니 당신께 빌려줄 수 없어요.)161
그래서 나는 헛되이 불빛들 속에서 스러져가는 그녀의 작은 등불을
바라만 보고 있어야 했답니다.

65

What divine drink wouldst thou have, my God,
from this overflowing cup of my life?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는 이토록 흘러 넘치는 제 삶의 잔으로
그 어떤 신성한 음료를 마시려고 하시나이까?

My poet, is it thy delight
to see thy creation through my eyes
and to stand at the portals of my ears silently
to listen to thine own eternal harmony?
저의 시인이시여,
제 눈을 통해 당신의 창조물들을 보시는 그것이,
제 귓전에 조용히 서시어 당신 자신의 영원한 화음을 듣는 그것이,

당신의 기쁨인가요?

Thy world is weaving words in my mind
and thy joy is adding music to them.
Thou givest thyself to me in love
and then feelest thine own entire sweetness in me.

님의 세계가 제 마음 속에서 단어들로 베를 짜고
님의 기쁨이 그 단어들 위에 선율을 더하고 있나이다.
당신께서는 사랑으로 당신 자신을 제게 드러내시고
그리하여 저를 통해 당신 자신의 온전한 아름다움을
스스로 느끼고 계시나이다.

66

She who ever had remained in the depth of my being,
in the twilight of gleams and of glimpses;
she who never opened her veils in the morning light,
will be my last gift to thee, my God, folded in my final song.

오, 저의 하느님.

어슴푸레한 황혼 속에, 잠깐 스쳐가던 황혼 속에,
내 존재의 깊은 곳 속에 언제나 남겨진 채로 있던 그녀가,
아침 햇살에 단 한번도 베일을 벗은 적이 없던 그녀가,
제가 저의 마지막 노래 속에 접어 넣어서,
당신께 드리는 저의 마지막 선물이 될 것입니다.

Words have wooed yet failed to win her;
persuasion has stretched to her its eager arms in vain.

말로는 사랑을 구했지만,
하지만 전 아직도 그녀의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녀를 향해 권유의 손을 내 뻗었지만
그런 저의 열정의 손짓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I have roamed from country to country
keeping her in the core of my heart,
and around her have risen and fallen
the growth and decay of my life.

저는 제 가슴 깊은 곳에 그녀를 간직한 채

이 나라 저 나라를 정처 없이 배회하였으며,
그녀를 에워싸고서 제 삶의 모든 흥망성쇠가 일어났습니다.

Over my thoughts and actions, my slumbers and dreams,
she reigned yet dwelled alone and apart.

그리고 그녀는 아직도 홀로 따로 떨어져
저의 생각과 행동들 위에, 저의 선잠과 꿈들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Many a man knocked at my door
and asked for her and turned away in despair.

많은 남자들이 제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좌절하여 발길을 돌렸습니다.

There was none in the world who ever saw her face to face,
and she remained in her loneliness waiting for thy recognition.

이 세상에서 얼굴을 맞대고
그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당신께서 자신을 인식해 줄 날만 기다리며
그녀 자신의 외로움 속에 남아 있습니다.

67

Thou art the sky and thou art the nest as well.
O thou beautiful,
there in the nest is thy love that encloses the soul
with colours and sounds and odours.

당신께서는 하늘이시며 또한 보금자리이시기도 합니다.
오 아름다운 님이시여, 그 곳 보금자리 속에 있는 것은
색과 소리와 향기로 영혼을 감싸는 당신의 사랑입니다.

There comes the morning with the golden basket
in her right hand bearing the wreath of beauty,
silently to crown the earth.

아침이 조용히 대지에 왕관을 씌우며,
그녀의 오른 손에 아름다움의 화관을 가득 담은
황금바구니를 들고서 오고 있습니다.

And there comes the evening
over the lonely meadows deserted by herds,
through trackless paths,
carrying cool draughts of peace in her golden pitcher
from the western ocean of rest.

그리고 서쪽 안식의 바다로부터 저녁이
그녀의 황금 주전자 속에 멋진 평화의 밑그림을 담고서
자취 없는 길을 따라
무리들로부터 버림받은 외로운 소 떼들이 있는
풍경 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But there, where spreads the infinite sky for the soul
to take her flight in, reigns the stainless white radiance.
There is no day nor night,
nor form nor colour, and never, never a word.

그러나 그녀를 신고 날아갈,
영혼을 위한 무한한 창공이 펼쳐져 있는 그곳은,
때묻지 않은 눈부시게 밝은 새하얀 빛이 다스리는 곳.
밤도 낮도 없고, 형상도 색도 없으며
그 어떠한 말도 없는 곳. 그 어떠한 말도.

68

Thy sunbeam comes upon this earth of mine
with arms outstretched and stands at my door
the livelong day to carry back to thy feet
clouds made of my tears and sighs and songs.

당신의 햇살은 두 팔을 활짝 벌리고서
제가 살고있는 제 것인 이 대지 위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가는 동안 내내 저의 집 문간에 서서
내 눈물과 노래와 한숨들로 만들어진 구름들을,
당신의 발 쪽으로 도로 가져갑니다.

With fond delight thou wrappest
about thy starry breast that mantle of misty cloud,
turning it into numberless shapes and folds

and colouring it

with hues ever-changing.

당신께서는 은하수의 장막인 무수한 별이 반짝이는
당신의 가슴 주위를 샘솟는 기쁨으로 감싸 안으시며,
그것을 헤아릴 수 없는 모양들과 층으로 변화시키고
그리고 늘 변화하는 색으로 그것들을 물들입니다.

It is so light and so fleeting, tender and tearful and dark,
that is why thou lovest it, O thou spotless and serene.

And that is why it may cover thy awful white light
with its pathetic shadows.

오 티 없이 맑으신 님이시여,
그것은 너무나도 보잘 것 없고 덧없는 것이기에,
눈물 어린 연약한 어둠을 지녔기에,
그런 까닭에 당신께서는 그것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님의 사랑이 그것들 자신의 애처로운 그림자를
님의 눈부신 흰 빛으로 덮을 수 있는 까닭입니다.

69

The same stream of life

that runs through my veins night and day

runs through the world

and dances in rhythmic measures.

밤낮으로 제 혈관사이를 달리는 것과 똑같은
생명의 물줄기가 세상 속에서도 흐르고 있고,
장단에 맞추어 규칙적인 순환을 하며 춤을 추고 있습니다.

It is the same life

that shoots in joy through the dust of the earth

in numberless blades of grass

and breaks into tumultuous waves of leaves and flowers.

그것은 이삭이 나기 전에는
헤아릴 수 없는 풀잎들 속에 숨어 있다가,
소란스러운 잎새와 꽃들의 물결로 번져나가는,
어느 날 대지의 흙먼지를 뚫고 나와
기쁨을 발산하는 것들과 같은 생명입니다

It is the same life
that is rocked in the ocean-cradle of birth and of death,
in ebb and in flow.

그것은 밀물과 썰물 속에서, 죽음과 삶의 바다의 요람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들과 같은 생명입니다.

I feel my limbs are made glorious
by the touch of this world of life.
And my pride is from the life-throb of ages
dancing in my blood this moment.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세계와의 접촉에 의해 만들어진
내 사지(四肢)가 너무나 멋지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무수한 세대들로 이루어진 생명의 고동이
내 피 속에서 출추고 있는 것이
나의 긍지입니다.

70

Is it beyond thee to be glad with the gladness of this rhythm?
to be tossed and lost and broken in the whirl of this fearful joy?

이 선율의 즐거움과 더불어 기뻐하는 것이
님에게는 벅찬가요?
이 두려운 기쁨의 바퀴 속에 던져져
버려지고 부서지는 것이 님에게는 벅찬가요?

All things rush on, they stop not, they look not behind,
no power can hold them back, they rush on.

모든 것들이 앞으로만 내달립니다.
그들은 멈출 줄도, 뒤를 돌아볼 줄도 모릅니다.
그 어떤 힘으로도 그들을 잡아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Keeping steps with that restless, rapid music,
seasons come dancing and pass away

-- colours, tunes, and perfumes pour in endless cascades
in the abounding joy
that scatters and gives up and dies every moment.

계절들은 숨쉴 틈 없는 빠른 음악에 발을 맞추어
춤을 추면서 왔다가는
매순간 분해되고 버려지고 죽는, 넘치는 기쁨 속에서
끝없는 폭포들 속에 자신들의 빛깔도 선율도
그리고 향기마저도 쏟아 붓고는 사라져버립니다.

71

That I should make much of myself and turn it on all sides,
thus casting coloured shadows on thy radiance--such is thy - maya -.

자신 스스로의 것을 많이 만들어
그것을 온 사방(四方)에 내놓아야 한다는 것,
그리하여 그것들로 당신의 찬란한 광휘 위에
색색의 그림자들을 수놓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 - 짚뽕 167(환상을 만들어 내는 힘)뽕都求 167.

Thou settest a barrier in thine own being
and then callest thy severed self in myriad notes.

This thy self-separation has taken body in me.

당신께서는 넘 자신의 것인,
당신의 존재 속에 장애물을 설치하시고는
그런 다음 무수한 가닥으로 나뉘어진 그 속에서 당신의 분신들을 부릅니다.
이런 넘의 자기 분열이 제 안에서 몸의 형태를 취했습니다.

The poignant song is echoed through all the sky
in many-coloured tears and smiles, alarms and hopes;
waves rise up and sink again, dreams break and form.

In me is thy own defeat of self.

가슴에 사무치는 그 노래가 각양각색의 눈물과 미소로,
놀람과 희망으로 온 하늘에 메아리쳐 울리면,
물결들은 차 올랐다가는 다시 가라앉고,
꿈들은 깨졌다가 다시 형태를 이루니.
제 속에 넘 자신 스스로에 대한 넘의 패배가 있는 것입니다.

This screen that thou hast raised is
painted with innumerable figures
with the brush of the night and the day.
Behind it thy seat is woven in wondrous mysteries of curves,
casting away all barren lines of straightness.

당신께서 막을 올려주신 이 연극무대에는
밤과 낮의 붓으로 그린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 뒤에 있는 당신의 자리는
불가사의한 곡선들의 신비로 직조(織造)되어 있기에,
열매맺지 못하는 곁은 선들을 모두 내던져지고 마는 것입니다.

The great pageant of thee and me has over-spread the sky.
With the tune of thee and me all the air is vibrant,
and all ages pass with the hiding and seeking of thee and me.

님과 저의 거대한 가장행렬이 하늘을 온통 뒤덮고 있습니다.
님과 저의 선율로 인해 온 대기가 진동하고 있고,
님과 저는 숨바꼭질하다가 모든 세월을 다 보냅니다.

72

He it is, the innermost one,
who awakens my being with his deep hidden touches.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계시는 분
당신의 깊고 은밀한 손길로 내 존재를 깨우시는 분.
그 분이 여기 계십니다.

He it is who puts his enchantment upon these eyes
and joyfully plays on the chords of my heart
in varied cadence of pleasure and pain.

이 눈에 당신의 마술을 걸어
가지각색의 기쁨과 고통의 운율로
내 마음에 행복의 심금을 울리시는 분,
그 분이 여기 계십니다.

He it is who weaves the web of this
- maya - in evanescent hues of gold and silver, blue and green,
and lets peep out through the folds his feet,

at whose touch I forget myself.

무상(無常)한 금빛과 은빛 그리고 파랑과 초록으로
이 마야(幻像의 세계: 이 세상)의 거미줄을 짜시고,
겹겹으로 접힌 당신의 발 사이로 엿보게 하시며,
그 손길로 내 자신을 잊게 만드신, 그 분이 여기 계십니다.

Days come and ages pass,
and it is ever he who moves my heart
in many a name, in many a guise,
in many a rapture of joy and of sorrow.

새로운 날들은 오고 세대들은 지나갑니다.
하지만 당신께서는 수많은 이름과 수많은 모습으로
수 없는 기쁨과 슬픔의 법열(法悅)로 언제나 제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73

Deliverance is not for me in renunciation.

I feel the embrace of freedom in a thousand bonds of delight.

구원은 그것을 단념한 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 가지 기쁨의 속박 속에서도,
저는 이미 자유와 한 몸이 되었음을 느끼고 있기에.

Thou ever pourest for me the fresh draught of thy wine
of various colours and fragrance,
filling this earthen vessel to the brim.

님께서는 늘 저를 위해 다양한 색깔과 향기를 가진
신선한 당신의 술 한 모금을 제게 부어주시고
이 罇(甌) 169 향아리(몸) 169 테두리까지 가득 채워주십니다.

My world will light its hundred different lamps with thy flame
and place them before the altar of thy temple.

그리하여 저의 세계는 당신의 불꽃과 어울려
또 다른 그 자신만의 수 없는 등불들이 되어 빛을 내게 될 것이며
그것들은 님의 사원 제단 앞에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No, I will never shut the doors of my senses.

The delights of sight and hearing and touch will bear thy delight.

아닙니다, 전 결코 제 감각의 문들을 닫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저의 보고 듣고 만지는 기쁨들 모두는
님의 기쁨을 전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Yes, all my illusions will burn into illumination of joy,
and all my desires ripen into fruits of love.

그러합니다, 이제 저의 모든 환상들은
기쁨의 빛 속으로 들어가 모두 타서 사라질 것이며
그리고 저의 모든 갈망들은
사랑의 열매들 속으로 들어가 무르익게 될 것입니다.

74

The day is no more, the shadow is upon the earth.
It is time that I go to the stream to fill my pitcher.
날은 저물고 대지 위에는 어둠이 내립니다.
지금은 제가 시냇가로 가서 물을 길어 시간입니다.

The evening air is eager with the sad music of the water.

Ah, it calls me out into the dusk.

In the lonely lane there is no passer-by,
the wind is up, the ripples are rampant in the river.

밤 공기는 물의 슬픈 곡조를 간절히 듣고자 합니다.

아, 그 음악이 어스름 속으로 저를 불러냅니다.

쓸쓸한 오솔길에는 지나다니는 사람 하나 없고,

바람이 일자, 강에는 잔물결들만 가득합니다.

I know not if I shall come back home.

I know not whom I shall chance to meet.

There at the fording in the little boat
the unknown man plays upon his lute.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다시 제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를.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제가 우연히 누구를 만나게 될지도.

얕은 여울에 떠 있는 작은 배 안에서

제가 알지 못하는 이가

자신의 漚澗漚를 통기고 있습니다.

* 류트 : 만들어진 비슷한 모양에 줄이 6 ~ 13 개이고 줄감개 부분이 뒤로 꺾였으며, 손가락이나 피크로 통겨서 소리내는 악기.

75

Thy gifts to us mortals

fulfil all our needs and yet run back to thee undiminished.

덧없는 생명을 가진 우리에게 주시는 님의 선물들은

우리의 모든 바램을 채워줍니다.

그리고는 조금도 줄지 않고 님께로 다시 흘러갑니다.

The river has its everyday work to do

and hastens through fields and hamlets;

yet its incessant stream winds towards the washing of thy feet.

강물은 날마다 해야 할 그 자신만의 일이 있어

들판들과 작은 마을들 사이를 서둘러 지나갑니다.

그러면서도 그 부단한 물줄기는 님의 발을 씻고자

님을 향해 굽이칩니다.

The flower sweetens the air with its perfume;

yet its last service is to offer itself to thee.

비록 꽃이 자신의 향기로 대기를 향기롭게 했다하더라도

결국 꽃의 마지막 헌신이란 그 자신을 님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Thy worship does not impoverish the world.

님을 공경하는 일은 이 세상을 메마르게 하지 않습니다.

From the words of the poet men take what meanings please them;

yet their last meaning points to thee.

비록 시인들이 말에서 그들의 마음에 드는 의미들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지만 그들의 마지막 의미는 사람들이 님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76

Day after day, O lord of my life,

shall I stand before thee face to face.

With folded hands, O lord of all worlds,
shall I stand before thee face to face.

오, 생명의 주님이시여,
어떻게 하면 제가 날이면 날마다
님 앞에 얼굴을 마주하여 설 수 있을까요.
오, 모든 세상들의 주님이시여,
어떻게 하면 제가 손을 모은 채
님 앞에 얼굴을 마주하여 설 수 있을까요.

Under thy great sky in solitude and silence,
with humble heart
shall I stand before thee face to face.

어떻게 하면 제가
겸허한 마음으로 고독과 침묵 속에서
님의 거룩한 하늘 아래
님 앞에 얼굴을 마주하여 설 수 있을까요.

In this laborious world of thine,
tumultuous with toil and with struggle,
among hurrying crowds shall I stand before thee face to
face.

수고로움과 다툼으로 소란한
이토록 분주한 당신의 세상 속에
서두르는 무리들에 끼여 있는 제가
어떻게 하면 님 앞에 얼굴을 마주하여 설 수 있을까요.

And when my work shall be done in this world,
O King of kings,
alone and speechless shall I stand before thee face to face.

오, 왕 중의 왕이시여,
이 세상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을 모두 마치고 나면
홀로 말없이 제가 님 앞에 얼굴을 마주하여 설 수 있을까요.

--I do not know thee as my own and come closer.
I know thee as my father and bow before thy feet
--I do not grasp thy hand as my friend's.

저는 너를 저의 하느님으로 알기에
저만치 떨어져 섭니다.
저는 너의 저만의 하느님인지 알지 못하기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저는 너를 저의 아버지로 알기에
네 벗의 손을 잡듯 덤석 당신의 손을 잡지 못하고
네의 발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I stand not where thou comest down
and ownest thyself as mine,
there to clasp thee to my heart and take thee as my comrade.

저는 당신을 대대로 전해오시는 분처럼 대하지 않고,
네 자신을 마치 제 자신처럼 대하기에, 그런 마음으로
제 가슴으로 당신을 껴안으려 하고
네를 마치 제 동료처럼 대합니다.

Thou art the Brother amongst my brothers,
but I heed them not,
I divide not my earnings with them, thus sharing my all with thee.

네는 제 형제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형제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형제들 그 어느 누구에게도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왔습니다.
저는 제가 벌어들인 것들을 그들과 나누지도 않았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제 모든 것을 당신과 더불어 나누려 하고 있습니다.

In pleasure and in pain I stand not by the side of men,
and thus stand by thee.

I shrink to give up my life,
and thus do not plunge into the great waters of life.

즐거울 때도 괴로울 때도
저는 사람들 곁에 서지 않고 네 곁에 섭니다.
제 삶을 포기하는 것을 회피하기에
저는 거룩한 생명의 흐름 속으로 뛰어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78

When the creation was new
and all the stars shone in their first splendour,
the gods held their assembly in the sky
and sang 'Oh, the picture of perfection! the joy unalloyed!'

창조가 새로웠고

모든 별들이 자신들의 영예를 처음으로 빛냈을 때,
신들은 하늘에 자신들이 창조한 창조물들을 불러모아놓고
이렇게 노래했답니다.

꺆 174, 순수한 기쁨이여, 완전한 영상이여.,

But one cried of a sudden

--'It seems that somewhere there is a break in the chain of light
and one of the stars has been lost.'

하지만 한 신이 갑자기 이렇게 외쳤으니

꺆 174 사슬 중 어딘가가 끊겨, 별들 중 하나가 사라진 것 같아요.174

The golden string of their harp snapped,
their song stopped, and they cried in dismay

--'Yes, that lost star was the best,
she was the glory of all heavens!'

그 말에 신들의 황금으로 만들어진 하프의 현은

특하는 소리를 내며 끊겼고,

신들은 노래하는 것을 멈추고 낙담하여 이렇게 울부짖었지요.

꺆 174 별은 온 하늘의 자랑이었는데,

별들 중 가장 으뜸가는 그 별을 잃은 것 같아요.174

From that day the search is unceasing for her,
and the cry goes on from one to the other
that in her the world has lost its one joy!

그 날부터 그 별을 찾기 위한 노력은 끊임 새가 없었지요.

그 별로 인해 별들의 세상이 누렸던 그 하나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외침이 이 별에서 저 별들로 번져갔지요

Only in the deepest silence of night
the stars smile and whisper among themselves

--'Vain is this seeking! unbroken perfection is over all!'

다만 밤에 가장 깊은 침묵의 시간이 오면

별들은 서로서로 모여 그들끼리 미소지으며 이렇게 속삭였답니다.

결肩 175 탐색은 소용없으리. 깨어지지 않은 완성은 도처에 늘려있으니!,

79

If it is not my portion to meet thee in this life

then let me ever feel that I have missed thy sight

--let me not forget for a moment,

let me carry the pangs of this sorrow

in my dreams and in my wakeful hours.

만일 이번 저의 삶 속에서 님을 만나는 것이 제 몫이 아니라면,

그러하다면 제가 님의 모습을 볼 기회를 이미 놓쳤다는 것을

제가 늘 느끼게 하소서.

깨어있을 때나 꿈들 속에서나

저로 하여금 그 마음의 고통을 늘 짊어지고 다니시게 하시어

한 순간도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소서.

As my days pass in the crowded market of this world

and my hands grow full with the daily profits,

let me ever feel that I have gained nothing

--let me not forget for a moment,

let me carry the pangs of this sorrow

in my dreams and in my wakeful hours.

이 세상 혼잡한 시장 속에서 제 삶의 날들은 지나가고

저의 양손은 나날의 이익으로 가득 채워져 갈 때,

제가 진정으로 얻은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저로 하여금 늘 느끼게 하소서.

깨어있을 때나 꿈들 속에서나

저로 하여금 그 마음의 고통을 늘 짊어지고 다니시게 하시어

한 순간도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소서.

When I sit by the roadside, tired and panting,

when I spread my bed low in the dust,

let me ever feel that the long journey is still before me

--let me not forget a moment,

let me carry the pangs of this sorrow
in my dreams and in my wakeful hours.

제가 지쳐 헐떡거리며 길가에 앉아 있을 때나
먼지를 둘러쓰고 침대에 몸을 누이고 있을 때나
저의 긴 여행길은 아직 제게 닥쳐오지도 않았다는 것을
제가 늘 느끼게 하소서.

깨어있을 때나 꿈들 속에서나
저로 하여금 그 마음의 고통을 늘 깊어지고 다니시게 하시어
한 순간도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소서.

When my rooms have been decked out
and the flutes sound and the laughter there is loud,
let me ever feel that I have not invited thee to my house
--let me not forget for a moment,
let me carry the pangs of this sorrow
in my dreams and in my wakeful hours.

제가 저의 방들을 온통 꾸며놓고
거기서 플루트를 연주하며 크게 웃고 떠들고 있을 때에도
제가 님을 저의 집에 초청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저로 하여금 늘 느끼게 하소서.

깨어있을 때나 꿈들 속에서나
저로 하여금 그 마음의 고통을 늘 깊어지고 다니시게 하시어
한 순간도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소서.

80

I am like a remnant of a cloud of autumn uselessly roaming in the sky,
O my sun ever-glorious!
Thy touch has not yet melted my vapour,
making me one with thy light,
and thus I count months and years separated from thee.

저는 쓸데없이 하늘에서 이리저리 배회하며 다니는
가을의 조각구름과 같은 존재입니다.

오, 그 언제나 빛나는 나의 태양이시여!

님께서서는 당신의 빛과 더불어 저를 하나가 되게 하시고자
님의 손길로 저의 허세를 아직 녹여버리지 않으셨나이다.

그리하여 저는 님으로부터 분리된 채

해와 달이 가는 것을 헤아리고 있나이다.

If this be thy wish and if this be thy play,
then take this fleeting emptiness of mine,
paint it with colours, gild it with gold,
float it on the wanton wind and spread it in varied wonders.

이것이 정녕 님의 바람이라면, 이것이 정녕 님의 유희라면,
저의 것인 이 덧없는 공허함을 취하시어
그것을 색색으로 칠하시고 그리고 금박으로 덧입히시어
저의 이 덧없는 공허함이 무정한 바람 위를 떠가게 하여주소서.
다채로운 경이로움들 속에 저의 이 덧없는 공허함을 펼치소서.

And again when it shall be thy wish to end this play at night,
I shall melt and vanish away in the dark,
or it may be in a smile of the white morning,
in a coolness of purity transparent.

그에 더하여 밤에 이 유희를 끝내는 것이 님의 바람이시라면
저는 기꺼이 어둠 속에서 녹아 사라지겠나이다.
그렇지 않으면 속이 비쳐 보이는 순수의 냉정함 속에서
눈부신 아침의 미소를 맞이하게 되겠지요 .

81

On many an idle day have I grieved over lost time.
But it is never lost, my lord.
Thou hast taken every moment of my life in thine own hands.

삶이 지루한 날이면
저는 잃어버린 시간에 대하여 수없이 슬퍼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의 주님,
그 시간들은 결코 제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당신께서는 제 삶의 모든 순간마다
당신 자신의 손을 내밀어 이끌어주셨던 것입니다.

Hidden in the heart of things
thou art nourishing seeds into sprouts,
buds into blossoms,
and ripening flowers into fruitfulness.

님께서는 사물들의 가슴속에 몸을 숨기신 채
씨앗을 품어 싹이 돋게 하시고,
발아하여 꽃 속으로 들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 꽃이 익어 열매맺게 하십니다.

I was tired and sleeping on my idle bed
and imagined all work had ceased.
In the morning I woke up
and found my garden full with wonders of flowers.

저는 지쳤습니다.

그래서 텅 빈 제 침대에 누워 모든 일은 끝났다고 생각하며
제가 하다가 그만 둔 모든 일들을 마음 속으로 그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깨어보니
제 정원은 눈부신 꽃들로 만발해 있었습니다.

82

Time is endless in thy hands, my lord.

There is none to count thy minutes.

저의 주님, 당신의 손 안에 있는 시간은 끝이 없습니다.
그 순간 순간을 헤아릴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Days and nights pass and ages bloom and fade like flowers.

Thou knowest how to wait.

낮과 밤이 지나고 세월이 꽃처럼 피었다가는 시들어갑니다.
님께서는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 지를 알고 계십니다.

Thy centuries follow each other perfecting a small wild flower.

당신의 100 년들은 각각 다른 하나 하나의 작은 야생화들을
완성시키면서 그들을 따라 흘러갑니다.

We have no time to lose,

and having no time we must scramble for a chances.

We are too poor to be late.

하지만 우리에게 놓쳐야 할 시간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없기에 우리는 기회를 잡으려고 서둘러야만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가난하기에 지체할 수 없습니다.

And thus it is that time goes by while I give it
to every querulous man who claims it,
and thine altar is empty of all offerings to the last.

그런데도 저는 시간을 달라고 투정하는 하나 하나의 사람들에게
시간을 허비하여 그 소중한 시간들을 흘러보내 버렸고,
당신의 제단은 이 순간까지도 공양하나 없이 비어있습니다.

At the end of the day I hasten in fear lest thy gate to be shut;
but I find that yet there is time.

그래서 저는 날마다 하루가 저물어 가는 시간이면
당신의 문이 이미 닫혀버리지는 않았을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마음이 조급해졌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시간이 있음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83

Mother, I shall weave a chain of pearls for thy neck
with my tears of sorrow.

어머니 저는 슬픔의 눈물로
당신의 목에 걸어드릴 진주목걸이를 엮을 것입니다.

The stars have wrought their anklets of light to deck thy feet,
but mine will hang upon thy breast.

별들도 어머니 당신의 발을 장식하고자 그들만의 빛의 발찌를 만들었지만,
하지만 저의 목걸이는 당신의 가슴 위에 드리워질 것입니다.

Wealth and fame come from thee
and it is for thee to give or to withhold them.

But this my sorrow is absolutely mine own,
and when I bring it to thee as my offering
thou rewardest me with thy grace.

부와 명성은 당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에,
그것들을 주시든 보류하시든 그것은 당신께 달렸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 슬픔만은 온전히 제 자신의 것이기에,
제가 그것을 당신께 공물로 드리면
넘께서는 당신의 은총으로 제게 답례를 하십니다.

84

It is the pang of separation
that spreads throughout the world
and gives birth to shapes innumerable in the infinite sky.

무한한 하늘 속에
삶을 부여하여 헤아릴 수 없는 형상으로 태어나게 하고
온 누리에 구석구석에 퍼져있게 하는 것,
그것은 분리의 고통입니다.

It is this sorrow of separation
that gazes in silence all nights from star to star
and becomes lyric among rustling leaves in rainy darkness of July.

비 내리는 칠 월의 밤
바스락거리는 잎새들 틈에서 우리 마음을 서정적 만들고,
이 별에서 저 별로 눈을 주어가며
밤새도록 침묵 속에서 별을 응시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 분리의 슬픔입니다.

It is this overspreading pain
that deepens into loves and desires,
into sufferings and joy in human homes;
and this it is that ever melts and flows in songs
through my poet's heart.

인간사를 고통과 즐거움 속으로,
사랑과 욕망들 속으로 깊이 빠져들게 하고,
그런 것들이 내 가슴속의 시인을 통해
노래 속으로 항상 녹아 흐르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온 세상에 널려있는 분리의 고통입니다.

85

When the warriors came out first from their master's hall,
where had they hid their power?

Where were their armour and their arms?

전사(人間)들이 처음으로 스승(神)의 품을 떠나 밖으로 나왔을 때,
전사들은 자신들의 힘을 어디에 숨겨두고 있었던 것일까요?

전사들은 자신의 갑옷과 무기들을 어디에 두었던 것일까요?

They looked poor and helpless,
and the arrows were showered upon them
on the day they came out from their master's hall.

그들은 초라하고 힘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머리위로는 화살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그들이 스승의 품을 떠나온 바로 그 날에 말이지요.

When the warriors marched back again to their master's hall
where did they hide their power?

그런 전사들이 행진하여 다시 스승의 품으로 돌아간다면

그들의 그 힘은 어디에 숨겨져 있던 힘일까요?

They had dropped the sword
and dropped the bow and the arrow;
peace was on their foreheads,
and they had left the fruits of their life behind them
on the day they marched back again to their master's hall.

그 전사들은 검도 활도 화살도 모두 던져 버렸기에,

그들의 이마에는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진하여 다시 스승의 품으로 돌아가던 바로 그 날

그들은 자신들이 지나간 길에 그 자신의 생명의 열매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역자주)

이 장은 욕망을 버린 사람에 대한 찬양하는 구절로 여겨진다.

86

Death, thy servant, is at my door.

He has crossed the unknown sea and brought thy call to my home.

당신의 사자(使者)인 죽음이 제 문 앞에 와 서있습니다.

그는 미지의 바다를 건너 당신의 부르심을 제 집에 전하고자 왔습니다.

The night is dark and my heart is fearful
--yet I will take up the lamp,
open my gates and bow to him my welcome.

It is thy messenger who stands at my door.

밤은 어둡고 제 가슴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램프를 들고 저의 집 대문을 연 다음
환영의 뜻으로 그에게 머리를 숙여 인사할 것입니다.

I will worship him placing at his feet the treasure of my heart.

저는 제 가슴의 보물을 그의 발 아래에 놓고 그를 공경할 것입니다.

He will go back with his errand done,

leaving a dark shadow on my morning;

and in my desolate home only my forlorn self will remain
as my last offering to thee.

자신에게 주어진 심부름을 다 마치면

그는 저의 아침 위에 어두운 그림자를 남겨둔 채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저의 황량한 집에는

오직 당신에게 드리는 저의 마지막 공양인,

버림받은 저의 자아만이 남게 되겠지요.

87

In desperate hope I go and search for her

in all the corners of my room; I find her not.

절박한 희망에 매달리며

저는 그녀를 찾기 위해 나와서 제 방 구석구석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디에서도 그녀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My house is small

and what once has gone from it can never be regained.

저의 집은 협소합니다.

그래서 한번 떠나보내 버린 것들은 다시는 되찾을 수 없습니다.

But infinite is thy mansion, my lord,

and seeking her I have to come to thy door.

무한(無限)이 당신의 저택이신 저의 주님,

하지만 저는 그녀를 찾아 당신의 문 앞에까지 왔습니다.

I stand under the golden canopy of thine evening sky

and I lift my eager eyes to thy face.

저는 당신의 저녁 하늘 황금 단집[天蓋] 아래에 서서
저의 열망하는 눈으로 당신의 얼굴을 우러러 봅니다.

I have come to the brink of eternity

from which nothing can vanish

--no hope, no happiness, no vision of a face seen through tears.

저는 희망도 없고 행복도 없고
눈물 사이로 보이는 한 얼굴의 환상도 없는,
그곳으로부터는 그 무엇도 소멸되지 않는
영원의 언저리까지 왔나이다.

Oh, dip my emptied life into that ocean,

plunge it into the deepest fullness.

Let me for once feel that lost sweet touch

in the all-ness of the universe.

오, 공허했던 저의 삶을 저 바다 속에 담그시어
그것이 가장 깊은 충만함 속으로 빠져들게 하소서.
저로 하여금 우주의 완전성 속에서,
잃어버렸던 그리운 그 감촉을 한번만 더 느끼게 하소서.

88

Deity of the ruined temple!

The broken strings of Vina sing no more your praise.

The bells in the evening proclaim not your time of worship.

The air is still and silent about you.

이제는 황폐해져 버린 사원의 신성(神性)이여!
끊어진 비나(Vina: 인도의 4絃琴)의 현들은 더 이상 당신을 찬미하지 않고,
저녁의 종소리들도 당신을 예배할 시간이라고 알리지 않네.
당신 주변의 공기는 침묵과 고요함이네.

In your desolate dwelling comes the vagrant spring breeze.

It brings the tidings of flowers

--the flowers that for your worship are offered no more.

황폐해진 그대의 거처에 방랑하던 봄바람이 불어,

꽃들의 소식을 전해오지만,
하지만 그 꽃들은 더 이상 당신의 예배를 위해 바쳐지지 않네.

Your worshipper of old wanders ever longing for favour still refused.
In the eventide, when fires and shadows mingle with the gloom of dust,
he wearily comes back to the ruined temple with hunger in his heart.

늙은 방랑자들인 당신의 숭배자들은
예나 다름없이 은총을 구하지만 여전히 거절당하고 있기에.
그들은 불빛과 어스름이 덧없는 것들의 우울함과 뒤섞이는
저녁이 되면, 그의 마음 속 배고픔과 함께
지친 몸으로 황폐해진 사원으로 돌아온다네.

Many a festival day comes to you in silence,
deity of the ruined temple.

Many a night of worship goes away with lamp unlit.

수많은 축제의 날들이 침묵 속에서
이제는 황폐해져 버린 사원의 신성(神性)인 당신에게 오지만
수많은 예배의 날들은 등불을 켜보지도 못한 채 사라져 간다네.

Many new images are built by masters of cunning art
and carried to the holy stream of oblivion when their time is come.

무수한 새로운 이미지들이 정교한 예술 장인들에 의해 세워지지만
그들의 시간이 오면 성스러운 망각의 물결 쪽으로 보내진다네.

Only the deity of the ruined temple remains
unworshipped in deathless neglect.

오직 황폐해져버린 사원의 신성(神性)만이
영원히 방치된 채 예배도 받지 못하며 남아 있을 뿐.

역자주)

88 장, 89 장은 죽어버린 몸의 덧없음에 대한 구절로 여겨진다.

89

No more noisy, loud words from me--such is my master's will.

Henceforth I deal in whispers.

The speech of my heart will be carried on in murmurings of a song.

나 이제 더 이상 시끄럽게 굴지 않으리. 큰 소리로 떠들지 않으리.
이것이 바로 나의 주님의 뜻이기에, 나 이제부터는 속삭이기만 하리.
내 가슴의 말은 노래의 읊조림 속으로 옮겨가게 되리.

Men hasten to the King's market.
All the buyers and sellers are there.
But I have my untimely leave in the middle of the day,
in the thick of work.

사람들은 왕이 펼쳐놓은 시장을 향해 서둘러 가고
사고 파는 사람들이 모두 그곳에 있지만,
나는 산처럼 쌓여있는 일을 팽개친 채
한낮에 때아닌 작별을 고하며 떠나왔다네.

Let then the flowers come out in my garden,
though it is not their time;
and let the midday bees strike up their lazy hum.

그런 다음 나는
비록 꽃 피울 때가 아니더라도
꽃들이 정원에 만발하게 놓아두고,
일에 한참이어야 할 벌들이
한가로운 그 자신들의 노래를 연주하게 놓아두었네.

Full many an hour have I spent
in the strife of the good and the evil,
but now it is the pleasure of my playmate
of the empty days to draw my heart on to him;
and I know not why is this sudden call to what useless inconsequence!

수많은 나날들을 나는 선과 악의 갈등으로 지내왔다네.
하지만 이제 내게 선악이란 즐거운 내 놀이 동무이며,
내 마음을 그 분에게로 이끄는 무위의 날들의 즐거운 동반자라네.
그리고 나는 내가 왜 이처럼 쓸데없는 엉뚱한 일에
갑작스런 호출을 받아 불려나오게 되었는지를 모른다네.

90

On the day when death will knock at thy door
what wilt thou offer to him?

죽음이 그대의 문을 두드리게 되는 날,
그대는 죽음의 사자에게 무엇을 내 놓을 수 있을 것인가?

Oh, I will set before my guest the full vessel of my life
--I will never let him go with empty hands.
오, 나는 내 손님 앞에 넘치는 내 삶의 잔을 내어놓으리.
나 결코 그가 빈손으로 가도록 놓아두지 않으리.

All the sweet vintage of all my autumn days and summer nights,
all the earnings and gleanings of my busy life will I place before him
at the close of my days when death will knock at my door.
나의 날들이 다하여 죽음이 내 문을 두드리면
나 죽음의 사자(使者) 앞에 차려 놓으리.
나의 모든 가을날들과 여름날들에 수확한 향기로운 포도들을,
부지런히 일한 내 삶의 수확물들과 이삭들을 남김없이 내어놓으리.

91

O thou the last fulfillment of life,
Death, my death, come and whisper to me!
오 삶의 마지막 성취인 그대 죽음이여,
나의 죽음이여, 어서 와서 내게 속삭여주소!

Day after day I have kept watch for thee;
for thee have I borne the joys and pangs of life.
날이면 날마다 저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당신을 위해 제가 얼마나 삶의 기쁨과 비통함을 견뎌 왔나이까.

All that I am, that I have, that I hope
and all my love have ever flowed towards thee in depth of secrecy.
One final glance from thine eyes and my life will be ever thine own.
저의 모든 것, 제가 가진 모든 것, 제가 희망한 모든 것
그리고 저의 모든 사랑은 깊은 은밀함 속에서 늘 당신을 향해 흘러왔나이다.
그리하여 이제 당신께서 마지막으로 눈길 한번만 주셔도
저의 삶은 영원히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The flowers have been woven

and the garland is ready for the bridegroom.

After the wedding the bride shall leave her home

and meet her lord alone in the solitude of night.

꽃다발도 엮어 두었고, 신랑을 위한 화관도 준비되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면 신부는 자신의 집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밤의 고독 속에서 홀로 그녀의 주님을 만나게 되겠지요.

92

I know that the day will come

when my sight of this earth shall be lost,

and life will take its leave in silence,

drawing the last curtain over my eyes.

저는 압니다.

언젠가는 이 대지를 보는 저의 눈을 잃을 날이 오리라는 것을,

그리고 제 눈 위에 마지막 장막을 드리워지면

생명은 침묵 속에서 자신을 떠남 쪽으로 이끌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Yet stars will watch at night, and morning rise as before,

and hours heave like sea waves casting up pleasures and pains.

When I think of this end of my moments,

the barrier of the moments breaks and I see

by the light of death thy world with its careless treasures.

Rare is its lowliest seat, rare is its meanest of lives.

하지만 제가 떠난 후에도 별들은 여전히 밤을 지키고

예전과 다름없이 아침이 밝겠지요.

그리고 시간은 일렁이는 파도처럼

기쁨과 고통들을 토하고 들어올려 해안으로 밀어가겠지요.

이러한 제 생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할 때면

저는 죽음의 빛을 통해

이 순간들이라는 시간의 장벽이 깨어지는 것과,

무심이란 그 세계만의 보물들이 쌓여있는 당신의 세계를 봅니다.

그 세계에서는 가장 초라한 자리도 보기 힘들고

가장 중요성을 띤 생명들이란 의미도 보기 힘듭니다.

Things that I longed for in vain
and things that I got --let them pass.
Let me but truly possess the things
that I ever spurned and overlooked.

제가 헛되이 바랬던 것들과
제가 지녔던 모든 것들에 대해 너그럽게 보아주소서.
저로 하여금 제가 진정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들
즉, 제가 언제나 경멸하며 간과해왔던 것들을 갖게 하소서.

93

I have got my leave.
Bid me farewell, my brothers!
I bow to you all and take my departure.

저는 제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쫓겨나고?라고 말해주세요. 나의 형제들이여
여러분 모두들에게 인사드리며 저는 작별을 고합니다.

Here I give back the keys of my door
--and I give up all claims to my house.
I only ask for last kind words from you.

여기 제 집 문의 열쇠들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제 집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
오직 여러분의 마지막 다정한 말씀들만을 바랄 뿐입니다.

We were neighbours for long,
but I received more than I could give.
Now the day has dawned and the lamp that lit my dark corner is out.
A summons has come and I am ready for my journey.

우리는 오랫동안 이웃을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전 여러분에게 줄 수 있었던 것보다 받았던 것이 더 많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아침이 밝았고
저의 어두운 구석자리를 비추던 등불은 꺼졌습니다.
전 부름을 받았고 저만의 여행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94

At this time of my parting, wish me good luck, my friends!
The sky is flushed with the dawn and my path lies beautiful.

나의 이번 떠남에 대해 행운을 빌어주소, 나의 벗들이여.
하늘은 새벽빛으로 붉게 얼굴을 물들었고
나의 길은 아름답게 펼쳐져 있으니.

Ask not what I have with me to take there.
I start on my journey with empty hands and expectant heart.

제가 그곳에 무엇을 지니고 가는지는 묻지 마세요.
전 빈 손과 희망에 찬 마음으로 여행길에 나선답니다.

I shall put on my wedding garland.
Mine is not the red-brown dress of the traveller,
and though there are dangers on the way I have no fear in mind.

전 제 결혼식을 위해 머리에 화관을 쓸 것입니다.
여행자의 붉은 갈색 옷은 제게는 맞지 않지요.
비록 제가 가는 길에 그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한들
제 마음 속에는 전혀 두려움이 없답니다.

The evening star will come out when my voyage is done
and the plaintive notes of the twilight melodies be struck up
from the King's gateway.

제 항해가 끝날 때쯤이면 저녁별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고,
임금님의 대문에서는 황혼의 선율이 구슬픈 가락으로 울려 퍼지겠지요.

95

I was not aware of the moment
when I first crossed the threshold of this life.

저는 처음으로 제가 이 생명의 문지방을 넘었던,
그 순간에 대해 깨닫지 못했습니다.

What was the power that made me open out
into this vast mystery like a bud in the forest at midnight!

저를 이 광활한 신비 속으로 끌어들이
마치 깊은 밤 숲 속의 꽃봉오리처럼
저를 펼치게 한 것은 그 어떤 힘이였을까요?

When in the morning I looked upon the light
I felt in a moment that I was no stranger in this world,
that the inscrutable without name and form
had taken me in its arms in the form of my own mother.

아침에 번져 오는 햇살을 바라보다가
그 순간 문득 저는 느꼈답니다.
제가 이 세상의 전혀 낯선 나그네가 아니라는 것을,
이름도 형상도 없는 불가사의하신 님께서
당신 자신의 손들로 저를 취하시어
저를 낳으신 어머니의 품 속에 저를 넣으셨다는 것을.

Even so, in death the same unknown will appear as ever known to me.
And because I love this life, I know I shall love death as well.

그와 마찬가지로 제가 죽을 때에도 불가사의한 바로 그 님께서
예전의 낯익은 모습으로 내게 오실 것임을.
그리고 이 삶을 제가 사랑하기에,
저의 죽음 또한 제가 사랑하게 될 것임을 저는 압니다.

The child cries out
when from the right breast the mother takes it away,
in the very next moment
to find in the left one its consolation.

자신의 오른쪽 젖가슴으로부터
어머니가 아이를 떼어놓으면 아이는 울지만,
바로 다음 순간이면 아이는 어머니의 왼쪽 가슴에서
그것의 위안을 찾게 되기에.

96

When I go from hence let this be my parting word,
that what I have seen is unsurpassable.

궤뿔 190 보았던 것들은 모두 비할 바 없는 탁월한 것이었네,
이 말이 여기 이 세상을 떠나는 저의 작별인사가 되게 하소서.

I have tasted of the hidden honey of this lotus

that expands on the ocean of light, and thus am I blessed

--let this be my parting word.

곶 191 바다 위에 펼쳐져 있는

황홀경에 들게 하는 이 연꽃의 숨겨진 꿀을 맛보았으니

나는 얼마나 축복 받은 존재인가. ㉠

이 말이 저의 작별인사가 되게 하소서

In this playhouse of infinite forms I have had my play

and here have I caught sight of him that is formless.

저는 무수한 형상들의 유희장인 이 세상 속에서

제가 맡은 배역을 수행해 왔고,

이 세상에 제가 붙잡은 형상 없는 그 분의 모습을 펼쳐왔습니다.

My whole body and my limbs have thrilled with his touch

who is beyond touch; and if the end comes here,

let it come --let this be my parting word.

궂 191 경지를 넘어선 존재인 님과의 접촉이

지금 저의 온 몸과 손발을 떨리게 하고 있습니다,

만일 지금이 저의 마지막 순간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되게 하소서. ㉠

이 말이 저의 작별인사가 되게 하소서

97

When my play was with thee

I never questioned who thou wert.

I knew nor shyness nor fear, my life was boisterous.

저는 늘 님과 더불어 유희했으면서도

한번도 님께서 누구이셨는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줍음도 두려움도 알지 못했고,

제 삶은 떠들썩하고 거칠었습니다.

In the early morning thou wouldst call me from my sleep

like my own comrade and lead me running from glade to glade.

이른 아침이면 님께서는 마치 제 동무인 것처럼 절 부르시며

저를 잠으로부터 깨우셨고,

저를 이끌어 이 숲에서 저 숲의 빈터로 달리게 했습니다.

On those days I never cared to know
the meaning of songs thou sangest to me.
Only my voice took up the tunes,
and my heart danced in their cadence.

그런 지나간 날들에 저는 단 한번도님께서 저를 위해 부르신
그 노래의 의미를 알고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목소리로만 그 가락을 취하여
마음으로 그 리듬에 맞춰 춤추었을 뿐이었습니다.

Now, when the playtime is over,
what is this sudden sight that is come upon me?
The world with eyes bent upon thy feet
stands in awe with all its silent stars.

유희의 시간이 다 지나간 지금
제 눈앞에 닥친 이 놀라운 광경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그 눈을 침묵하는 모든 별들과 더불어
경외감 속에 서 계시는 님의 발 위를 향하고 있나이다.

98

I will deck thee with trophies, garlands of my defeat.
It is never in my power to escape unconquered.

정복되지 않고서 도망치는 것은 결코 제 손에 달린 것은 아니기에,
저는 제 패배의 기념으로 님을 저의 화관들로 꾸미려 하나이다.

I surely know my pride will go to the wall,
my life will burst its bonds in exceeding pain,
and my empty heart will sob out in music like a hollow reed,
and the stone will melt in tears.

저는 제 자존심이 막다른 벽에 부딪치게 되리라는 것도,
제 삶은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만 폭발하여
그 자신의 굴레들을 벗어 던질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나이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야 텅 빈 제 마음이 속이 텅 빈 갈대피리처럼
음악에 맞춰 흐느껴 울게 되리라는 것도,
눈물들 속에서라야 돌이 녹게 되리라는 것도 잘 알고 있나이다.

I surely know the hundred petals of a lotus

will not remain closed for ever
and the secret recess of its honey will be bared.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100 개 달하는 연꽃의 꽃잎들이
영원히 꽃잎을 열지 않은 채 남아 있을 수는 없으리라는 것도,
그리하여 감추어져 있던 남모르는 연꽃의 꿀이
마침내 드러나게 되리라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나이다.

From the blue sky an eye shall gaze upon me
and summon me in silence.

Nothing will be left for me, nothing whatever,
and utter death shall I receive at thy feet.

때가 되면 푸른 하늘에서 눈 하나가 저를 굽어보다가
조용히 저를 부를 것입니다.
그러면 저를 위한 것은 그 무엇 하나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며,
저는 님의 발 아래에서 완전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99

When I give up the helm
I know that the time has come for thee to take it.
What there is to do will be instantly done.

Vain is this struggle.

제가 방향키[主權]를 포기할 때
님께서 키를 잡는 당신의 그 시간이 온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런 상태에서 해야 할 일은 즉시 이루어 질 것입니다.
헛된 것이 (제가 키를 쥐고자하는) 이 투쟁입니다.

Then take away your hands
and silently put up with your defeat, my heart,
and think it your good fortune to sit perfectly still
where you are placed.

그러니 이번에는 너의 손을 치워라.
조용히 자신의 패배를 참고 견뎌라. 내 마음이어.
그리고 그대가 자리한 그곳에 조용히
그대로 온전하게 앉아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겨라.

These my lamps are blown out at every little puff of wind,
and trying to light them I forget all else again and again.

(님을 위해 불을 밝힌) 이런 나의 등잔들은
약한 바람만 불어도 매번 꺼져버리는 것들,
나는 그것들에 불을 붙이려 애를 쓰다가
그 외에 모든 것들을 망각하고 또 망각하였네.

But I shall be wise this time and wait in the dark,
spreading my mat on the floor;
and whenever it is thy pleasure, my lord,
come silently and take thy seat here.

하지만 나 이번만은 지혜로워지리라.
마루 위에 내 자리를 펴놓고 어둠 속에서 기다리리라.
그러하오니 저의 주님이시여
그 어느 때이든 당신의 마음이 내키실 때
조용히 오셔서 여기 제가 마련한 님의 자리에 앉으소서.

100

I dive down into the depth of the ocean of forms,
hoping to gain the perfect pearl of the formless.

저는 객環捉湧 194 대양(物質界)194, 그 대양의 심연 속으로 뛰어들어
객環 194 없는 완전한 진주(解脫)괘 194 얻고자 하나이다.

No more sailing from harbour to harbour
with this my weather - beaten boat.

The days are long passed
when my sport was to be tossed on waves.

저는 이제 더 이상 제 마음의 날씨에 휘둘려 망신창이가 된 배를 타고
이 항구에서 저 항구로 항해하는 것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유희[삶]가 파도에 떠밀려 다니던 그런 날들은 오래 전에 지났나이다.

And now I am eager to die into the deathless.

이제 저는 불멸 속으로 뛰어들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있습니다.

Into the audience hall by the fathom-less abyss
where swells up the music of toneless strings

I shall take this harp of my life.

저는 음[音]이 없는 현들의 음악이 울려 퍼지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의 공간 옆에 자리한 공연장 속으로
저의 것인 이 삶의 거문고(豎琴)를 가져가려고 하나이다.

I shall tune it to the notes of forever,
and when it has sobbed out its last utterance,
lay down my silent harp at the feet of the silent.

저는 영원의 선율로 그 거문고를 조율하여 탈 것입니다.
그리고 흐느끼는 거문고의 마지막 울조림이 다하면
침묵의 발 밑에 조용해진 저의 거문고를 내려놓을 것입니다.

101

Ever in my life have I sought thee with my songs.
It was they who led me from door to door,
and with them have I felt about me, searching and touching my world.

저는 제 노래들과 더불어 늘 저의 삶 속에서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이 문에서 저 문으로 저를 이끈 것이 그 노래들이었으며
노래와 더불어 저는 제 자신에 대해 느꼈고, 저의 세계를 찾아 만났습니다.

It was my songs that taught me all the lessons I ever learnt;
they showed me secret paths,
they brought before my sight many a star on the horizon of my heart.

제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교훈들을
제게 가르친 것도 바로 저의 노래들이었습니다.
노래는 저에게 남모르는 길들을 보여주었고
제 마음의 지평선 위에 하나 하나의 수많은 별들이
제 시야에 들어오도록 가져다 주었습니다.

They guided me all the day long
to the mysteries of the country of pleasure and pain,
and, at last, to what palace gate have the brought me
in the evening at the end of my journey?

저의 노래들은 길고 긴 모든 날 동안
기쁨과 고통의 나라, 신비의 나라를 향해 절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여행이 끝날 무렵이 된 어느 날 저녁,

어느 왕궁의 대문 앞에 저를 데려다 놓은 것입니다.

102

I boasted among men that I had known you.

They see your pictures in all works of mine.

They come and ask me, 'Who is he?'

I know not how to answer them.

I say, 'Indeed, I cannot tell.'

They blame me and they go away in scorn.

And you sit there smiling.

저는 사람들에게 당신께서 저를 잘 아신다고 자랑해왔습니다.

사람들은 저의 모든 작품들 속에서 당신의 초상(肖像)들을 봅니다.

사람들은 제게로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꺃꺃꺃 196 말하는 그 녀은 누구입니까?,

저는 그런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저는 다만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꺃꺃꺃 196, 저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절 책망하다가 비웃으며 가버립니다.

하지만 당신께서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시며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I put my tales of you into lasting songs.

The secret gushes out from my heart.

They come and ask me, 'Tell me all your meanings.'

I know not how to answer them.

I say, 'Ah, who knows what they mean!'

They smile and go away in utter scorn.

And you sit there smiling.

저는 당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기나긴 노래들 속에 담아 넣었습니다.

제 마음으로부터 비밀이 세차게 솟구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로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꺃꺃꺃 196 부른 이 노래들의 뜻을 나에게 전부 말해 줄 수 있소?,

저는 그런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저는 다만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꺃꺃꺃 196, 그 노래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웃다가 몹시 저를 비웃으며 가버립니다.

하지만 당신께서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시며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103

In one salutation to thee, my God,
let all my senses spread out and touch this world at thy feet.

저의 하느님, 당신께 올리는 이 하나의 찬가(讚歌)로 인해
저의 모든 감각들이 두루 펼쳐지게 하시고
당신의 발에 맞추어 이 세상을 어루만지게 하옵소서.

Like a rain-cloud of July hung low
with its burden of unshed showers
let all my mind bend down at thy door in one salutation to thee.

아직 뿌리지 못한 그 자신의 소나기를 짊어진 채
낮게 드리워져있는 7 월의 비구름같이
당신께 올리는 이 하나의 찬가로 인해
저의 모든 마음이 당신의 문을 향해 엎드려 절하게 하옵소서.

Let all my songs gather together
their diverse strains into a single current
and flow to a sea of silence in one salutation to thee.

부디 저의 모든 노래들을 함께 모이게 하시고
제각기 다른 그 선율들이 하나의 흐름에 되게 하시어
당신께 올리는 이 하나의 찬가(讚歌) 속에서
침묵의 바다로 흘러가게 하소서.

Like a flock of homesick cranes
flying night and day back to their mountain nests
let all my life take its voyage to its eternal home
in one salutation to thee.

고향이 그리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산 속 자신들의 둥지를 찾아 날아서 돌아가는 학의 무리처럼,
당신께 올리는 이 하나의 찬가(讚歌)로 인해
부디 저의 모든 삶이 그 자신의 영원한 고향을 향해
자신의 진로를 잡아 향해하도록 해 주옵소서.

The End 끝

End of the Project Gutenberg EBook of Gitanjali,
by Rabindranath Tagore